

제367회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9년3월25일(월)

장 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8. 건축물관리법안(계속)
29. 건축물관리법안(대안)
3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2.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3.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4.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 주택도시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6. 주택도시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7. 주택도시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3.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4.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5.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최정호) 인사청문회

상정된 안건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김철민·윤준호·전재수·강훈식·윤관석·김혜영·송기현·최인호·김병기·김영진 의원 발의)(계속) 5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윤관석·강병원·이철희·정세균·임종성·안호영·김영호·윤호중·김영진·김병기·박홍근 의원 발의)(계속) 5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안호영·정성호·김병욱·노웅래·박주민·윤관석·민홍철·안규백·전현희·유승희·윤영일·이원욱·윤후덕·김경협·정인화·김성원·이명수·김정우·남인순 의원 발의)(계속) 6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권철

- 승·안호영·전현희·정재호·조승래·이수혁·이훈·송옥주·김병기·최인호·김영호·송갑석·위성곤·강병원·김한정·심재권·노웅래 의원 발의)(계속) 6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강훈식·박영선·이학영·이수혁·이원욱·금태섭·남인순·이재정·안규백·박순자 의원 발의)(계속) 6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8.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김영진·황희·윤영일·안호영·김현권·임종성·김철민·우원식·남인순 의원 발의)(계속) 6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황희·강훈식·이수혁·최인호·양승조·김병욱·금태섭·윤관석·김철민·윤후덕·김현권·설훈 의원 발의)(계속) 6
1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강훈식·윤후덕·임종성·신창현·한정애·고용진·김성수·박주민·유승희·안규백·유동수·홍영표 의원 발의)(계속) 6
1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이양수·엄용수·장석춘·신보라·이채익·김성원·이장우·권석창·김명연 의원 발의)(계속) 6
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박경미·윤관석·박찬대·박정·원혜영·신창현·김중로·민홍철·김영호·전재수·김정우·고용진 의원 발의)(계속) 6
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안호영·강훈식·김재원·윤후덕·민홍철·윤관석·전현희·소병훈·김성수·박정 의원 발의)(계속) 6
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유은혜·박찬대·원혜영·유승희·박정·임종성·남인순·최도자·박주민 의원 발의)(계속) 6
1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신용현·심재권·김병기·임종성·기동민·송기현·민홍철·문희상·홍영표 의원 발의)(계속) 6
1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강창일·김병기·김성수·김영진·김현권·노웅래·박남춘·소병훈·손금주·심재권·원혜영·정춘숙 의원 발의)(계속) 6
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김민기·김석기·김영호·김정재·김현권·박덕흠·박명재·서영교·송석준·안호영·오세정·이용주·정운천·최경환(평)·표창원·홍철호 의원 발의)(계속) 6
1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고용진·설훈·우원식·박광운·송갑석·김해영·신경민·권칠승·이춘석 의원 발의)(계속) 6
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2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황주홍·서영교·전현희·박재호·김정우·조승래·정성호·최명길·강창일·설훈·권은희·조정식 의원 발의)(계속) 6
2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김태년·안민석·안규백·고용진·김철민·박남춘·조승래·유동수·윤관석·김영호·전재수·문희상·송옥주·김상희·이춘석·박찬대·김정우·신창현·유승희·심기준·권미혁 의원 발의)(계속) 6
2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정갑윤·김재경·조훈현·박명재·송희경·박인숙·정중섭·김규환·신보라·추경호·박맹우 의원 발의)(계속) 6
2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김현권·최인호·전현희·강훈식·신동근·이원욱·윤후덕·김병욱·김경협·제윤경·김상희·윤관석·임종성 의원 발의)(계속) 6
2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신상진·이은권·박완수·김규환·신보라·김정재·엄용수·윤한홍·장석춘 의원 발의)(계속) 7
2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백혜련·김영진·윤후덕·송기현·박주민·김경협·정춘숙·최재성·제윤경 의원 발의)(계속) 7
2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김성원·이은권·강석호·이채익·윤한홍·

| | |
|---|---|
| 김종석 · 윤종필 · 김정재 · 신보라 의원 발의)(계속) | 7 |
| 28. 건축물관리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 · 전현희 · 이수혁 · 윤일규 · 신동근 · 제윤경 · 윤후덕 · 김현권 · 김병욱 · 최인호 · 강훈식 · 이원욱 · 임종성 · 백재현 · 윤관석 의원 발의)(계속) | 7 |
| 29. 건축물관리법안(대안) | 7 |
| 3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 · 송석준 · 윤영석 · 정태욱 · 김재원 · 이완영 · 강석진 · 심재철 · 김광림 · 정진석 · 이학재 · 김세연 · 김석기 의원 발의)(계속) | 7 |
| 3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 · 송석준 · 윤영석 · 정태욱 · 김재원 · 이완영 · 강석진 · 심재철 · 김광림 · 정진석 · 이학재 · 김세연 · 김석기 의원 발의)(계속) | 7 |
| 32.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 · 송석준 · 윤영석 · 정태욱 · 김재원 · 이완영 · 강석진 · 심재철 · 김광림 · 정진석 · 이학재 · 김세연 · 김석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13697)(계속) ... | 7 |
| 33.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 · 김석기 · 추경호 · 정태욱 · 함진규 · 정진석 · 송석준 · 박명재 · 박인숙 · 윤영석 · 문진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15228)(계속) | 7 |
| 34.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
| 35. 주택도시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 · 안호영 · 고용진 · 이종걸 · 전재수 · 윤준호 · 안민석 · 강훈식 · 윤호중 · 윤관석 의원 발의)(계속) | 7 |
| 36. 주택도시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 · 신창현 · 김현권 · 위성곤 · 전재수 · 윤영일 · 서삼석 · 이수혁 · 김정우 · 윤관석 · 이찬열 의원 발의)(계속) | 7 |
| 37. 주택도시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
| 3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 · 신창현 · 김현권 · 위성곤 · 전재수 · 윤영일 · 서삼석 · 김정우 · 이수혁 · 전현희 · 윤관석 · 이찬열 의원 발의)(계속) | 7 |
| 3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 · 권석창 · 이종명 · 성일중 · 이명수 · 박성중 · 조훈현 · 김도읍 · 이현재 · 홍문종 의원 발의)(계속) | 7 |
| 4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 · 정춘숙 · 안호영 · 임종성 · 김병욱 · 김병기 · 표창원 · 유은혜 · 문희상 · 김두관 의원 발의)(계속) | 7 |
| 4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 · 황희 · 강훈식 · 이수혁 · 김두관 · 최인호 · 양승조 · 조정식 · 김병욱 · 금태섭 · 김철민 · 윤후덕 · 김현권 · 임종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12977)(계속) | 7 |
| 4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 · 황희 · 강훈식 · 이수혁 · 김두관 · 최인호 · 양승조 · 조정식 · 김병욱 · 금태섭 · 윤관석 · 김철민 · 윤후덕 · 김현권 · 설훈 · 임종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13019)(계속) | 7 |
| 4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 · 이훈 · 이종걸 · 주승용 · 황주홍 · 강훈식 · 정인화 · 김해영 · 서형수 · 윤영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13304)(계속) | 7 |
| 4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 · 윤영일 · 이훈 · 이개호 · 주승용 · 황주홍 · 윤후덕 · 이종걸 · 강훈식 · 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4012)(계속) | 7 |
| 4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 · 지상욱 · 금태섭 · 임재훈 · 이동섭 · 정태욱 · 김상훈 · 정동영 · 박덕흠 · 박주민 · 최도자 의원 발의)(계속) | 7 |
| 4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
| 4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 · 박재호 · 서형수 · 김민기 · 김해영 · 최인호 · 이원욱 · 전재수 · 김경수 · 이개호 · 정인화 의원 발의)(계속) | 7 |
| 4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 · 강훈식 · 박영선 · 이학영 · 이수혁 · 이원욱 · 금태섭 · 남인순 · 이재정 · 안규백 · 박순자 의원 발의)(계속) | 8 |
| 4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
| 5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 · 노웅래 · 강창일 · 장정숙 · 황주홍 · 박주선 · 최도자 · 박선숙 · 윤영일 · 정동영 의원 발의)(계속) | 8 |

- 5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변재일·오세정·김영호·서영교·김민기·김현권·김석기·홍철호·표창원·송석준·박명재·최경환(평)·이용주·안호영·박덕흠·정운천 의원 발의)(계속) 8
- 5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김영진·강훈식·권칠승·홍의락·백혜련·김병기·안호영·조경태·노웅래 의원 발의)(계속) 8
- 5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 5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강훈식·박영선·이학영·박찬대·이수혁·이원욱·금태섭·남인순·이재정·안규백·박순자 의원 발의)(계속) 8
- 5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이해찬·조정식·안규백·김병기·신창현·윤관석·민홍철·박경미·박정·김태년·이수혁·강훈식·남인순·유동수 의원 발의)(계속) 8
- 5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안호영·임종성·김철민·박재호·박찬대·윤관석·이종걸·이후삼·김성수·윤후덕 의원 발의)(계속) 8
- 5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추경호·김승희·정진석·박맹우·윤영석·김영우·윤한홍·박인숙·김기선·김광림 의원 발의)(계속) 8
- 5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 5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박덕흠·김성태·김재원·윤한홍·최연혜·임이자·조경태·이종배·이명수 의원 발의)(계속) 8
- 6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박홍근·제윤경·김철민·서영교·우원식·심기준·윤준호·서삼석·노웅래 의원 발의)(계속) 8
- 6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안호영·임종성·고용진·이종걸·전재수·윤준호·안민석·강훈식·윤호중 의원 발의)(계속) 8
- 6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 63.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임종성·고용진·박재호·김병관·변재일·남인순·우원식·박광온·송갑석·김해영·신경민·권칠승·전현희·이춘석 의원 발의)(계속) 8
- 64.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임종성·소병훈·윤관석·김영호·금태섭·남인순·박덕흠·안규백·이찬열·송옥주 의원 발의)(계속) ... 8
- 65.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최정호) 인사청문회 12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 김현미 국토부장관 대신 박선호 1차관과 김정렬 2차관이 대신하여 출석하게 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로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해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오늘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용 위원** 바른미래당 주승용 위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친정에 온 기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지난 3월 1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 64건에 대해 먼저 심사하여 의결한 다음 국무위원후보자 국토교통부장관 최정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김철민·윤준호·전재수·강훈식·윤관석·김해영·송기현·최인호·김병기·김영진 의원 발의)(계속)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윤관석·강병원·이철희·정세균·임종

성·안호영·김영호·윤호중·김영진·김병기·박홍근 의원 발의)(계속)

-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안호영·정성호·김병욱·노웅래·박주민·윤관석·민홍철·안규백·전현희·유승희·윤영일·이원욱·윤후덕·김경협·정인화·김성원·이명수·김정우·남인순 의원 발의)(계속)
-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권철승·안호영·전현희·정재호·조승래·이수혁·이훈·송옥주·김병기·최인호·김영호·송갑석·위성곤·강병원·김한정·심재권·노웅래 의원 발의)(계속)
-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강훈식·박영선·이학영·이수혁·이원욱·금태섭·남인순·이재정·안규백·박순자 의원 발의)(계속)
-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김영진·황희·윤영일·안호영·김현권·임종성·김철민·우원식·남인순 의원 발의)(계속)
-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황희·강훈식·이수혁·최인호·양승조·김병욱·금태섭·윤관석·김철민·윤후덕·김현권·설훈 의원 발의)(계속)
- 1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강훈식·윤후덕·임종성·신창현·한정애·고용진·김성수·박주민·유승희·안규백·유동수·홍영표 의원 발의)(계속)
- 1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이양수·엄용수·장석춘·신보라·이채익·김성원·이장우·권석창·김명연 의원 발의)(계속)
- 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박병석·박경미·윤관석·박찬대·박정·원혜영·신창현·김중로·민홍철·김영호·

전재수·김정우·고용진 의원 발의)(계속)

- 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안호영·강훈식·김재원·윤후덕·민홍철·윤관석·전현희·소병훈·김성수·박정 의원 발의)(계속)
- 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유은혜·박찬대·원혜영·유승희·박정·임종성·남인순·최도자·박주민 의원 발의)(계속)
- 1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황희·신용현·심재권·김병기·임종성·기동민·송기현·민홍철·문희상·홍영표 의원 발의)(계속)
- 1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강창일·김병기·김성수·김영진·김현권·노웅래·박남춘·소병훈·손금주·심재권·원혜영·정춘숙 의원 발의)(계속)
- 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김민기·김석기·김영호·김정재·김현권·박덕흠·박명재·서영교·송석준·안호영·오세정·이용주·정운천·최경환(평)·표창원·홍철호 의원 발의)(계속)
- 1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고용진·설훈·우원식·박광온·송갑석·김혜영·신경민·권철승·이춘석 의원 발의)(계속)
- 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황주홍·서영교·전현희·박재호·김정우·조승래·정성호·최명길·강창일·설훈·권은희·조정식 의원 발의)(계속)
- 2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김태년·안민석·안규백·고용진·김철민·박남춘·조승래·유동수·윤관석·김영호·전재수·문희상·송옥주·김상희·이춘석·박찬대·김정우·신창현·유승희·심기준·권미혁 의원 발의)(계속)
- 2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정갑윤·김재경·조훈현·박명재·송희경·박인숙·정종섭·김규환·신보라·추경호·박맹우 의원 발의)(계속)
- 2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김현권·최인호·전현희·강훈식·신동근·이원욱·윤후덕·김병욱·김

- 경협·제윤경·김상희·윤관석·임종성 의원 발의)(계속)
- 2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신상진·이은권·박완수·김규환·신보라·김정재·엄용수·윤한홍·장석춘 의원 발의)(계속)
- 2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백혜련·김영진·윤후덕·송기현·박주민·김경협·정춘숙·최재성·제윤경 의원 발의)(계속)
- 2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정유섭·김성원·이은권·강석호·이채익·윤한홍·김종석·윤종필·김정재·신보라 의원 발의)(계속)
- 28. 건축물관리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전현희·이수혁·윤일규·신동근·제윤경·윤후덕·김현권·김병욱·최인호·강훈식·이원욱·임종성·백재현·윤관석 의원 발의)(계속)
- 29. 건축물관리법안(대안)**
- 3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송석준·윤영석·정태욱·김재원·이완영·강석진·심재철·김광림·정진석·이학재·김세연·김석기 의원 발의)(계속)
- 3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송석준·윤영석·정태욱·김재원·이완영·강석진·심재철·김광림·정진석·이학재·김세연·김석기 의원 발의)(계속)
- 32.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송석준·윤영석·정태욱·김재원·이완영·강석진·심재철·김광림·정진석·이학재·김세연·김석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13697)(계속)
- 33.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김석기·추경호·정태욱·함진규·정진석·송석준·박명재·박인숙·윤영석·문진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15228)(계속)
- 34.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5. 주택도시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안호영·고용진·이종걸·전재수·윤준호·안민석·강훈식·윤호중·윤관석 의원 발의)(계속)
- 36. 주택도시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신창현·김현권·위성곤·전재수·윤영일·서삼석·이수혁·김정우·윤관석·이찬열 의원 발의)(계속)
- 37. 주택도시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신창현·김현권·위성곤·전재수·윤영일·서삼석·김정우·이수혁·전현희·윤관석·이찬열 의원 발의)(계속)
- 3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권석창·이종명·성일종·이명수·박성중·조훈현·김도읍·이현재·홍문종 의원 발의)(계속)
- 4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강훈식·정춘숙·안호영·임종성·김병욱·김병기·표창원·유은혜·문희상·김두관 의원 발의)(계속)
- 4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황희·강훈식·이수혁·김두관·최인호·양승조·조정식·김병욱·금태섭·김철민·윤후덕·김현권·임종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12977)(계속)
- 4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안호영·황희·강훈식·이수혁·김두관·최인호·양승조·조정식·김병욱·금태섭·윤관석·김철민·윤후덕·김현권·설훈·임종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13019)(계속)
- 4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이훈·이종걸·주승용·황주홍·강훈식·정인화·김해영·서형수·윤영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13304)(계속)
- 4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윤영일·이훈·이개호·주승용·황주홍·윤후덕·이종걸·강훈식·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14012)(계속)
- 4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이혜훈·지상욱·금태섭·임재훈·이동섭·정태욱·김상훈·정동영·박덕흠·박주민·최도자 의원 발의)(계속)
- 4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박재호·서형수·김민기·김해영·최인호·이원욱·전재수·김경수·이개호·정인화 의원 발의)(계속)

- 4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강훈식·박영선·이학영·이수혁·이원욱·금태섭·남인순·이재정·안규백·박순자 의원 발의)(계속)
- 4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노웅래·강창일·장정숙·황주홍·박주선·최도자·박선숙·윤영일·정동영 의원 발의)(계속)
- 5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변재일·오세정·김영호·서영교·김민기·김현권·김석기·홍철호·표창원·송석준·박명재·최경환(평)·이용주·안호영·박덕흠·정운천 의원 발의)(계속)
- 5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김영진·강훈식·권칠승·홍의락·백혜련·김병기·안호영·조경태·노웅래 의원 발의)(계속)
- 5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윤관석·강훈식·박영선·이학영·박찬대·이수혁·이원욱·금태섭·남인순·이재정·안규백·박순자 의원 발의)(계속)
- 5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이해찬·조정식·안규백·김병기·신창현·윤관석·민홍철·박경미·박정·김태년·이수혁·강훈식·남인순·유동수 의원 발의)(계속)
- 5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안호영·임종성·김철민·박재호·박찬대·윤관석·이종걸·이후삼·김성수·윤후덕 의원 발의)(계속)
- 5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추경호·김승희·정진석·박맹우·윤영석·김영우·윤한홍·박인숙·김기선·김광립 의원 발의)(계속)
- 5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박덕흠·김성태·김재원·윤한홍·최연혜·임이자·

조경태·이종배·이명수 의원 발의)(계속)

- 6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박홍근·제윤경·김철민·서영교·우원식·심기준·윤준호·서삼석·노웅래 의원 발의)(계속)
- 6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안호영·임종성·고용진·이종걸·전재수·윤준호·안민석·강훈식·윤호중 의원 발의)(계속)
- 6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3.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임종성·고용진·박재호·김병관·변재일·남인순·우원식·박광온·송갑석·김혜영·신경민·권칠승·전현희·이춘석 의원 발의)(계속)
- 64.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윤후덕·임종성·소병훈·윤관석·김영호·금태섭·남인순·박덕흠·안규백·이찬열·송옥주 의원 발의)(계속)

(10시02분)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4항까지 이상 64건의 법률안을 계속해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장이신 이현승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李憲昇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이현승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14일 총 5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5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법률안의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박재호 의원과 강훈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김경협 의원과 윤관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환원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김기선 의원, 박병석 의원, 임종성 의원, 윤후덕 의원, 황희 의원, 김영호 의원, 변재일 의원, 박홍근 의원, 김석기 의원, 민경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비상용 출입창 및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건축자재에 대한 성능시험을 의무화하며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를 상향하는 것입니다.

다음, 노웅래 의원, 송영길 의원, 김석기 의원, 안호영 의원, 민경욱 의원, 김병기 의원, 정유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관리법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인 건축물관리법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건축물의 해체에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박홍근 의원과 김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토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아 기금대출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 공급업무 대행자의 자격 기준 및 대행업무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영춘 의원과 윤관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험건축물 보수·보강을 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의 예외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정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공사비 검증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해찬 의원, 박홍근 의원, 김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주택 지구지정 등의 업무에 참여한 사람은 관련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음, 함진규 의원, 신창현 의원, 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아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서 고생하신 이현승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관련해서 국회법 제58조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 중 일부개정법률안들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면밀히 축조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항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및 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항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및 1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1항의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19항, 이상 8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0항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건축물관리법안(대안)을 의결하기 전에 먼저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동 법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10조 관련 정보의 보관 및 제공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제11조부터 제29조까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30조부터 제40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41조부터 부칙까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제28항, 이상 8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9항의 건축물관리법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및 제33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4항의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및 제3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7항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45항, 이상 7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6항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및 제48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9항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52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3항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57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8항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61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2항의 민간임대주

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과 관련하여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 중에서 대안 등의 경우 예산이 수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촉박한 의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신하여 1차관이신 박선호 차관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호 차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박선호**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

이헌승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윤관석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에도 건축물관리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0건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하위법령 정비와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박선호 차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법안 심사를 마치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훈 간사 어디 계시지요?

(위원장, 간사와 협의)

65.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최정호) 인 사청문회

(10시19분)

○위원장 박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최정호)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국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공직수행 능력과 자질 그리고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하여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을 비롯해서 주택 및 도시의 건설, 도로·철도·항공 등 SOC 확충, 교통과 물류의 원활한 운영 등 국가경제 활동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정부에서는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돌아서서 적은 주거비 부담으로 내 집을 마련하거나 주택을 임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서민소득에 비해 주택가격이 높은 실정으로 국민들은 집값 하락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간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광역버스 확충 및 운영의 효율화 등을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지난주 출범되었지만 그동안 투자가 미흡했던 환승센터, BRT 등 광역교통 운영 및 관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해야 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몫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해신공항, 제주 2공항, 울릉도 및 흑산도의 소형 공항 등 지역공항 건설과 관련되어 파생되고 있는 소음·안전·환경 문제도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에는 수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높은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맞춤형 주거복지, 광역교통서비스 확대, 지역공항 건설 및 도로와 철도 인프라 확충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정책들에 대한 충실한 이행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내외 저성장 기조 속에서도 건설업과 운수업 등 국토·교통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는 30년간 관료로 근무하며 국토교통부의 현안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검증 과정에 밝혀졌듯이 조정지역에 고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녀에게 현 주거지를 편법 증여하고 박사논문 표절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은 물론 국토·교통 분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 그리고 당면 현안에 대한 이해와 정책 구상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최정호 후보자에게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서 오늘 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청취한 뒤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들은 다음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회방송에서는 청문회 전 과정을 생중계 방송할 예정이며, MBC와 SBS는 청문회 시작부터 오늘 12시까지 생중계하고, KBS는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직후보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9년 3월 25일

공직후보자 최정호

○위원장 박순자 다음은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존경하는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로 지명받은 최정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국민 한 분 한 분 앞에 섰다는 생각으로 청문회 전 과정에 걸쳐 진솔하고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서 저의 여러 부족한 점, 특히 부동산 보유 등과 관련하여 질책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단지 장관후보로서 앞으로의 정책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제가 공직에 입문하던 시절의 초심은 물론 저의 삶과 인생 전반을 무겁고 진지하게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사려 깊게 헤아리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새로운 각오도 다지게 되었습니다.

제게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들과 위원님들의 엄중한 비판을 소중하고 값진 교훈으로 가슴 깊이 새기고 공복으로서의 신념과 가치관을 다시 갈고닦아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헌신할 것임을 거듭 다짐하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토교통부 업무는 주거와 교통, 안전 등 국민 실생활과 삶의 질에 필수 기반이 되는 분야입니다. 계층이나 세대를 막론하고 어느 국민도 이들 필수적인 핵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국민도 집 걱정이나 이사 걱정을 하지 않도록 촘촘한 주거복지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이했지만 아직도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를 벗어나지 못한 주거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이들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공급도 OECD 수준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보다 확고해질 수 있도록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시장관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이어주는 교통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GTX, 광역버스, 슈퍼 BRT 등 핵심 교통수단을 빠르게 확충하고 효율화하여 평균 90분대가 소요되는 출퇴근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국토·교통 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확실하게 잡고 줄여 나가겠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과 터미널, 임대주택, 복지센터 등을 미세먼지 안심지대로 만들겠습니다.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경유 차량을 친환경 수소차로 전면 전환하고 수소 에너지 기반 시범도시도 조성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도로, 철도 등 노후 기반시설과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안전진단을 통해서 선제적이고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등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를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젊은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건설, 운수업 등 전통산업과 미래 신산업의 상생과 혁신을 이끌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약 400만 명에 달하는 건설과 운수업 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이 나아지도록 산업 체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겠습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살리기 또한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당면 과제입니다. 도시재생과 지역 SOC사업, 혁신도시, 행복도시, 새만금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가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통해 갖게 된 확신은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지 않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저에게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 국민께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토·교통 분야를 두루 거치며 쌓아온 저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리는 가운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협업과 강한 추진력으로 현안과 정책을 풀어가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준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문회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후보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먼저 짧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경기 하남 이현재 위원입니다.

최정호 후보자 관련해서 인사검증 자료 서류를 제출한 시기와 후보자로 지명된 시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한테도 요구했고 청와대에도 요청했는데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인사검증동의서 제출 시기만을 요구했는데도 아직 못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후보자에게 본 위원 질의 전에 제출하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순자** 다음, 박덕흠 위원님.

○**박덕흠 위원** 이현재 위원님이 지금 했던 서류

를 저한테도 보내 주시고요. 또 분당 아파트를 자녀와 사위에게 증여 후 임대차 목적으로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통장 사본 등 입증 서류를 빨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자**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승 위원님.

○**李憲昇 위원** 국토부의 1급 이상 공무원에게 특별공급되는 아파트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경쟁률이라든지 면적 이런 것이 누락되어 있는데 상세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순자** 지금 자리에 공직후보자 보좌하는 직원 나와 계시지요? 조금 전에 이현재 위원과 박덕흠 위원님 그리고 이현승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질의 중에라도 빨리 준비해서 갖다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희 위원님.

○**황희 위원**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하는 데, 이것은 국토부에서 준비해 주세요, 선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후보자가 주택 매입했을 때, 주택이 한 15년, 20년 이렇게 되었는데 그 시세변동표를 보내 주시고……

혹시, 차관 임명할 때도 국토부 내에서 검증을 하지요? 당시 후보자가 차관으로 임명될 때 국토부 내에서 검증했던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의 세 번째입니다. 국토부 내에 자료가 있을 테니까 그것 빨리 전달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순자** 다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방금 전에 황희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토교통부차관으로 계셨기 때문에 차관 임명에 관련한 국토부의 인사검증 그리고 청와대에서 검증을 해서 차관으로 임명했던 사안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포항 지진이 설계됐었던 2010년부터 포항 지진이 발생한 2017년 11월 15일까지 시초와 지진 현황에 관해서 파악된 부분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를 준비해 주시는 부에서 같이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다음,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세종시 지역 내에서 정무직 공무

원과 정년 앞두고 있는 고위 공무원들의 특별공급 현황 자료 좀 오전 중에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자** 다음, 함진규 위원님.

○**咸珍圭 위원** 광명·시흥지구 525만 평 택지개발을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도에 지정을 해 놓고 박근혜정부 때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사유재산권을 지금 묶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가 광명·시흥지구 525만 평에 대해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향후 계획 이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자** 후보자 보좌하는 공직자는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께 자료 준비가 되는 것부터 바로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님.

○**송언석 위원** 저도 자료제출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녀와 장남이 모두 특례입학,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송언석 위원** 거기에 대한 입학 당시의 특례 규정 있지 않습니까, 그 특례 규정하고 두 자녀의 학교 관계—그전에 해외 나가기 전의 학교, 갔다 와서 학교 다닌 것—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자** 이제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여야 간사 간 합의 결과 주질의 7분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서 제일 먼저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성 위원** 우선 최정호 후보자에게 축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책을 맡으셨는데 부동산 가격 안정과 주거복지 실현 또 미세먼지 대책 그리고 남북 관계가 풀렸을 때 남북 교통체계 연결과 침체된 국내 경기, 건설 또 경기 부양 등 산적한 현안들이 후보자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임종성 위원** 국토부에서 잔뼈가 굵은 후보자인 만큼 이러한 현안들을 잘 해결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에게 요즘 부동산 문제, 즉 후보자가 소유한 주택 관련한 의혹 제기가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알고 있습니다.

○**임종성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지혜롭지 못하게 재산을 관리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의 입장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제가 비록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했습니다마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또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 등등을 감안할 때 정말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우선 후보자가 보기에 문제인 정부의 국토 정책과 교통 정책의 핵심 기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삶과 우리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국토교통부가 큰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주거, 교통, 안전, 국토의 균형발전, 미세먼지 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한번 챙겨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성 위원** 그렇다면 현 김현미 장관의 경우 치솟던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켰다는 평가와 함께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건설 경기를 위축시켰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킨 것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건설 경기의 침체는 최근에 SOC의 투자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서 앞으로 SOC도 적정 수준의 투자가 되고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임종성 위원** 후보자는 박근혜정부에서 국토부 요직인 항공정책실장과 기초실장 그리고 교통 분야를 총괄하는 2차관을 역임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임종성 위원** 한마디로 전 정부 사람인데도 대통령께서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면 장관으로 임명된 이유가 무엇이고 후보자에게 어떤 성과를 기대하는지 후보자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먼저 막중한 사

명감과 소명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전 정부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리매김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후보자로 임명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제가 막중한 책임감을 더욱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국토·교통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보다 성과를 내고 국민 여러분께 체감할 수 있는 단계를 보여 달라 이런 주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지금 국민이 후보자한테 바라는, 기대하는 정책 또 성과가 많다고 봅니다, 국토부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께서 후보자한테 바라는, 기대하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몇 개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주거 분야에 대해서는 주택시장이 안정되어야 되고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주거의 취약계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따뜻한 손길이 가고 주거 수준 이상으로 주택을 마련해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 역시 출퇴근 시간에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반으로 줄이고, 그래서 국민들께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역시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종성 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국토부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간략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저의 그간의 전문성과 또 저 혼자만으로는 물론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이 일체로 똘똘 뭉쳐서 하고 각계 전문가 또 국민 여러분, 현장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찾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후보자님께서 미세먼지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는 국민이 많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임종성 위원 이제 미세먼지 대책은 우리 정부의 최대 현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까

지 미세먼지대책위원장으로 세우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알고 있습니다.

○임종성 위원 국토교통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거든요. 국토교통부가 미세먼지를 줄이는 가장 큰 방편은 바로 대중교통 확대를 통한 교통량 감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동의합니다.

○임종성 위원 그 때문에 본 위원은 교통량을 줄이는 방법을 최근 출범한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도시권, 특히 수도권은 면적이 국토의 8분의 1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로상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 수도권 대중교통망 확충이 가장 필수적이라고 보고, 특히 수도권 외곽 지역, 이천의 송석준 위원님이나 김포의 홍철호 위원님 또 경기도 광주, 저의 지역구이지요, 안산의 김철민 위원 등 이렇게 수도권 외곽 지역에 촘촘한 대중교통망을 설치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도로상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본 위원은 최근 출범한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의 역할과 조직을 확대 개편해서 이와 같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미세먼지에 경유차 또 승용차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국민들께서 이용하기 편하게 함으로써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자체도 현재 경유로 되어 있는 것을 수소 등 친환경적인 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여러 교통축별로 지금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데 빠른 교통수단, 편리한 교통수단 이런 것들이 조속히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오늘 인사말에 있듯이 국민이 공

감하고 신뢰하지 않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위원장 박순자 임종성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임종성 위원 그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안녕하십니까? 충북 보은 대추, 영동 와인, 옥천 묘목, 괴산 절임배추의 고장이 지역구인 박덕흠 위원입니다.

우선 장관후보자 지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전에는 도덕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또 오후에는 정책질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분당 아파트 이게…… 세 채를 가지고 계신데 모두 투기 관련 지역입니다. 또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모친 주택도 재개발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작년 4월에 배우자 이름으로 청약통장을 신규 가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토부차관까지 지내신 분이 문재인 정부 국토정책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오셨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고 계십니다. 또 아까 질의 과정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했다고 하는데 정말 국민들이 이것을 믿을 분이 계신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2003년 장관비서관 시절에 잠실 주공아파트를 취득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맞습니다.

○박덕흠 위원 장관비서관은 앞으로 재건축 허가가 어려워져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된다는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시행인가가 확실한 잠실 주공아파트를 골라서 투기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다음 화면을 보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박덕흠 위원 세종시 특별공급 당첨 당시에 국토부 2차관으로 근무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맞습니다.

○박덕흠 위원 당시에도 2주택으로의 신분이 있었고 퇴직을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세종시에서 64평형 펜트하우스를 청약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약 7억 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프리미엄의 정확한 가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마는 세종에 거주할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준공이 되면 바로 입주할 계획입니다.

○박덕흠 위원 그것은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이 2차관으로 재직할 당시에 모친 소유 주택이 있는 부평4구역은 당초에 5, 6개 정도 정비구역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2개월 후 최종 발표는 갑자기 15곳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알고 계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전혀 몰랐고요.

○박덕흠 위원 모르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제가 2차관으로 재직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거나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해충돌 방지법에 저촉되는지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지요.

당시 12등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부평4구역이. 최종 발표에 포함되는 행운을 안게 되는데 이때 세대수 증가 또 용적률 상승 등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특혜가 아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저는 이번에 위원님의 자료 요청이 있어서 그때 알았습니다.

○박덕흠 위원 아, 그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사실과 다릅니다.

○박덕흠 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언론 자료를 보면, 지금 다주택자 상태에서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껴서 분당 아파트를 증여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맞습니다.

○**박덕흠 위원** 이 문맥을 보면 청와대 인사검증 서류 제출 전에 증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증여는 2월에 이루어졌고요.

○**박덕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사검증 서류 제출 전에 증여를 했는지 그것만 지금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거의 비슷한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박덕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후……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전후관계는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전후를, 전에 했는지 후에 했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도 다 그 부분을 궁금해 하고 있는 부분이고 국민들도 지금 상당히 궁금해 할 겁니다. 그것은 헛갈릴 정도가 아니고 후보자 지명된 것이 얼마 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건 자료 제출하고 또 필요하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기억이 안 나신다는 얘기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아닙니다. 제가 증여를……

○**박덕흠 위원** 이 문맥을 보면 어떻게 됐든 인사검증 서류 제출 전에 증여를 한 것으로 보여요, 이 문맥상 이렇게 보면.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저는 답변으로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잠실 주택을 저희가 2008년에 2주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덕흠 위원** 2008년에 분당 아파트를 팔고 잠실로 이사하려 했다, 부동산시장이 안 좋아서 처분이 힘들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맞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이때도 매매가 많이 됐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가

격이 그때 13억 5000만 원인가 아마 이렇게 내렸다고 그러는데 12억 8000만 원 정도, 12억 5000에 거래된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말이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제가 말씀드리는데……

○**박덕흠 위원** 또 김현미 장관께서 2018년 3월까지 팔라고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세제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들 많이 팔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팔았어야 되고. 또 이게 세를 끼고 집을 사고 또 대출을 끼고 집을 또 사고 하는 것은 투기 수단으로 보는 신중 수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내용은 아십니까, 후보자님?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이것 누가 이야기했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깃 투자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이게 김현미 장관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신중 수법.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박덕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양천갑 황희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당연히 다주택자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서상 장관후보자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비가 되는 거고요.

이것 보십시오. 증여를 하면 증여했다고 뭐라고 해요,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했다고 뭐라고 하고. 증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매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후보자께서 2주택을 소유한 게 지금 장기적으로 보유하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황희 위원** 몇 년, 몇 년 되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분당 같은 경우는 20여 년이 넘었고요.

○**황희 위원** 20여 년 됐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이제 분당은 증여를 해서 지금은 1주택 1분양권 상태입니다. 잠실도 한 16년 됐습니다.

○**황희 위원** 그래요. 16년, 20년이면 그게 잘못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아마 이것을 후보자께서 팔았으면 이익실현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했다고 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솔직하고 당당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주택을 갖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요.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갖고 필요에 의해서도 갖고 또 노후에 대비해서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추진하는, 다주택자를 제한하는 이유도 과거 기준에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해서 벌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앞으로 향후 투기성 목적으로 주택을 많이 소유하는 것을 쉽사리 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정책의 의도와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장관께서 정책 시행 이후에 다주택 보유자라 할지라도 국민 정서상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시뮬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집중적으로 투기 의혹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96년에 매입한 분당 집은 1주택자니까 그렇다치고 2003년도에 잠실 집을 매입하면서 2주택자가 된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맞습니다.

○황희 위원 이것 왜 매입한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때 당시 아이들이 중학교 다녔습니다만 장래 통학 등을 감안해서 서울로 이사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실거주 목적으로 했습니다. 사실……

○황희 위원 그때 후보자 직급이 어떻게 됐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때……

○황희 위원 과장……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과장 때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서울에서 단칸방도 살아봤고 합니다만 서울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분당으로 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통학 등 감안해서 서울로 갈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황희 위원 03년도면 참여정부 시절인데 부동산 투기가, 집값이 오르기 좀 전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딱지를 구매했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딱지는 전혀 아니고요.

○황희 위원 그런 사실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아닙니다. 건물 상태에서 매입을 했고 그게 나중에 재건축이 됐

습니다.

○황희 위원 이 딱지라는 게 분양권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황희 위원 그게 아니라서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렇습니다.

○황희 위원 건물로 구입했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맞습니다.

○황희 위원 이것은 15년 보유하고 있다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황희 위원 그러면 세 번째로 세종 집을 구입하면서…… 이것은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것은 제가 차관 때니까 2016년으로 기억합니다.

○황희 위원 그러면서 3주택자가 된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황희 위원 국토부 고위직으로서 3주택, 물론 공공기관 이전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부담을 안 느끼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2008년 분당 매각이 안 되면서부터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던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사려 깊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황희 위원 그러면 분당이나 잠실 집을 매각하시려고 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렇습니다.

○황희 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분당 집은 잠실 아파트 준공 전에 매각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때가 2008년 당시였습니다. 그때 주택 가격이 급등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유독 분당만이 더 전국적으로 가장 급락률이 높았던 지역이어서 그때 매각이 안 됐습니다.

○황희 위원 분당 집이 후보자께서 집을 매입한 이후에 계속 올랐어요, 아니면 올랐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랬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등락이 있었습니다.

○황희 위원 그러면 가장 최고조로 올랐을 때, 부동산 투기나 투자가 목적이었으면 그때 올랐을 때 팔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런 면에는 제가 둔감합니다.

○**황희 위원** 좋아요.

그러면 분당 집 증여는 부담을 느껴서 하신 겁니까? 분당 집 증여는 왜 하신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든 다주택 상태를 면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늘 가져왔고요. 그래서 매각 방법도 있고 증여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황희 위원** 이것 세금 문제는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세금은 정당하게 증여세를 내고 하면 되는 것이고요. 증여 문제도 자식들이 있고 해서 하나의 정리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 앞에 조급이라도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로서 몇몇함을 갖고자 정리하는 과정에서 증여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황희 위원** 그런데 증여할 때도 이게 자녀한테 나누어서 부부에게 증여하다 보니까 그것도 또 세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세금을 줄이기 위한, 그렇게 해서 사위하고 딸한테 증여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사위도 자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회적으로 그런 추세도 있고 해서……

○**황희 위원** 그러면 증여하는데 자녀들이 여기 안 살고 왜 후보자가 계속 살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8월에 세종의 공사가 완공이 되면 8월에 입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의 기간을 집을 얻는다는 게, 그런 매물도 없을뿐더러 또 여러 가지 사정상 단기간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해 놓은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임대차계약도 정확하게 쓰고 하는 것이 딸과 부모 자식 간이지만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냥 사는 것보다는 제대로 돈 내고 사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용 위원** 전남 여수 출신 주승용 위원입니다.

우선 장관후보자로 내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감사합니다.

○**주승용 위원** 인사청문회를 하는 목적은 후보자의 도덕성 그리고 장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가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언론에 보도된 도덕성 문제, 특히 주택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장관이라 하면 부동산 투기를 막아서 집값을 안정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주무장관으로서 지금 여야 위원들 모두에게서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에 보도된 것만 분석을 해 보니까 본인의 해명과는 달리 현재 살고 있는 분당 집, 이것은 아까 박덕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증여 시점이 국무위원후보자로 될 것을 알고 증여를 했는지, 모르고 했는데 우연히 2월 달에 했는데 국무위원후보자가 됐는지 제가 분석을 해 보면 무엇인가 장관후보자로 내정될 것을 알고 3주택보다는 2주택이 되는 게 낫겠다 해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짊었고요, 아무리 지금 말씀을 달리하셔도.

또 이것을 딸과 사위 부부 아닙니까? 부부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주승용 위원** 사위도 자식인데…… 딸과 사위에게 줬던 것은 사위가 자식이라고 해서 주었다기보다는 딸과 사위에게 각각 증여를 했을 때 증여세가 더 절감되기 때문에, 절세한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절감되기 때문에 딸에게만 증여하는 것보다는 사위에게도 같이 공동으로 증여해 주는 게 낫겠다, 나라면 그랬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잠실 재건축 예정 아파트 이것은 15년을 보유했는데 한 번도 지금까지 사신 적이 없어요. 그냥 깡 투자해서 전세로만 살았지요.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지금 현재까지 한 15년을 보유하고 있는데 시세대로 하면 한 10억 이상 차익이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자식들 교육도 있고 그래서 분당보다는 서울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이력서를 보니까 2003년도 그 당시에 주미국대사관 건설교통관으로 나가셨단 말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주승용 위원** 그래 갖고 3년을 계셨어요. 그러면 분당 집도 비어 있는데 그 상태에서 또 잠실 주택까지 사야 될, 미국으로 가 계시면서 자식들 교육 때문에 이것을 샀겠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15년 동안 한 번도 거주한 적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뭔가 재산 증식 목적에서 사 놨을 수도 있겠다라는 제 의혹이 들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위원님, 그것은 주미대사관 나갈 때 분당 집을 전세를 썼고요. 그 전세금을 가지고……

○**주승용 위원** 그것을 샀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잠실을 매입했고, 귀국 후에는 잠실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주승용 위원** 어쨌든 15년 동안 보유함으로 해서 10억 정도 시세 차익이 나고 있거든요, 본인의 의지와는 달리. 그래서 이것은 재산 증식 목적이 더 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지적을 달갑게 받겠습니다.

○**주승용 위원** 세종시 주택도 소위 세종시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땅인데 이것도 국토부제2차관 재직 당시에…… 15 대 1이에요, 15 대 1. 15 대 1인데 당첨이 됐어요. 이게 국토부2차관이어서 됐는지, 아니면 정말 운이 좋아서 됐는지…… 또 이게 당첨되자마자 한 7억 이상 시세 차익이 났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요 이것은 본인의 해명과는 달리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투기 의혹이 많다, 그리고 세종시도 내년에 가서 거주를 한다고는 하나 어쨌든 일석이조의 목적을 노리고 한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은 말할 것 없고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여야를 떠나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솔직할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저는 절세가 나빠져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3주택이 나빠서 그런 것보다는 의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는가,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했는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는 정당하게 하고 잘못된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주승용 위원** 문재인 정부가 인사청문회의 5대 원칙을 정해 가지고…… 지금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 하러 이 5대 원칙을 만들어 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7명의 장관후보자가 내정이 됐습니다만 전부 다, 언론 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물론 사람이 털어서 먼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5대 원칙에 다 걸려 있어요, 2개 많게는 3개.

그래서 저는 또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까 미리

예측은 합시다마는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다시 한번 저의 부동산 보유 등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또 위원님 여러분께서 따끔한 질책을 주신 데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이러한 것을 거울삼아서 더욱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정책, 서민 주거복지가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주승용 위원** 제 이후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오히려 더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적인 질문, 시간이 30초뿐이 안 남았기 때문에 간단히 물을게요.

코레일하고 SR하고 통합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주승용 위원** 통합할 겁니까, 통합 안 할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제가 알기로는 통합에 관한 연구용역도 사고 때문에 일시 중단된 것으로……

○**주승용 위원** 사고하고 그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사실은 그렇게 됐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철도 구조개혁 문제, 통합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구조개혁 문제의 제일의 방점은 철도의 안전 또 국민 편익 증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검토해서 그 해결 방안을 만들고 또 각계각층, 국민 여러분 또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그것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주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훈식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만 잠시 안내를 드리면,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KBS, MBC, SBS, 국회방송까지 그리고 연합뉴스TV에서도 생중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위원 충남 아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위원입니다.

먼저 내정 발표 직후에 국토부 노조가 환영 논평도 내고 또 직원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야당의 송석준 위원께서도 과거에 근무했던 인연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칭찬했던 그런 보도도 봤는데요. 또 지난 정부에서 국토부차관까지 오른 분으로 또 지금 장관에 임명되어서 남다른 소회를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단골처럼 반복되는 위장전입, 군복무 문제 또 관료 출신의 경우에는 그렇게 차관으로 임기를 끝내고 나면 전관예우, 로펌에 입사 이런 것들의 글자를 보지 않아서 저는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력을 죽 살펴보니깐 흠수저도 없는 삶을 살아오신 것 같고, 태어난 곳은 전북 익산인데요 경북 구미에 있는 금오공고 나오셨습니다. 간단하게 배경이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때 당시 시대상을 볼 때 모든 분들이 다 그랬습니다만 저 역시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중학교 졸업할 때 금오공고가 생겼고 각 중학교의 성적우수자 한 명씩을 추천해서 그중에 360명을……

○강훈식 위원 그러면 그 뒤로 공고를 졸업하고 군대를 하사관으로 가셨던데 그것도 가정 형편 때문에 군대를 하사관으로 복무하게 되신 것인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금오공고를 숙식부터 공부, 모든 면에서 무료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기술하사관으로 5년 복무했습니다.

○강훈식 위원 그렇게 근무하신 것이고요.

그 뒤로, 어쨌든 오늘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게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소유 또 그 과정과 경위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 문제, 두 가지 본질이라고 봅니다. 투기 의혹이라는 것은 수익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첫 번째 이것이고요. 이런 면에서 보면, 부동산 구입으로 수익을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것은……

○강훈식 위원 가치가 상승된 것은 있지만 본인이 수익을 보시거나 판매하거나 이렇게 해서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게 있는 것인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다주택자로서,

국토부장관후보자로서 좀 부족한 면이, 미흡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강훈식 위원 제가 지적을 이후에 하겠습니까 마는 저는 다주택의 문제보다도 갭 투자나 수익을 내고 팔고 이렇게 해 왔던 거라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요.

그런 반면에 몇 가지만 정리하면 행시를 1984년도에 패스하고 공무원으로서 10년 복무한 1995년에 첫 주택을 마련하신 것이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맞습니다.

○강훈식 위원 재직 10년 이후에 첫 주택을 마련한 거고, 20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이 주택을 최근에 딸에게 증여하신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맞습니다.

○강훈식 위원 증여는 장관이 되실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신 것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늘 고민해 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후보자로서 떳떳하기 위해서……

○강훈식 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평소의 소신대로라면 굳이 이런 논란이 있기 전에 처리를 했거나 아니면 아예 갖고 있다가 자리에서 이후에 처리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딸에게 증여했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는 감정적으로 잘 납득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반성하고 있습니다.

○강훈식 위원 세종시에 분양권이 있는데 2016년 11월입니다, 당시 차관이셨고요. 물론 2014년부터 박근혜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토부차관님으로 너무 정부에 충실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빚내서 집 사신 것 아니에요?

(웃음소리)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후보자님, 저희들이 정말 어렵게 요즘 청년들이 집을 못 사고 있고 어려운 환경에서 돌파하는데 차관님들은 그냥 빚내서 쑥덕쑥덕 집 사고 또 그것이 가치는 오르고 그리고 그게 장관후보자 임명을 앞두고 딸한테 그냥 증여하고 이런 것들이 납득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송구스럽다 하지 마시고 이런 일이 앞으로 국토부 안에 없도록 근본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니다. 아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리하겠습니다.

○**강훈식 위원** 아까 말씀에 SRT와 코레일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말입니다. 안전성과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인 해결 방법 이렇게 마지막에 답변하셨는데요.

철도교통관으로 계실 때, 이명박 정부에서 SRT 할 때 말입니다, 이때 대통령 업무보고를 주무로 담당하셨던 정책관 아니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철도정책관이었습니다.

○**강훈식 위원** 철도정책관이었고 이때 소위 SRT가 만들어진 업무보고를 본인이 작성하신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때 통합 초기에는 제가 그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통합 결정 그 전에 제가 또 다른 보직으로 옮겼고요.

○**강훈식 위원** 일부 보도에는 후보자가 철도 민영화에 반대했다, 그래서 보복성 인사가 있었다 이런 분석 자료가 있는데 이진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인사가 보복성으로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강훈식 위원** 그러면 본인의 소신은 민자화를 찬성했던 것입니까, 반대했던 것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저는 철도 시스템이 과연 어떤 게 철도 안전과 국민 편의에 바람직한 건가를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고민하고 있는 과제이고요.

○**강훈식 위원** 후보자님이 고민하신다고 하기에, 2017년에도 기고문에 보면 ‘민자사업을 철도의 명품 조연으로 만들자’ 이렇게 기고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민영화, 민자사업에 우호적인 입장으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장관후보자로 적합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민자사업은 잘 아시는 대로 재정사업으로 우리의 SOC 확충 수요를 짧은 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다양한 수단의 하나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 정도와 또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통행료의 문제 이런 것들은 재정사업을 하는 것과 차

별이 없도록 잘 관리해 나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훈식 위원** 잘 관리를 하시더라도 기본적인 방향은 중요한 것인데요. 저희가 코레일과 SRT와의 문제에 있어서 방향을 명확하게 하시는 장관이 되셔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전까지는 국토부 공무원의 대표였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처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강훈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강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 경기 하남 이현재 위원입니다.

최 후보자께서는 국토 전문가로서 30년간 이렇게 근무해서 아주 전문가라고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어서 아주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모두발언에서 진솔히 임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인사검증 서류 제출 시기와 관련하여 앞의 위원 질의에 대해서 전후라고 그랬는데 전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인사……

○**이현재 위원**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전으로 이해해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이현재 위원** 그래서 일부에서는 다주택 투기 장관이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이끌 수 있겠느냐 하는 자격에 의문이 된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은 주거 공간입니까, 투기 수단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주거의 공간입니다.

○**이현재 위원** 그렇지요?

주택 실거주 목적으로 보유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2월 18일 이전까지 세 채를 보유하셨어요. 세 채를 실거주 목적으로 보유한 게 정당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결과적으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동영상 좀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 상영)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김현미 현 장관께서 동영상에 나왔듯이 서민들은 평생을 벌어도 집 한 채도 못 산다 이런 거거든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것 때문에 언론에 이렇게 보도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이런 장관후보 없었다.’ ‘국토부장관 처럼 증여하면 될까요?’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현재 위원** 그리고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여기 보면 잠실엘스 아파트가 2003년입니다. 2003년에 배우자 명의로, 그때는 이미 집을 하나 가지신 상태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미국 나가시기 직전이라고 그랬는데 16년간 보유하면서 사시지도 않았어요. 집을 부인 이름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세종의 펜트하우스도 64평형입니다. 차관 시절에 이것을 분양을 받으셨어요. 또 분당 상록 지역은 본인이 96년에, 이때도 이미 주택이 있었습니다. 96년에 구입을 했어요. 이때도 미국 나가기 전이에요.

공통적인 것은 외국 나가기 전에 전부 집을 사셨고 투자인지 투기인지, 본인은 투자라고 하시겠지만 전부 투기지역이에요,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 이것은 주거보다는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아니냐, 아주 절묘한 투자 아니냐? 어떻게 답변 하시겠어요? 간단히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분당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투기과열지구인지는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때 집값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보고요. 제가 10년 만에 공무원 아파트 25평을 처음에 구입해서 갖고 25평은 방이 두 칸이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둘이 있어서……

○**이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주택을 실거주로 가지고 있었는데, 세 채를 실거주로 볼 거냐 하는 것을 장관후보자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어떻게 부동산 정책 주무장관으로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후보자한테 묻는 겁니다. 그리고 투기지역에 또 지금 뜰뜰한 한 채 때문에 집값이 폭등되는데 세 채를 가지고 있어요.

장관후보자 모두발언에서 쪽방이나 고시원, 비닐하우스, 취약계층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취약계층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세 채를 가지고 국토부장관으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자격이 되느냐? 답변해 보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이번 청문 준비 과정에서 또 위원님들의 또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을 받으면서 앞으로 서민 주거복지……

○**이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주택시장 안정에 정말 만전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현재 위원** 그런데 이게 뜰뜰한 세 채인데 지금 구입 시하고 가격을 보면 분당 상록은 1억 5000에 했는데 지금 10억이 되고 잠실엘스는 3억 1000인데 13억이 되고, 10억 재산이 늘고…… 이거는 최근 실거래가, 국토부 사이트의 실거래가로 한 겁니다. 구입 매입가는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고요. 세종 펜트하우스는 6억 8000이었습니다. 후보자가 납부한 거는 4억이라고 재산 자료에는 공개되었습시다마는 여기서도, 이거는 인근 실거래가격이 최근 것이 없어서 17년 5월 가격입니다. 그 기준으로 할 때 5억 차액, 그래서 세 채가 합을 하니까 시세 차익이 23억이다.

앞의 영상에서 보셨듯이 김현미 장관께서는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집 한 채를 갖기가 어렵다’ 그리고 장관후보자께서는 ‘어려운 취약계층, 쪽방, 비닐하우스, 노력하겠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장관께서는 그렇게 주택 정책을 앞으로 잘 펼 수 있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이번 계기로 더 각오를 다지고 서민 주거복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그리고 물론 증여를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부동산학 박사를 받으셨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산업단지 분야로 받았습니다.

○**이현재 위원** 딸과 사위에게 증여하면서 결과적으로 1억을 절세했다. 지금 과세표준이 5억~10억은 30%인데 1억에서…… 시가가 10억 1000만 원이기 때문에 20% 적용을 받는 겁니다. 결국 이게 절세의 수단 아니냐?

또 결국 딸, 사위에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증여도 공제도 받고 또 결과적으로는 1가구 양도세도 절세가 되고 또 매월 딸한테 160만 원씩 내니까 또 이렇게 자녀에 대한 지원도 되고 이게 부자들의 전반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절세 방법 아니냐, 증여 방법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증여세를 절세, 양도세 절세…… 양도세 절세 분야는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이고요. 자녀 소득 분야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한시적으로 거주할 수밖에 없어서 한 것이고요. 또 정확하게 하는 것이……

○**이현재 위원** 그건 아는데요. 그게 딸한테 160만 원 주면서 증여해 놓고 대물림했으니까 이게 부자들의 전통적인 부의 대물림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간단히 답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저건 사례 깊이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이현재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추가질문 매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제가 이 집에 살지 않더라도 또 다른 세입자가 온다면 딸의 입장에서 같은 월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이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 최정호 후보자님, 항공기 사고가 나면 주무장관이 누구입니까? 어떤 장관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정동영 위원** 최정호 후보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이면서 국무위원 후보자입니다. 저는 국민의 대표의 한 사람인 국회의원이고요.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의 최우선 책무는 눈물 흘리는 국민이 있으면 그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동의합니다.

○**정동영 위원**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동영 위원** 32년 전 항공기 사고로 지금 미얀마 앞바다에 115명의 우리 국민이 물속에 잠들어 있어요. 그중에 114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이 114명 중에 20대 청년, 30대 청년이 70%입니다.

헌법 3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범죄행위로 해서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기 화면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배가 뭘 줄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압니다.

○**정동영 위원** 2년 전에 저 대서양에서 침몰한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의 8명의 한국인 선원, 14명의 필리핀 선원, 22명의 목숨이 남대서양에 수장된 것을 건져 달라, 유해를 찾아 달라는 국민 청원이 빗발쳤어요, 2년 전에. 그래서 지난달에 시베드 컨스트럭터호라는 탐사선을 투입해서……

그다음 페이지요.

저기는 원격 조종을 해서 잠수정을 조종해서 블랙박스나 유해를 찾는 장비입니다.

그다음이요.

무인잠수정을 동원해서 드디어 블랙박스를 건졌어요. 저 블랙박스를 찾아낸 지점이 3400m나 되는 심해입니다. 깊은 바다, 3km가 넘는 3400m 심해에서 저 블랙박스를 건져 올렸어요. 저기서 사람 뺏조각을 찾았습니다. 저 작업 하는 데 우리 국가 예산 얼마 쓴 줄 혹시 아십니까, 장관후보자님? 48억의 예산을 집행했어요.

자, 그다음 보십시오.

저게 무슨 장면인지 아세요? 지난 32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한 수색입니다, 저게. 물놀이에요, 수색이에요, 저게?

지금 115명이 물속에 수장되어 있는 그 현장은 육지에서 불과 50km, 인천에서 따지면 연평도 정

도 거리밖에 안 돼요. 수심이 얼마나? 35m예요, 35m. 아까 시베드 컨스트럭터호 투입하면 당장이라도 블랙박스, 유해 건져 낼 수 있습니다. 저 시베드 컨스트럭터호가 작업한 현장은 브라질로부터 2800km 떨어진 남대서양의 한복판이에요. 저기는 미얀마 육지에서 50km밖에 안 떨어졌어요. 수심은 35m밖에 안 돼요. 10년 전에 국정원 과거사조사위원회가 현장의 수색이랍시고 가정한 장면입니다.

다음 페이지.

물놀이입니다, 수색입니까? 저게 대한민국의 한 수색작업의 전부입니다.

그다음이요.

비교해 봅시다. 스텔라데이지호를 찾기 위해서 48억의 예산으로 본격적인 수색을 했더니 3400m 심해에서 블랙박스를 건지는 데 성공했어요. 유해 뺏조각을 건졌어요. 위에, 우리 한국정부가 32년 동안 고작 한 일, 저것입니다.

그다음이요.

저게 뭐냐? KAL 858기와 관련해서 어부들 말하는 잔해를 찾아낸 사람이 없어요. 저것은 1990년 태국 어부들이 찾은, 'Seoul 1988' 선명하잖아요. 858 잔해가 분명해요, 육안으로 봐도. 그런데 저 잔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것은 1990년 노태우 정부 때 수거한 거예요, 태국 어부들이. 이 잔해 폐기해 버렸습니다. 이 잔해 폐기해 버렸어요. 중대한 증거물이 나왔는데 조사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것은 명백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 위반입니다. 국제 범죄행위예요. 이것을 은폐하고 폐기해 버렸어요.

장관후보자님, 앞의 이것 한번 보신 적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봤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게 뭐냐? 그 추락한 비행기의 앞바퀴, 랜딩기어 앞바퀴입니다. 이 앞바퀴 안쪽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GOODRICH'라는 마크가 선명해요. 보잉사에 타이어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굿리치. 일련번호가 적혀 있어요. 이것이 858기의 잔해인지 아닌지는 대한항공 부품정비반에서 보면 금방 압니다, 858기 정비일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작년 11월 29일 30주년을 JTBC가 현장에 가서 취재해서 '스포트라이트'라는 프로그램에 방영하고 국토부에, 대한항공에 요청했는데 거절했어요, 확인 못 해 주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국가의 책무를 망기한 겁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ICAO 규정대로라면 이 같은 중대한 잔해와 증거가 발견될 경우 즉시 재조사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최정호 장관이 되면, 만일 장관이 된다면 후보자가 해야 할 일은 미얀마 정부에 즉각적으로 협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재조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스텔라데이지호의 블랙박스를 찾았던 그 장비를 동원하면 당장 건져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잠들어 있는 115구의 유해 수습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장관의 의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줘야 된다는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 국토교통부 역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정말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수색을 신속하게 하고……

○정동영 위원 이 발표는요 1987년 1월 달 당시 전두환 정권의 안기부가 발표한 것, 그것을 교과서로 떠받들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두환 정권의 조사는 당시 국민을 학살했던 정권이고 대학생들을 고문치사했던 정권이고 조작사건을 일삼았던 정권이 발표한 것을 교과서로 받들고 32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역대 정권은 직무유기로 또 이것이 국회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은 오늘 최초입니다. 국회 역사상 처음이에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만들어지고 나서 장관 중에 교통·항공 전문가가 장관이 되는 건 최정호 장관이 처음입니다. 전문가로서……

이 사건 발생 때 어디에 계셨어요? 직급이 뭐였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80년도면 사무관이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때 공보관실에 근무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 자초지종을 잘 아실 텐데.

어쨌든 명백하게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규

정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사고 조사를 종결해서는 안 된다, 특히 추가 자료가 나오면, 그 원칙에 충실해 주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진실은 끝내 물속에 잠겨 있을 수 없습니다. 시간은 진실의 전령사라고 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이제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정동영 위원** 이제 충분히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최정호 장관께서 의지를 가지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일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예, 아니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위원장 박순자**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최정호 후보자님,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수원 팔달의 김영진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9·13 부동산 대책 후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관한 장관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9·13 대책 이후 집값은 하향세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공시가격, 규제지역 등 일부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급 확대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기조로 규제완화, DTI, 종부세, 주택 공급 확대, 건설업 지원 중심으로 주택 정책이 이루어져 나가면서 확장해 나갔고,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2월에, 마지막에 재건축 사업 추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주택 수를 세 채까지 허용하면서 실제로 다주택 보유를 합법화하고 LTV·DTI 기준을 70%까지 적용하면서 실제로 다주택 보유와 현재 부동산 투기를 만들어 냈던 원인이었고 그 이후 문재인 정부 8·2 종합대책에서 지난 오륙 년 시기에 있었던 부동산 정책을 진정시키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들이 8·2 대책, 9·13 대책으로 나왔다고 봅니다.

후보께서는 지난 정부에서도 관련한 국토부에 계셨고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어 있는데 두 정부 사이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흐름, 평가에 대해

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어느 정부고 주거 안정 또 교통 편의 또 안전 이 모든 국토·교통 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임무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시장 상황 또 여러 가지를 감안한 정책들이 시행이 됐고 시행 과정에서 사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개선할 점이 일부 나온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진 위원** PPT를 잠시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18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를 보시면—한국감정원의 자료입니다—2017년 11월 말 기준을 100으로 났을 때 현재의 가격 동향입니다. 지난 8·2 대책, 9·13 대책으로 집값 상승분이 잡혔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현재도 15~20% 정도의 집값이 형성되어 있고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공시가격을 보시는 것처럼 2018년, 19년에서 보시면 공시가격 대 현 시가를 보면 단독주택은 53%, 공동주택 즉 아파트는 68% 수준에서 현재 유지되고 있고, 이번 공시가격도 그에 따라서 발표되었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공시가격이 현 시가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고 현재 공시가격 수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현실화율이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일부 단독주택이라든가 또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시세반영률이 적정치 못했던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것은 그 일부 조정하고 보완하고 형평성을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진 위원**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수준별 변동률 및 분포 상황 PPT를 띄워 주세요.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주택 소유에서 3억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시지가에 의한 변동률에 있어서도 현재 공시지가의 반영 비율이 3억 미만은 -2%이고 가장 많이 반영됐던 것은 9~12억, 12~15억이 17~18% 정도로 약간 상향된 상황입니다.

즉 전체 국민의 95% 이상은 이번 공시지가 변

동에 의해서 세금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전혀 변동률이 없는 이런 상황인데 후보자는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공시지가를 조정하면서 정부가 제일 염두에 뒀던 게 서민과 일반 국민들에게 큰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세반영률이 굉장히 적었던 고가주택 이런 부분에 좀 높이는 그런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는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진 위원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과 방향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이나 일부 야당에서 여러 가지 공시지가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실제로 전체 국민의 95% 이상은 공시지가 반영에 의해서 전혀 변동이 없고 일부분은 낮아졌던 부분들이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입장에 대해서 분명히 지켜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관련한 PPT 한번 띄워주세요.

연도별로 보면 전체 부동산 거래 대비 전자거래계약에 대한 부분 현황을 보면 정부가 야심차게 진행을 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하고 빅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로 보면 0.8%, 0.5% 수준밖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여러 가지 불편 사항도 있고 또 신고 기간이 좀 장기화되는 면도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통해서 전자계약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반드시 전자거래계약을 확대시키 나가면서 안정 및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김영진 위원 연도별 표준지 소유자 의견 청취 PPT 한번 띄워주세요.

보시다시피 공시지가를 하면서 소유자 의견을 들어 보면 다 높다고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낮춰 달라고 합니다. 이런 국민들의 의견을 잘 보셔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권 위원 대전 중구 출신의 이은권입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중에서 박사 과정의 성적표를 보니까 한 과목을 제외하고는 다 A+데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이은권 위원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출석률을 보니까 2년 동안 230일 중에서 딱 하루 결석하고 다 출석하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토요일에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참석하려고 했습니다.

○이은권 위원 그래서 굉장히 성실했던 분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되는데, 이 자료가 맞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것은 학교의 공식자료입니다.

○이은권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도덕성에 관해서, 논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12년 2월에 ‘기성 노후산업단지 재생기준 선정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어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맞습니다.

○이은권 위원 후보님, 인선에 앞서서 고위공직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제출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제출했습니다.

○이은권 위원 화면을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청와대가 직접 공개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사전 질문서입니다.

다음 장.

저 빨간 박스 안에 보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아마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셨을 겁니다. 예, 아니요 아니면 추가 확인

필요, 어느 곳에 답변을 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아니요’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은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PPT 화면의 후보자의 논문을 직접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화면은 2011년 3월 국토연구 68권에 게재된 논문이고, 오른쪽의 화면은 후보의 박사논문입니다.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맞습니다.

○**이은권 위원** 총 본문 18페이지에 달하는 2011년 국토연구원 연구논문 중에 대략 5페이지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가 우리 후보의 박사논문 1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 29페이지, 33페이지 그리고 48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이런 식으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1장과 2장에 광범위하게 실린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이것도 보시다시피 제목에다가 각주만 하나 덜렁 달아 놓고 3절 전체, 25페이지 중의 24페이지를, 다시 말해서 한 장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베껴 썼습니다. 즉 2011년 국토연구에 게재된 자신의 논문을 2012년에 박사학위 논문에 그대로 베껴 쓰면서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았고 또 별도의 연구업적까지 인정받는 부당한 중복 게재, 자기 표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제가 박사논문을 작성할 당시에는 지도교수와 상의하고 해서 이게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박사학위 논문의 하나의 부분으로 작성해서 국토연구에 게재한 것을 이쪽에 했는데요. 인용 표시를 했습니다만 여러 부분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은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을 보시고, 다음 화면 다시 봅시다.

청와대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2007년 2월에 시행된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입니다. 이 해당 내용에 따르면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기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은 경우 등 부당한 이득을 얻은 행위를 자기 표절로 규정하

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후보자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자기 표절에 해당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후보님, 그래도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은권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3월 21일 날 광운대학교 대학원에 문의한 결과 대학원의 모 부장이 답변한 것과 지금 후보자께서 답변한 것이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답변서를 후보자 지도교수가 작성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선 대학원이 논문 표절을 검증하는 것도, 지도교수가 해당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도 두 가지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교육부 규정에 의해서 명백한 위법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특정 논문의 연구부정행위가 제보된 경우에는 제 16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에 의거해서 대학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2조에는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조사위원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광운대학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지키지 않고 후보자의 논문을 승인해 준 바로 그 지도교수가 직접 표절 검증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지도교수께서 논문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규정에 조금 어긋났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제 논문에 대해서는 저도 열심히 논문을 쓴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이은권 위원** 오후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이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위원** 최정호 후보자님, 일단 축하드리고요.

저는, 4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주년이 됩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새로운 희망의 도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 박순자 위원과 힘을 합해서 최고의 도시 안산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안산 상록울의 김철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논문 표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은권 위원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후보자님께서 너무 수세에, 너무나 방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것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광운대학교 대학원장이 표절 여부에 관한 최종 의견을 3월 18일 날 발표했지요. 다 읽지 않고 몇 가지만 읽었습니다.

‘최정호 후보자 논문의 타 연구와의 차별성과 독자성의 핵심은 수백 부의 설문을 바탕으로 통계 기법에 의한 계량분석 결과로 도시재생 기준과 중요도를 도출하는 것이었으며 달성되었음을 확인한다. 최종적으로 최정호 후보자는 통계 분석을 통해 독자적인 연구결과물을 제시한 박사학위 논문으로 최종 판단되었다’고 이렇게 대학원장께서 크게 직인을 찍어서 발표했는데 이런 것은 읽어 드리고 하세요. 정당한 것에 대해서는 해명의 말씀을 하시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 사실관계는 맞습니다만 인용 관계……

○**김철민 위원** 됐어요, 됐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런 문제를 지적하셔서 그 부분은……

○**김철민 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장관후보자로서 다주택 보유 그리고 증여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계속해서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었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 약간의 흠집은 있다고 저도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 30여 년간 근무하였고 또 근무 내용을 보니까 국토 분야와 교통 분야에서 각 핵심 분야에서 많은 일을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최정호 후보자가 만약에 이번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임명되면 아마 어떠한 장관보다도 조직을 파악하는 데 빨리 파악할 것 같고 또 조직을 장악하는 데 책임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

기 때문에 만약에 임명되신다면 국토교통부를 위해서 잘 이끌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감사합니다.

○**김철민 위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국토교통부에서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했는데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때 상황에 맞게 세제나 금융, 청약규제를 강화해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또 그때 2기 신도시를 통해서 주택공급을 확대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철민 위원** 제가 지금 죽 한번 내용을 읽어봤는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실거래가 제도 등을 도입해서 집값 안정에 필요한 중요한 정책들을 추진했습니다.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맞습니다.

○**김철민 위원** 그 결과 1999년부터 꾸준히 오른 아파트 값은 6년 만에 안정세로 들어섰고 2004년 기준으로 해서 전국 아파트 값은 0.29%, 서울은 0.62%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이렇게 집값 상승률이 수그러들자 당시 야당인 새누리당과 보수언론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고 건설투자가 위축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제위기론을 언급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흔들었습니다. 결국 참여정부는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부동산 정책 방향을 수정하고 건설투자를 늘렸습니다.

그 결과 2005년 초부터 부동산가격은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2월 달 1.05%로 시작해서 5월 달에는 2.20%, 약 두 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일각에서는 부동산 경기침체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 위원** 참여정부 때와 지금이 제가 판단할 때는 매우 유사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 등 과도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결국 경기 전반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

지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주택시장이 안정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주택시장의 안정은 우리 국민경제의 성장에 아주 기본적인 요소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민 위원** 역전세, 요즘 나오는 것이지요, 깡통전세, 부동산 침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는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조장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진짜 목적은 정부 정책을 흔들어서 투기 규제를 푸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지명되시면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보다는 현 정부 정책의 기초를 잘 유지하시는 것이 서민 주거 안정과 여러 정부 정책에도 올바르게 판단하는데 이 점에 대한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주택시장의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그리고 지금 후보자께서, 많은 분들도 말씀해 주시는데, 교통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확실하게 잡고 줄이겠다고 그랬는데, 내용을 보니까 수소버스, 수소전기차 이 정도만 언급했는데 지금 혹시 후보자께서 머릿속에 갖고 있는 큰 테마가 있으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경유차가 지금 움직이는 자동차 중에서는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경유차를 친환경차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별교통 수요를 대용량 대중교통 수요로 전환하는 것 또한 중요하고요. 교통뿐만 아니라 신도시 문제부터 국토 전체의 시스템을 친환경적으로 바꿔 나가는 그런 근본적인 노력도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철민 위원** 오후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안산 출신 김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욱 위원** 인천 연수구를 출신 민경욱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켜보시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최 후보자께서 부정한 방법으로, 투기로 이익을 얻으셨다면 그 행위를 파헤치고 또 단죄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명백한 불법은 아슬아슬하게 비켜 간 탈법과 편법이었다면 그 탁월한 재테크 기법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 수 지도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대한민국 집값을 안정시키고 또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책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택 정책을 관장하는 국토부장관후보자가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자체로 이미 자격 상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가운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것부터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국토부장관후보자로 통보받은 게 언제쯤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것은 하루 전인 3월 7일이었습니다.

○**민경욱 위원** 3월 7일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민경욱 위원** 그러면 증여를 한 건 언제 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증여가……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가 2월 18일입니다.

○**민경욱 위원** 2월 18일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장관으로 되실 걸 알고 세 채보다는 두 채 있는 게 나올 것 같아서 증여를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러니까 제가 후보 중에, 후보였을 그런 당시……

○**민경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후보라고 통보받은 게 언제냐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건 1월 20일 그쯤으로 기억이 납니다.

○**민경욱 위원** 그렇군요, 1월 20일. 1월 20일인데 증여는 2월 18일 날 하셨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지요, 세 채보다는 두 채.

그러면 인사검증 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검증 작업이 있기 전에 파신 겁니까, 후에 파신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결과적으로는……

○민경욱 위원 파는 게 아니고 증여.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지명 통보 전에 된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늘 저한테는 부담으로 되어 왔고……

○민경욱 위원 예, 아까 들었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래서 여러 가지, 잠실도 사실은 작년……

○민경욱 위원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11월에 매각을 위해서 내놓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욱 위원 인사검증 서류를 내셨을 텐데 그 서류에는 집이 몇 채로 되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2주택 1분양권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민경욱 위원 2주택 1분양권이라는 것은 세 채라는 거지요, 우리가 얘기하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렇습니다.

○민경욱 위원 그러면 청와대는 그걸 안 상태로, 알았는데…… 그 이후에는 하나를 증여를 하시게 된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렇습니다.

○민경욱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인사검증 과정에 세 채가 있으니 이게 인사청문회를 할 때도 힘들고 국민들의 정서에도 어려우니 하나를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청와대가 조언을 주신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된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이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올렸습시다마는 저 역시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잠실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제가 매각을 의뢰했고 또 이게 시세가 떨어지면서 금년 2월에 하향해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차체에 정리하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민경욱 위원 그러니까 정리하겠다고 청와대에는 말씀드렸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렇습니다. 제 스스로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민경욱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세 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아는 상태에서 청와대는 후보자로 지명을 했고 이게 인사청문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한 채를 파는 게 좋습시다라고 조언을 했었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임명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고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제가 잠실을 작년 11월에 내놓은 건 확인해 보면 아시겠습니까만, 그래서……

○민경욱 위원 청와대와 상의해서 판 것이라는 것을……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런 것과 그렇게 연관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민경욱 위원 기록을 위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인사검증 서류에는 세 채로 되어 있었고 그것을 알면서도 청와대는 후보자를 장관후보자로 결정했다는 말이 되고, 그 이후에 그게 부담이 될 것 같으니 파는 게 좋겠다,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쪼개기 증여니 이런 부담을 가지면서도 증여를 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 좀 띄워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검증 과정에서 제가 작년 11월에 이미 매각을 의뢰했고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제가 분명하게 표했습니다.

○민경욱 위원 잠깐,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부랴부랴 증여 관련 서류를 작성했다는 것도 저기에 나타나는데, 저기 사인한 게 나오니다. 따님 성함이 아마 최 ‘윤’ 자, ‘미’ 자 같은데 최윤미의 사인을 하라고 그랬더니 ‘윤미’라고 써놨어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최정호’, 밑에 있는 글씨체, 유려한 글씨체도 그렇고 이건 다른 분이…… 제가 볼 때는 최정호 후보자께서 작성해서 사인은 그냥 윤미라고 쓴 것 같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본인과 상의 없이 급하게 결정했다는 것도 되지만 문제는……

지금 이것을 반반씩 나눠 주셨다면서요? 따님과 사위한테 반반씩 나눠 주셨다면서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민경욱 위원 그럼 50 대 50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민경욱 위원 그러면 사위하고도 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 얘기가 됐습니다.

○민경욱 위원 얘기가 어떻게 됐지요? 위임하겠다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딸을, 임대차계약을 맺기로 했어요……

○**민경욱 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부동산 박사이신데 지금 51%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위임을 받을 수 있지만 50%씩 하는데 저거 한 장 가지고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저것은 맞지 않는 계약서지요. 저것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아시면서 저렇게 했다는 건 굉장히 급하게 일을 하시다가 불법, 위법을 저지르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민경욱 위원** 의도는 없었을지라도 대국민 사기가 되는 게 아닙니까? 지금 51%로 해서 위임을 받았다면 몰라도 그것을 잘 아시는 분이 저렇게 했다는 것은…… 저것은 무효라는 것은 지금 생각이 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딸이 전체를 대신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요. 그런 서류상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민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효율적인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주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주질의의 오후 첫 번째 순서는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호 위원** 오류도를 품고 있는 부산 남구울의 국회의원 박재호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로 선정되신 것 우선 축하드립니다.

저는 후보자님이 재산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도 하셨고 또 할 이야기는 많지만 일단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이고 제가 오늘 질의는 항공실장도 하셨고 차관을 하실 때, 항공 전문가니까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은 역대 대통령들이 그때 당시에 다 공약을 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박재호 위원** 김해신공항이 건설이 되면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또 인천공항 재난 발생 시에도 대체 가능한 관문공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현재까지……

○**박재호 위원** 후보자님, 왜 부산·울산·경남이 김해신공항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호 위원** 맞지요?

후보자님, 우리나라의 공항 중에서 작년에 여객이 1000만 넘는 공항이 네 군데가 있었습니다. 다 흑자지요, 그렇지요? 그중에서 군사공항이 하나 있지요? 그게 어디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김해공항입니다.

○**박재호 위원** 김해공항이지요?

국토부에서 주장하는 김해신공항, 사실상 김해공항을 확장해도 김해신공항은 민·군 겸용이고 또 군사공항으로 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지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민과 군이 함께 쓰게 되는,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박재호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후보자님, 화면을 잠시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께서 2016년 6월에 모 방송 출연해서 김해신공항 건설을 홍보하는 장면입니다. 기억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기억납니다.

○**박재호 위원** 이 방송에 나가서 V자 활주로 1개가 더 늘어나면 29만 9000회 운항이 가능하다고 한 얘기, 지금 생각에는 바뀐 것 없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박재호 위원** 활주로 1개 더 지으면 처리 용량이 2배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후보자님?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후보자.

화면 하나 띄워 주시지요.

국제적으로 공항 분야에서 통용되고 있고 국토부도 적용한 미연방항공청 기준을 보면 독립활주로 1개가 처리할 수 있는 시간당 용량이 50회로 되어 있습니다. 1개 더 늘려서 V자로 한다 해도 용량이 10회 증가되는 60회, 증가율이 20%에 불과하다고 이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미연방항공청에서요.

V자 활주로 여기 딱 나와 있지요? 표시가 여기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해공항 활주로가 2개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박재호 위원 김해공항은 시간당 지금 26회에 불과합니다. 김해공항 2개의 용량이 미연방항공청의 1개 활주로 기준의 절반밖에 활용하지 못하는데 이유가 뭔지 압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군공항과 같이 활주로를……

○박재호 위원 군공항도 있지만 북측에 돛대산이라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역풍이 불 때는 함부로 그리로 못 가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 하나.

두 번째, 커few 타임(curfew time)이 있어서 지금은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못 뜨지요, 가라앉지도 못하고.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박재호 위원 또 군공항으로서 보수적인 관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말은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맞습니다.

○박재호 위원 부·울·경 검증단 예측대로 최대 한 후하게 줘도 V자 활주로의 용량은 시간당 47회, 연간 2900만으로 보고 있는데요. 국토부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시간당 60회에 연간 3800만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왔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V자 활주로의 용량을 봤을 때 효율이 20%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후보자, 김해신공항 V자 활주로를 건설하면 지금 김해공항의 한계인 산악 장애물, 커few 타임, 군공항을 해결할 방법은 있습니까? 그것도 없지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지요?

그런데 국토부는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국토부가 V자 활주로 모델로 자주 언급하고 있는—세계에서 딱 하나뿐입니다—터키의 아타튀르크라는 공항 사진입니다. 그 사진을 보면……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좀 크게 보이는데 일단 이걸 많은 용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 군공항도 아니고 또 공항 주변에 이렇게 거주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음 대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24시간을 뜨고 앉고 해도 주민들이 말을 못 해요. 우리도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국토부는 이런 이야기를 비교를 합니다. 이걸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부·울·경 시민들은 김해신공항이 경제성, 안전성, 확장성, 24시간 운영, 소음 피해, 환경 피해 등 여섯 가지 큰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김해신공항이 100% 정치적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었고요, 그때 당시에. 그 당시에 어떤 결정을 해도 차기 공천 때문에 대통령 눈치를 봤던 5개 시도 단체장 또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토부는 자신들이 결정한 것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합니다. 결정해 놓고요. 4대강 사업뿐만 아니고 앞으로 닥칠 분양 전환 10년 임대주택 큰 문제가 코앞에 닥쳤는데도 ‘우리는 할 것 다 했다, 모르겠다’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또다시 김해신공항도 7조 정도의 돈이 들어갔을 때 이걸 세금 낭비고 앞으로 미래도 없어요. 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하는데 장관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지역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부·울·경의 검증 결과가 곧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검증 결과가 저희한테 제시가 되면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 출신 홍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홍철호 위원** 후보자님, 오전 질의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일 장관이 되시고 난 다음에 국토부 정책에 따르지 않는 공직자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하거든요. 후보자 스스로 그런 경험 있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국토부……

○**홍철호 위원** 있으시지요? 국토부장관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 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홍철호 위원** 기억을, 그러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겠습니까……

○**홍철호 위원** 한번 볼까요?

투기과열지구인 상태에 있는 송파구 잠실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지도 않고 투자해서 지금 하여튼 10억 정도 시세 차익 남기셨다고 그래요, 팔면. 그런데 이 투기과열지역은 누가 지정하는 거냐 하면 국토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해요. 그런데 조합원입주권을 매입한 때가 2003년 1월이고요. 여기서 국토부장관이 과열지구 지정을 그 전해 9월 달에 해요, 4개월 전에.

그래서 본인이 그 당시에 직책이 뭐였냐 하면 장관비서실장이었거든요. 그러면 장관은 여기서 투기과열지구로 묶어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데 비서실장은 대놓고 하지 말라는 걸 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철호 위원** 그렇지요? 그 사실관계는 맞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홍철호 위원** 그러니까 송구스러운 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 당시에 제가 집을 구입한 것은 그때 기준에……

○**홍철호 위원** 아무튼 시간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 말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실거주를 목적으로 해서 조건에 다 맞았습니다. 위배한 것은 없었습니다.

○**홍철호 위원** 그 답변 많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장관이 정책을 만들어서 이 정책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 가고자 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비서가 대놓고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요, 그 아파트를 왜 샀냐고 아까 물어보니까 ‘중학생 자녀 통학에 이용하려고 매입했다’ 이러셨어요. 그런데 바로 한 달 후에 말이지요 공교롭게도 아이들, 두 자녀 다 데리고 해외에 나가세요, 해외근무하러.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것은 그런데……

○**홍철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귀국을 다시 하게 되면’을 상정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홍철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야 자녀들 교육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려 그랬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말이지요 아파트도 시세 차익이 났고 아이들도 엄청난 특혜가 생겨 버려요, 이걸로 인해서. 갔다 와 가지고 정원 외 특례 입학으로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아들딸이 다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저런 신의 선택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자꾸 의문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이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당 아파트 또 한번 볼까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위원님, 저……

○**홍철호 위원** 잠깐만요. 제가 나중에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세 가지가 있어서.

분당 아파트가 또 이렇게 돼요. 이것을 갖다가 양도를 하면 되는데 이것을 증여를 해요. 저도 이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세금 차액이 많이 나는데, 우리나라는 절세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걸 굳이 양도세를 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신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파트를, 상식적으로 보면 10억 정도가 되는데 이거 하나 주는 것도 모자라서 말이지요 이것을 아이들에게 팔았으면 거기서 다시 사글세 사는 것을 이해하겠는데 증여해 주고 어떻게 부모자식 간에 다시 이걸 사글세를 사냐 이런 얘기에요, 월 임대료를 160만 원씩 내면서. 이걸 또 국민감정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160만 원이고 하니, 국토부에서 볼 때는 한 17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160만 원으로 해야 연간 종합과세 표준에서 미달돼요, 1920만 원이 되어 가지고. 2000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과세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또 이것도 별로 그렇게 흔쾌하지 않다……

세 번째 말이지요, 2차관 임기 말에 세종시에 공급하는 고급 아파트를 공무원 특별 분양을 받았어요. 이걸 다 인정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때로부터 육칠 개월뿐이 임기가 안 남으신 분이 그러면 장관 되실 거라고 그때 생각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서울에도 집이 있고 분당에도 집이 있는데 세종시에 집을 하나 더 마련을 하려 그래요? 그러면 차관보다 더 높은 직책은 장관뿐이 없는데 그때 이미 ‘아, 나는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봐야 돼요.

누구나 이걸 분양받고 싶어서 다 대기하고 있었으니까…… 그걸 차관님이 직접 분양 신청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결과를 놓고 보니까 7억 정도 프리미엄이 생겼어요. 어떻게 손대는 것마다 다 이렇게 엄청난 이익이 나는 투자를 하셨느냐……

제가 마지막 한번 여쭙볼게요.

‘족집게 투자’라는 말 많이 들어 보셨지요?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일류꾼들이 하는 걸 갖다가 족집게 투자했다 그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다 합쳐서 이익을 계산해 보니까, 미실현 이익이기는 하지만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가지고 하니까 23억 정도 이익이 나오.

그러면 투자의 귀재라고 해야 되는데……

투기는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시니까 투자라고 할게요.

그러면 투자의 귀재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기분 좋으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저는 실거주하기 위해서 샀던 거고요……

○**홍철호 위원** 제가 질문 시간이……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이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단기간 내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홍철호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 할게요.

만약에 말이지요 지금 나온 걸 가지고 청문 채택 불발되면, 통과하지 못하면 이것 청와대에 부

담드리는 것 아니에요? 아까 알고도 임명했다 그런데 그러면 자진사퇴 의사 있으십니까, 만약에 채택 안 되면?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스스로 제가 맨 처음에 2주택이 될 2008년 시점에 분당 아파트를 그때 분명히 정리하려고 했었습니다. 1가구 2주택자가 부담도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리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때 정리를 못 한 건 정말 제 실수로 실패고 또 국민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정리해 가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오래 전부터 정리할 생각이었고 부담이었고 그래서 잠실 집도 오래 전에, 작년엔 벌써 내놔고 해서 제 스스로 이번에 다 정리를 한 것입니다. 어차피 제가 세종에 가게 되면 다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런 면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홍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후보자님, 서울 중랑구의 박홍근 위원입니다.

아마 인사권자께서 장관후보자로 지명을 한 것은 아무래도 집권 중반기에 행정을 정말 실적 있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정통한 사람이 필요하겠다고 하는 판단이 배어 있을 겁니다.

그동안 국토부에서 잔뼈가 굵어 왔어요. 그래서 국토 분야나 교통 분야나 두루 경험을 하셨고 특히 마지막 부분에는 국토 분야를 책임지다 나오셨는데 아마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 다 공감할 겁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전문성이나 행정적으로 검증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만 아쉬운 게 다주택 보유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선 제가 청와대가 지난번 발표했던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다시 좀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사실 최 후보자께서는 이 기준에 지금은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인도 아마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일곱 가지와 관련하여 저도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오늘 거론되

는 여러 가지 의혹이나 도의적 문제가 해당되는지 저촉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마는 이 기준에 배치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선 확인을 했고 물론 위법적인 사실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장관으로서의 여러 가지 도의성에 대해서는 따갑게 질책이 있는 것입니다. 국민적인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건 본인 또한 이미 사과를 한 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아까 앞선 질의에서 올해 장관 내정 사실을 통보받고 나서 분당 아파트를 증여한 것 아니냐 이런 질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1월부터 잠실 아파트는 팔려고 내놨다는 것 아니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리고 나서, 보통은 인사검증이 본인에게 장관후보자로 여러 명이 검증이 들어갈 텐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라고 먼저 확인을 하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리고 나서 여러 명을 검증하는 과정 속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1월 20일경에 검증에 들어간다, 동의하냐 이렇게 아마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후보자는 2월 18일 날 딸한테 양도를 한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박홍근 위원** 그렇지요? 증여를 한 거지요.

그래서 본인이 그때 증여 방식을 택한 것은 검증 들어가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그 전부터 팔려고 했으나 안 팔린 집이었기 때문에 우선은 매도 가능성은 그 사이에는 쉽지 않다고 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증여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통상적으로 검증 단계에서는 후보자한테 당신이 내정됐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보통은 하루 이틀 전에 장관으로 내정됐다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후보자 단

계였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최종적으로는 그런 청와대가 얘기하는 후보자 인사 최종적인 검증 기준에서는, 청와대에서 내정됐다고 얘기할 때는 그 문제가 정리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 기사를 저도 꼭 봤더니 당시에 대부분의 언론들이 3월 초까지만 해도 3배수로 계속 거론을 하다가 최 후보자가 유력하다고 하는 것이 3월 23일 전후로 나오더라고요.

후보자는 언제 최종적으로 내정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 하루 전에 받았습시다. 3월 7일 날 받았습시다.

○**박홍근 위원** 3월 7일 날 받은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검증 과정 속에서 그런 오해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여를, 그러니까 잠실 집이 안 팔리니까 증여를 결정해서 부담을 덜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오래 전부터 생각해 왔던 거고 제 스스로 제 판단하에 정리를 한 것입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청와대로부터 장관 내정 사실을 통보받고 분당 아파트를 증여했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과도한 공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맞습니다.

○**박홍근 위원**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이다 보니 제가 좀 여쭙볼 텐데 2014년 12월 박근혜정부 때 부동산 3법 통과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때 국토부의 기획조정실장을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 저는 지난해 우리 국민들에게 걱정을 너무 심대하게 끼쳤던 부동산 폭등, 집값 폭등의 문제가……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광의통화라 그러지요, M2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2014년부터 지금까지 아주 빠르게 늘어나서 현재 2700조가 넘습시다.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한 부담들이 여전히 화약고처럼 남아 있는데 결국 당시 2014년도 12월에 통과됐던 부동산 3법, 이게 결국은 여러 가지로 부동산의 급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장관후보자로서 당시 박근혜정부 때 이 부동산 3법 통과가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지금 위원님 지적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지금도 부동산시장이 안정세가 확고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유동자금 M2가 2700조에 이르고 있어서 이걸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 다시 부동산시장의 안정세가 흔들릴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홍근 위원** 그래서 박근혜정부 당시 기초실장으로서 이런 정책을 같이 좀 살펴봤을 텐데 그런 과정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고하게 국민들한테 그런 의지를 표명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부동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런 관리 과정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너무나 많이 풀려 버린 이 유동자금을 어떻게 국가가 잘 관리할 거냐가 핵심일 겁니다. 즉 투자처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 거냐가 중요한데 저는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국무회의나 대통령을 뵙고 이 유동자금을 부동산 직접투자보다는 산업이나 금융자본에 투자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는 방법을 장관께서 강력히 제안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관련해서 구상이 있으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필요한 대책을 적극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후보자님, 평소에 존경하던 분인데 이렇게 또 장관후보자로 이 자리에서 만난 것을 정말 반갑게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감사합니다.

○**송석준 위원** 어린 시절 어려운 시절 보내셨지요? 학창시절 어려운 시절 보내시고 특히 세종청사 1세대로서 저랑 같이 임대주택의 결방살이 룬

메이트 생활도 같이 하셨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누구보다도 서민적이고 서민생활에 익숙하시고 서민적인 모습으로 존경받던 분이데 제가 이번에 청문회를 하면서 주택 보유현황을 보고 좀 놀랐어요. 본인은 어떻게 자연스러우셨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래 전부터 정리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송석준 위원** 주택을 분당, 잠실, 세종에 세 채를 아직 다 완성형으로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동시에 이렇게, 남들이 보면 정말 놀라운 부동산 투자 능력을 보여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분당 집을 제일 먼저 구입하셨지요, 2016년에?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런데 그것을 최근에 증여를 하셨어요. 그런데 꼼수 증여다 이런 의혹들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본인은 아마 안 그러셨을지 모르겠지만 외형상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약 9억여 원의 차액이 생긴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잠실 주택은 거주하지 않으시면서 아직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형적인, 지난 9·13 대책에서 국토부장관이 타깃으로 삼았던 전형적인 투기 행태, 깡 투자의 일환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저는 깡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송석준 위원** 일단 전세 끼고 갖고 계신 것 아닌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송석준 위원** 전세금이 얼마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전세금이 시세에 따라서 한 7억 정도 됩니다.

○**송석준 위원** 그 7억 끼고 일단은 갖고 계시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사실은 그게 분당 집을 팔고 이사 가려다가 그때 상황상 처분을 못 하는 바람에……

○**송석준 위원** 못 했다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전세를 주게 됐

고 전세금이 오르면서 또 그게 생활비 일부로 쓰이고……

○**송석준 위원** 그렇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래서 이게 상황이 많이 고착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석준 위원** 제가 시간이 저기하니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 때보다 지금 시세 차익이 현재 기준으로 하면 한 14억 정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일단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고요.

그리고 세종시에, 아직 분양권 형태이지만 이것도 정무직을 하시면서 이제 곧 아마 은퇴하실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 일종의 특혜 분양을 받은 것 아니냐, 일반 서민들은 받기 어려운 것을 특혜성의 이런 것으로 받았다, 그래서 그것도 당초 분양받은 것에 비해서 시세로 말하면 약 7억여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합쳐 보니까 무려 26억의 시세 차익이 갖고 계시던 주택을 통해서 나타난 것같이 보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들이 과장된 측면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모습을 보고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화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해가 가지시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송석준 위원** 이 정부 들어서 지난번 9·13 대책에서 바로 국민들에 위화감을 주는 이런 투기적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 해서 대책을 만들었어요.

자, 그 9·13 대책, 아까 다른 분 질문에 보시면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잘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송석준 위원**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9·13 대책이 그런 부동산시장, 이런 투기적 행태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적절하게 선별적으로 가야지요. 잘못된 투기 행태에 대해서 핀셋식으로 가서 처방을 하고 일반적인, 정상적인 토지 또는 주택 보유·거래조차도 얹어매는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부동

산시장의 왜곡과 혼란을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한 대책은 적극적으로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석준 위원** 이게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앞으로 장관님이 되신다면 우리가 두 가지 목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 정책은 서민들을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의 확보 그리고 일반 또 정상적인 주택, 질 좋은 주택을 갖고자 하는 분들에게 대해서는 정상적인 주택 생산 또 거래, 거주가능하도록 해 줄 책임이 있지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가 주택이 거래되고 그런 주택이 건설되면 마치 투기꾼들의, 이상한 집단들의 이상한 행동으로 보면 안 되지요.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측면은 지극히 자유시장, 경제민주주의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우리가 활성화를 해야지요. 그렇지만 서민들, 무주택 서민들에 부족한 것은 채워야지요. 바로 주택 정책의 이런 왜곡된 정책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대책이 너무 강해서 우리 경제가…… 지금 공실률 말이지요, 부동산시장이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특히 상가 중대형 시장을 중심으로 이 정부 들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지금 소득주도성장이다 해 가지고 갑자기 임금을 올리고 또 근로시간 단축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경제가 완전히 파탄이 나요. 그게 결국은 있는 자보다는 없는 자들에게 민생 파탄으로 이어 집니다.

지금 뒷골목에 가 보면 한 집 건너 아니면 줄줄이 다 매물로 내놔요. 그것도 안 나가요. 이분들이 다 빚더미에 올라가게 생긴 거예요. 그동안 벌여 놓은 것 다 까먹고 어쩔 수 없이 주변에서 빌려서 근근이 버티는 업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그러합니다.

어제 청와대 경제수석이 무슨 경제…… 기자간담회 한다면서 대한민국 재정·금융·외환, 거시경제 펀더멘털 건설하다고 그랬어요. 그건 겉모습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분들이 곧 금융 부실화로 이어질 겁니다.

지금 또 도처에 우리가 과잉 포퓰리즘 복지정책 벌여 놓은 게, 벌써 지난해만 해도 국민연금 5조 9000억 까먹었잖아요. 문재인 케어 이런 것 때문에 또 건강보험 재정도 급속히 악화되고 있

습니다. 이번에 포항 지진도 재정으로 또 어찌면 보상을 해 줘야 될 상황이 생깁니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도처에 어려워지는데 이 정부 들어서는 인위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괴물정책을 쓰면서 민생을 파탄내고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님?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위원님께서 경제 전반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이런 좋은 질문해 주신 것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 국토부가 갖고 있는 통계는 중대형 공실 상가는 수년간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하는 하여튼 국토·교통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편안하게 하는데 목표도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에도 저희의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송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수 위원** 후보자님, 오전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후보로 통보를 받고 통보할 때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사실을 알고 지명을 했다. 그리고 지명하는 쪽에서 다주택을 일단 빠른 시일 내에 증여든 매각이든 처분하는 게 좋겠다라는 권고가 있었고 그 권고에 따라서 증여를 했다는 취지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질의에 분명히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 분명히 좀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자발적으로 하신 것인지 권고에 따라서 하신 것인지 분명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것은 사실과 다른 말씀이고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오래 전부터 다주택자로서 부담을 느껴왔고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1월에도 이미 내렸고 오래 전부터 그래서 제 스스로 제 판단하에 그런 평소의 생각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서형수 위원** 조금 전의 박재호 위원 질의 연결해서 김해신공항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아침 자 조간신문 1면 기사에 이런 광고가 나왔습니다. ‘김해신공항은 잘못된 정치적 결정입니다. 국민은 안전한 공항을 원합니다.’ 이런 광고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 자 광고인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러면 이것에 동의를 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

○**서형수 위원** 그걸 떠나서 김해신공항 결정하실 때 후보자가 맡고 있던 직책하고 그때 역할이 될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때 제가 차관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개 지자체장의 합의에 따라서 외국 전문기관에 맡겼고 저는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서형수 위원** 그리고 이번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 이런 내용을 보내셨습니다. ‘부·울·경 검증 결과가 나오면 검증 결과에 대해 지역과 적극 소통하면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총리실 검증 절차가 시작될 경우 최대한 협조하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입장 그대로이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만약에 총리실에서 검증 과정에서 이것이 어떤 부당한 결정이다라고 하면……

일단 지금 현재 총리의 권한을 보면, 헌법 제 86조제2항이나 정부조직법 제18조제2항에 보면 일단 각 부처의 결정 자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검증 절차 과정에서 국무총리가 중지하거나 취소할 경우에 이것은 수용해야 되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것은 그렇게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서형수 위원** 아니, 지금 현재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답변서를 보내신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정부조직법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그건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부터 후보자님께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하셨는데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9일 서울 중심지인 종로 국일고시원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거기에서 7명이 사망하

고 11명이 부상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알고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창 의 도면을 보니까 아예 창이 없는 가운데에 있는 먹방이 있고 가운데 창이 있는 게 있는데 이 중에서 사망자나 부상자는 거의 대부분 창문이 없는 이런 먹방에 계신 분들이 주로 사망하셨거나 부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에 대한 월 임대료가 창이 있는데 조그마한 데는 한 32만 원, 창이 없는 데는 한 25만 원 해서 한 6~7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 차이 때문에 정말 취약계층 안에서도 또 서로 입장 차이 때문에 이런 게 난 데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모두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쪽방이나 고시원 또 비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이 합해서 80만 되고 또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게 한 114만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빨리 따뜻하게 품어 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장관으로 된다면 이 부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이분들이 정말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중고령자들이고요. 물론 다 노동에 종사하지만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문제는 이런 사고가 나고 4개월 남짓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3월 22일 부산일보 기사에 보면 그 전날 3월 20일 하루 동안에 부산에서, 고시텔에서 방화 사건이 있었고요. 또 여관에서 실화사건이 있었습니다. 전혀 여기에 대한 방비를 갖추기 전에 새로운 위험이 현재 발생한다는 사실이고요.

다행히 서울시에서 지난 3월 18일 날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여기에는 전체 실면적을 넓히고 반드시 창문을 의무 설치하고 스프링클러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는 이렇게 발 빠르게 가는데 국토부에 확인을 해 보니까 국토부 입장은 다중주택시설 건축기준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혀 지금 손을 대지 않고 앞으로 좀 검토해 가겠다 이런 아주 미온적인 태도입니다.

최근에 현재 보면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작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주거실태를 조사해 간 조사위원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보고서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도 쪽방과 고시원같이 비좁고 생활환경이 열악한 비주택 주거자에 대한 보호를 강조했고 부적합하고 안전시설이 취약한 주거지를 시급히 해결하라는 이런 요구 사항도 있었습니다.

이런 현재 상황을 보면 우리 국토부가 주거 취약계층이나 주택 이외의 거처에 대해서 조금 미온적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따가 다시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위원님 지적 말씀 제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보고관의 권고안이 설사 없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정책 역량을 쏟아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역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서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 후보자님, 오래간만에 보는 국토부장관후보자에 공무원 출신이 지금 후보 지명을 받았습시다.

축하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감사합니다.

○**송언석 위원** 장관이 되실 것을 차관 시절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아닙니다. 저는 항상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임무에 충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송언석 위원** 충실히 해 온 것은 그동안의 과정에서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지금 여러 위원들이 제기하는 의혹을 보면 이번에 장관후보자로 지명되기 전까지는, 차관 시절까지는 장관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시고 지내 오신 것 같습니다. 공직을 수행하면서 주변관리를 누구보다도 철저히 해야 되고 특히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다른 부처의 공무원보다도 훨씬 더 도덕심이 더 많이 요구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여 있어요.

집이 지금 분양권 하나를 포함해 가지고 세 채가 된다고 하고 시세 차익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장관후보자가 장관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공직을 수행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부동산 보유와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사려 깊지 못하고 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 앞서 질의·답변 과정에 분당에 있는 집을 2008년 이후에도 매각하려고 노력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2008년 당시에 저희가 2주택 상태가 되기 전에 매각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송언석 위원** 1999년도에 분당 집을 샀어요.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맞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리고 잠실 재건축 아파트는 2003년 2월 달에 매입을 해서 2009년 2월 달에, 이게 잠실엘스 아파트 이렇게 됐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맞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2주택이 되기 전이라는 것은 2003년부터 지금 2주택인 것 같은데 왜 2008년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때는 일시적으로 제가 공무원 아파트 25평을 받아서 애들이 커서 국민주택 규모로 지금 살고 있는 그쪽으로 이사를 갔고요. 그 당시에 잠실을 살 때에는 1주택 상태였습니다.

○**송언석 위원** 아니, 분당 아파트를 99년도에 매입을 했고 잠실 재건축 아파트를 2003년에 매입을 했는데 2008년도에 2주택 되기 전이라고 지금 표현하신 것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송언석 위원** 어떻게, 집을 두 채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아니, 그러니까 1주택, 분당의 상록마을,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 하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잠실을 산 거지요.

○**송언석 위원** 2003년도에?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렇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러니까 집이 두 채잖아요. 두 채인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게 이제 살,

그런데 이게……

○**송언석 위원** 잠깐만요.

장관님, 지금 핵심은 이겁니다. 장관님이 일단 사과와 표현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지금 말씀이 왔다 갔다 하세요. 지금 집이 두 채라고, 분명히 두 채를 사 있는데 그것을 2주택이 되기 전에 매각 노력을 했다고 표현을 하셨고 조금 전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는 보면 3월 7일 날 장관후보자 지명을 받았다고 했는데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2월 18일 날 증여계약서를 작성했고 앞서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는 1월 20일경에 장관후보자 지명을 통보받았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아닙니다. 지명을 통보받았다고는 말씀을, 하루 전이라고 말씀을……

○**송언석 위원** 속기록을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지명을……

그러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송언석 위원** 장관님, 제가 질문할게요. 질문하고 난 뒤에 답변하세요.

1월 20일경에 장관후보자로 지명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때가 아마 단독 후보가 아니라 3인 후보든지 아마 복수 후보였을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2월 18일 날 증여계약서를 작성했다, 여기까지는 팩트로 맞아요. 그리고 난 뒤에 3월 7일이라는 날짜는 단수 후보 지명을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 자체가 벌써 일단 유력한 복수 후보자에 지명이 되고 난 이후에 집을, 이게 복수의 또 다 주택자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증여하든지 해서 해소해야 되겠다, 해소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까지도 사과와 표현과 함께 이미 후보자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장관후보자로써 사과도 하고 그간의 과정을 해명도 하고 다 좋은데, 솔직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는데 벌써 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말씀이 자꾸 왔다 갔다 하세요. 야당 위원이 질의했을 때 답변하는 내용과 여당 위원이 질의했을 때의 답변 내용이 자꾸 왔다 갔다 한단 말이지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렇지 않습니다.

○**송언석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화면 조금 보고 난 뒤에 말씀드릴게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제가 왔었다 한 것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다시……

○**송언석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2003년도에 최정호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트리플 크라운(triple crow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본인은 남들이, 정말 국토부 거의 모든 직원들이 가고 싶어 하는 주미대사관 파견이 2003년에 결정됩니다. 그 바탕에서 오늘날 장관 후보자까지 왔어요. 거기에 2003년 2월 보시면 조금 전에 논의가 됐던 잠실 아파트를 2억 5000에 구매를 해서 2009년에 재건축했는데 현재 가격이 15억 상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녀 두 사람이, 장녀와 장남 모두가 미국에서 3년 과정을 마치고 소위 재외국민 특례입학으로 유명한 연세대·고려대, SKY 대학에 입학했어요.

이 자체만 보더라도 2003년도에 최정호 후보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트리플 크라운의 해라고 볼 수 있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이분이 정말 공직을 열심히 수행하신 분인가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열심히 하신 분인가 또는 자녀들이나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공직을 덤으로 수행하신 건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지요.

다음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때 잠실에 2009년도에……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것은 제가 설명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사실과 다릅니다.

○**송언석 위원** 기다려 보세요.

2009년도 특례입학에 보면 고교 과정 1년을 포함해서 3년을 해외에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고교 과정은 한국의 학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후보자는 귀국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06년도 4월 달에 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고교 과정 1년을 다 채울 수가 있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저는 4월에 귀국을 했고요. 아이들은 그보다 한두 달 뒤에 마

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송언석 위원** 이것은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송언석 위원님 추가질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아직 충분히 못 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위원장 박순자** 답변하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특별전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도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고등학교 1년 과정을 포함해서 2년 또는 3년간 근무한 경우에 귀국하게 되면 국내에서 계속 공부한 학생들과의 학력 차이 때문에 정원 외에 별도로 그런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전형을 통해서 대학입학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었고요. 그런 제도 때문에 그렇게 간 겁니다.

그리고 딸은 고등학교를 다 마쳤고요. 아들은 거기에서 고등학교 1년 과정을 마쳐서 다 조건은 맞는 상태에서 별도의 특혜라든가 이런 것 없이 정상적으로 들어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후보자께서는 송언석 위원님 추가질의 시에 충분한 답변을 더 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 전북 남원·임실·순창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국토부장관으로 지명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난번 개각 명단에 보니까 경북 금오공고를 졸업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래서 경북으로 분류가 됐던 것 같은데, 고향이 어디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제 고향은 전북 익산입니다.

○이용호 위원 그렇지요?

현 정부가 고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을 분류한 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저는 고교로 분류한 것은 몰랐습니다.

○이용호 위원 저는 후보자께서 전북 출신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당당하게 발표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 이력을 죽 살펴보니 정말 열심히 살아온 분이네 이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거기에 나름대로 전문성도 있고 또 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부동산 문제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재테크도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잘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부동산 불패 신화, 특히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한 이것과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요. 아침에도 여러 차례 사과나 국민들에게 인정을 하셨습니까만 앞으로 부동산 불패 신화가 계속되리라고 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게 되어서도 안 되고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용호 위원 오늘 25일인데 무슨 날인지 아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

○이용호 위원 오늘 최정호 후보자께서 월세 내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따님에게 증여한 아파트 월세를 내는 날인데 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것은 제가 혹시 못 낼까 봐 자동이체를 해 놓았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증여 문제에 관해서 ‘급하게 다주택자를 면해 보자, 그래서 증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급하게 면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이용호 위원 그 답변을 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평소의 생각을……

○이용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사실은 증여계약서 시점은 2월 18일입니다마는 준비도 있었고 그래서……

○이용호 위원 오전에도 여러 차례 이런 답변

하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이용호 위원 아니, 저는 뭐 그렇게 최 후보자의 도덕성을 지적하기보다는 충분히 이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아침에 ‘급하게 다주택자를 면해 보자, 이래서 증여했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뭐……

○이용호 위원 한번 얘기한 것에 대해서 소신 있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저는 오히려 검증 과정에서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듯이 꼼수 증여를 한 것이 당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 청문회 과정에서 처분하겠다 혹은 증여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검증 과정에서 이렇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 지적을 오히려 받는 거예요. 저는 후보자의 청문회 태도를 보면서 후안무치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좀 당당하지 못하다 그런 느낌은 좀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습니다.

잠실하고 분당의 두 아파트를 갖고 있었는데 왜 분당 아파트를 증여했습니까, 잠실 아파트를 증여할 수도 있는 건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것은 잠실도 작년엔 매물로 내놓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상 분당을 먼저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용호 위원 가격이 좀 싸서 그렇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용호 위원 그것도 절세 문제와 관련된 것 같아서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잠실은 이미 매물로 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매물로 내놓은 것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분당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리고 세종시 특별분양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차관으로 계셨고 한 1년 정도 근무를 하실 때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세종시에 특별분양을 공무원들한테 해 주는 이유는 앞으로 업무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주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분양을 하는 것인데 적어도 장관이나 차관, 정무직들이 이것을 분양을 받는다, 이것은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지적하실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호 위원** 규정상에도 임기제공무원, 계약직종사자 이런 분들이 입주일 이전에 계약기간 만료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적어도 특혜분양이다 이렇게 국민들은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적어도 정무직들은 분양권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적어도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시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좀 안정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9·13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요. 이제 하향 안정세인데 아직 확고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호 위원** 그러면 무주택자가 집을 지금 사야 됩니까? 시기적으로 어떻습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시장 상황에 따라서 무주택자들이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무주택자도 여건이 되고 능력이 되는 무주택자라면 주택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장소에……

○**이용호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지금이 그런 시기냐 그런 뜻이에요. 앞으로 더 떨어져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지금 조정 과정이 계속되고 있고 관망세를 보이고 있고 또 급매물 이런 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마다 좀 상황은 다릅니다만 시장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용호 위원**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를 지내셨으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들어 보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들어 봤습니다.

○**이용호 위원**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이용호 위원** 공약사항은 지켜져야 되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가급적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호 위원** 앞으로 장관 되시면 이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지금 용역 중에 있고 남원시도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장관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으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남원시의 용역 결과가 나오면 살펴보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리고……

새로운 질문하기에 시간이 애매하네요.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 먼저 최정호 장관후보자님께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감사드립니다.

○**안호영 위원** 그런데 아까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야 위원님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다주택 보유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더 일을 해야 되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비록 이것을 소유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특히 무주택 서민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했다는 이런 지점에서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 입장은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런 면이 오히려 더 서민 주거안정과 주택 정책을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리고 아까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습니까마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

것을 매각하려고 여러 가지 아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런데 잠실 아파트나 분당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마음을 먹고 실제로 매물로 내놓은 것은 언제쯤 내놓으셨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작년 11월에 매물로 내놨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러니까 두 개 다 작년 일이구먼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잠실을 우선 매물로 내놨고요. 그래서 작년 11월입니다.

○**안호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장관후보자로 인사검증 대상자로 되기 전부터 이미 매각하기로 하고 매물로 내놨던 것이네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래서 이것이 검증 단계에서 청와대의 조언을 받아서 매각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아니네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스스로의 판단으로, 또 여러 번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오래 전부터 가졌던 생각이요……

○**안호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증여하게 된 것은 매각을 이렇게 여러 차례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매각이라는 게 서로, 말하자면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이게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안호영 위원** 매수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처분을 하게 된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맞습니다.

○**안호영 위원** 어쨌든 앞으로 국토부장관에 취임하게 된다면 후보자에게 제기된 다주택자 비판을 자양분 삼아서 우리 집값 안정이라든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2년째 접어들고 있고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부동산시장 안정

을 통한 주거복지 강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집값 폭등에 대한 대책으로 8·2 대책하고 9·13 대책 등 모두 아홉 번의 부동산 대책을 마련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성과도 있고 문제점도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아홉 번의 대책을 마련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또 부족한 주택의 공급량을 늘리는 그런 다각도의 정책을 해서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저도 그런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부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완전히 꺾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실수요자 입장에서 아직 집값 하락을 체감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최근 집값 하락 수준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더 내려가야 되는 면이 있다고 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충분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과거에 급등 시기에 올랐던 것에는 상당 부분 못 미치는 하락 양이기 때문에 안정세가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호영 위원**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으로 오히려 실수요자의 피해가 확산되고 부작용을 양산했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으면서……

원래 후보자님은 교통 쪽의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통 쪽의 전문가인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지명되면 여러 가지, 종부세 강화나 대출 규제 등 부동산 규제를 풀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언론보도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우리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서민 주거안정 또 집 걱정 이사 걱정 없는 그런 세상 그것은 누구나 바라는 아주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렇습니다. 최근 서울지역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됐지만 이것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발등의 불을 끈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보기 때문에 만

약에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부동산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흔들림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리고 철도공사하고 SR 통합 문제 관련된 부분을 잠깐 좀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마는 SR을 출범시킨 것이 실제로 원래 철도 운영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철도공사의 적자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철도 민영화를 하고 또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면서 SR이 출범을 했는데 당초의 정책 목표가 지금 달성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어떤 방법이, 어떤 방안이 철도의 안전을 공고히 하고 국민의 철도 편의를 최고로 높일 수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런데 너무 원론적으로 말씀하셔서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위원장 박순자**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천년고도 경주시 출신 김석기 위원입니다.

장관후보자님, 내정을 축하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감사합니다.

○**김석기 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품도 훌륭하고 또 업무에 밝다는 그런 평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관으로서의 자격 요건은 그 외에도 청렴성, 도덕성 모두가 중요한 요건입니다.

이미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주택 투기 장관이 될 거다 이런 의혹은 국토부장관으로서는 대단히 큰 흠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장관으로서 제대로 자격이 있는지,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신념을 갖춘 사람인지 이런 점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그 점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께서 발언하는 내용을 보고 대단히 현실 인식이 떨어진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국민들이 경제가 어려워서 정말 살기가 어렵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듯이 말씀하시면서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모두가 ‘정말 이상하다. 대통령이 저렇게 현실을 잘 모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대통령을 보필하는 청와대 참모나 장관들의 책임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에게 제대로 직언을 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말하면 눈치 보는 데 급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부·울·경 단체장들이 모여서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대통령께서 그것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년 총선에서 PK 표를 의식한 대단히 위험한 얘기가, 지역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고 민심을 분열시키는 대단히 위험한 얘기를 대통령도 직접 하셨습니다.

어떻게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이랬다저랬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신공항 문제는 지금 후보자가 제일 잘 아는 분입니다. 10년 동안 이것을 가지고 온갖 논란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부·울·경을 포함한 해당 지역 5개 영남권 단체장들이 모여서 합의를 했습니다. ‘정부에 맡기자. 정말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모두 승복하자’ 이렇게 해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들여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국 기업에다가 맡겼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 후보자가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김해신공항 확장하는 것이 최적이다’, 가덕도는 끌려왔습니다. 그냥 끌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항목별로 다 발표했습니다. 모든 항목이 가덕도가 끌려왔습니다. 가덕도는 도저히 공항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대구·경북에서는 당시 밀양을 강력하게 염원했습니다. 그러나 결과

가 나오면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대구·경북에서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깨끗이 그 결과에 승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김해공항 확장 방안에 40억 원의 국민혈세가 다시 투입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다시 재검토하자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를 다시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로지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이런 문제를 다시 거론한다?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후보자께서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서두 인사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지 않는 정책은 실패한다’ 이런 좋은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이것을 다시 뒤집어서 새로 한다?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거듭 말씀드렸 다시피 현재 김해신공항으로 결정된 과정은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김석기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대통령께…… 직언을 해야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기가 최적지라고, 가덕도는 꼴찌라고 해 놓고 지금 와서 다른 얘기 하면 그것은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아무렇게나 막 버려도 괜찮다는 뜻이 합니다. 아까 후보자께서도 청정에너지, 미세먼지를 교통 분야에서는 확실히 잡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미세먼지가 교통 분야만 잡아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에너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을 다 없애고 미세먼지의 주범인 그런 발전소를 더 보강해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돈을 들여서? 이것이 제대로 된 정책입니까?

이런 것을 대통령께 제대로 직언할 수 있는 장관이어야만 대통령이 현실감이 없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 분야에 관련된 사항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에서 판단된다면 필요하다면 직언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김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위원** 최정호 후보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후보로 추천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감사합니다.

○**윤관석 위원** 그리고 또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례적으로 국토부 노조에서 2시간 만에 ‘6년 만의 부처 출신이고 유능하고 경륜을 갖춘 후보자다’ 해서 신속하게 논평이 나왔고 또 국토교통연대라는 단체에서 환영 논평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기대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토부장관으로 추천이 됐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본인의 각오와 앞으로의 포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노조에서 그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과분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모로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만 그간의 30여 년간의 경험과 주변의 많은 전문가 분들 또 위원님들과 같이 합심해서 정말 멋진 국토·교통 정책을 펼치고 싶습니다.

○**윤관석 위원** 청와대 인사기준도 다 통과하시고 오늘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주택 보유 문제와 관련해서 약간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어서 그 질의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시원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소신 있는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정책질의 때는 지금 인사말 하신 대로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입니다. 그런 부의 후보자로서 다주택 사항에 대해서는 오전에 말씀드렸 다시피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관계는 지금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정리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주택 정책만큼은—또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로—서민주거복지를 위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저의 과거의 그런 흠이 전혀 문제되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더 견고한 주택 정책을 펼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국토 분야 그러니까 주택·건설·교통 정책 전문가로서 이후에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일각에서의 ‘투기 전문가 아니냐’, ‘절세 채테크의 달인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소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기 받은 의혹은 3주택 보유 논란 중에서 특히 증여 논란, 갭 투자 논란, 특별분양 논란인데 갭 투자는 거주한 기간이 16~23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성립할 수 없다, 단기차익을 노리고 하는 것이 전형적인 갭 투자이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전혀 맞지 않아서 아마 이 부분은 질의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다주택에서, 2주택 1분양권을 가진 상태에서 급하게 정리하다가 그 급한 와중에도 뭔가 또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세테크 방식으로 주택을 하나 정리했다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한 것은……

○**윤관석 위원** 보니까 이 세테크 방식은 굉장히 복잡하던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 능력을 벗어난 사항이라고 생각되고요. 하여튼 이유야 어쨌든 사려 깊지 못한 면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윤관석 위원** 주택 전문가지 절세 달인 전문가는 아니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믿도록 하고요.

특별공급 이 부분은 15 대 1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해서 결정하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은 가질 수 있습니다만, 사실상 경쟁은 높아도 이것을 관리하는 부분은 금융결제원이 하는 것이라 이 시스템에서는 개입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사실상 어떤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주택 정책 전문가로서의 위상에

힘이 가지 않도록 앞으로 문제제기 받은 부분들을 잘 처분·정리해 나가시기 바라구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정책 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알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부동산 관련해서 앞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이미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 왔고? 보완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현재 상태에서는 보완점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정 추세에 이미 조금 접어들었습니다만 아직 유동적인 것도 있고……

○**윤관석 위원** 아직 완전히 안정 추세는 아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개발 기대도 있어서 확고한 편이 아닙니다.

○**윤관석 위원** 후보자님, 저는 진정 국민이라고 보고요. 안정 국민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좀 더 명확한 공급 대책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30만 호 중에서 11만 호 추가 발표가 남아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윤관석 위원**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또한 이것이 주택부지만 발표해서는 안 되고 교통대책이 따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실수요자들이 실제 3기 신도시나 이런 데에서 자기들의 공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한 교통망, 특히 GTX 노선을 포함한 광역교통망 등 여러 철도계획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실수요자 중에서도 LTV가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그 외 지역이 40·60·7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익 공유형 모기지대출은 지역 관계없이 70%까지 적용되는데 조건이 있지요. 부부 합산 7000만 원 소득 부분이 있지 않습니

까? 이 부분이 좀 더 넓은 계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미세적 조정들은 필요하다는 전문가나 현장의 요청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은 크게는 없다고 보는데 저는 공급 대책하고 이런 현장에서 요청되는 실수요자를 위한, 무주택자를 위한, 실거주자를 위한, 신혼부부를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은 조금씩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그 부분도 꼼꼼히 살펴봐 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서민 실수요자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지원 확대 방안은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챙겨 보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윤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 경기 구리 출신 윤호중 위원입니다.

우선 최정호 후보자님, 국무위원후보자로 지명되신 데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감사합니다.

○**윤호중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의 공직생활을 오래 해 오신 분께서 국토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된 것이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기대는 또 다른 기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 정치인 장관의 목적의식이 분명한 정책 수행 이런 것들이 좀 더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그동안의 경험을 잘 살려 주시기를 바란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말씀 하시면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셨지만 지금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아직 이것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실제로 후보자께서 3주택인데 3주택이지만 끊임없이 1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집을 시장에 내놓고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하셨던 것으로 답변을 해 오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주택시장이 집값이 어느 정도 하락되어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사고파는 대상이 아니라 살림집, 내가 살 집이 되

어서 실수요자들의 거래가 이루어져야 실제로 어떻게 보면 후보자가 가지고 계신 그 집들도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장관후보자에게서 그동안 오해 받아 온 다주택자의 오명을 빨리 벗기 위해서라도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집값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주택 정책의 최선의 목표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집값, 이를 테면 주택 정책의 가장 최종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집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세상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모습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준비되고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호중 위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의 안정이 중요한 이유는 집값의 폭등이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비용의 폭등을 불러오기 때문에 중산층, 서민의 주거비를 안정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집값 안정의 최종 목표라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또 더 나아가서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경우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주거급여의 인상이라든가 확대를 통해서 주거비용의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윤호중 위원** 또 후보자께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품질을 높이는 한편 OECD 수준 이상으로 공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OECD 수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6.7%에 불과합니다, OECD 수준은 8% 정도 되고. 저희가 현재 한 137만 채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만 가구가 되면 저희가 9%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22년까지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서 또 확대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런 부분에 보강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지금 공공임대주택으로 산입이 되고 있는 주택들 중에는 실제로 중기 내지는 장

기 임대주택들의 경우에 분양 전환이 되는 물량 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OECD 수준 이상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세우고 있는 계획보다 훨씬 더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이 되시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그리고 최근에, 지난 1월 말이지요,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전국에 걸쳐서 지역의 숙원사업들에 대한 예타 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남부내륙고속철도라든가 그동안 예타 통과가 어려워져 진행되지 않던 사업들이 약 5년간에 걸쳐서 23조 규모로 예타 면제 조치가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것과 함께 예타 면제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지방의 끊임없는 예타로 인한 고통 그리고 지방의 발전을 발목 잡고 있는 이런 예타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타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말씀하신 대로 예타제도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너무 B/C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예타 기준이 지역 균형발전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민에게 드리는 편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면이 있어서 그런 면이 좀 더 보강이 되어서 지역 균형발전 또는 우리 국민의 SOC가 부족한 부분에 조속히 그런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타 면제 부분은 기재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윤호중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시간을 정확히 맞추어 주셨습니다.

윤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憲昇 위원** 최정호 후보자님, 시간이 없어서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신공항 건설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후보자가 판단하시기에 김해신공항 건

설사업이 신공항 건설인지 공항 확장인지 분명히 답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것은 신공항으로 저희가 명명하고 있고 현재는 잘 아시는 대로 군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라는 이쪽은 새로운 민간공항이……

○**李憲昇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공항 건설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입지 발표 당시에 KBS 라디오를 통해서 후보자께서는 김해신공항 사업은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이며 공약을 이행한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고요.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박광온 수석대변인 브리핑에서도 지역 간 갈등의 최소화와 경제성 등을 고려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이 나왔습니다. 이는 결국 당시 민주당 역시 김해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후보자께서는 서울경제신문 기고문을 통해서 정부는 입지 선정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의견을 주고받았고 지역 간의 화합을 이끌어내며 최적의 대안으로 김해신공항을 도출했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장관후보자님, 서면답변에서 예정대로 김해신공항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李憲昇 위원**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해신공항 건설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백지화하겠다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대규모 국책사업 과정에서 결정이 된 이후에도 지역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협의와 조정 과정, 다양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사업기반을 탄탄히 하고……

○**李憲昇 위원** 후보자님 말씀은 알겠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을……

○**李憲昇 위원** 그러면 수정 보완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지금은 그렇게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이제 부·울·경에서 검증 결과를 그동안에……

○**李憲昇 위원** 좋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전에도 국토 부하고 부·울·경 간에……

○**李憲昇 위원** 잠깐만요.

후보자님, 이것은 후보자님이 주무 차관일 때 결정된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맞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 당시 검증기관이 파리의 ADPi 아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맞습니다.

○**李憲昇 위원** 외국 기관을 일부러 우리가 선정했잖아요, 국내 기관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현재 부·울·경 검증단에서 검증하고 있는데 부·울·경 검증단이 더 전문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파리의 ADPi가 더 전문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파리의 ADPi는 5개 지자체가 합의해서 객관성과 공정성 그다음에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관에 맡긴 것이고요……

○**李憲昇 위원** 그러면 지금 부·울·경……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부·울·경 검증단은 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울·경 검증단에서 전문가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견을 저희 국토부에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보고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李憲昇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현재 집권 여당이 어느 당입니까? 현재 어느 당이 집권당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인 것으로……

○**李憲昇 위원** 그러면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겸직 장관 맞지요? 현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울·경 단체장도 민주당 출신입니다. 만약에 부·울·경 검증단의 주장이 타당하면 당연히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받아들여야 되지요? 왜 지금 현재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것은 정책이라는 게……

○**李憲昇 위원** 좋습니다.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 5개 광역지자체장들 신공항 건설 필요성을 인지하고 입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시에 가덕도나 밀양이나를 놓고 따져 봤는데 점수가 어디가 높게 나왔지요? 그 당시 주무 차관이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李憲昇 위원** 어디가 높게 나왔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김해신공항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李憲昇 위원** 어디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김해신공항이 제일 1번이었고……

○**李憲昇 위원** 가덕도하고 밀양하고는 어디가 높게 나왔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밀양이 높게 나왔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가덕도도 밀양도 아닌 김해신공항 건설로 났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김해신공항이 제일 최적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李憲昇 위원** 만약에 부·울·경 검증단의 주장대로 김해신공항 건설이 중단된다면 신공항 입지를 다시 선정해야 되지요, 만약에 그게 받아들여진다면?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것은 부·울·경 검증 결과를 보고 협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李憲昇 위원** 만약에 신공항 건설이 중단된다면 다시 입지를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요……

○**李憲昇 위원** 지금 김해공항이 전국에서 이용객이 가장 급증하고 있는 공항인 것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알고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작년에 630만 명 수용할 수 있는 국제선 청사 건설했는데 벌써 1000만 명이 넘는 이용객이 김해공항을 이용했어요. 지금 입국장 면세점 설치할 공간도 없습니다. 새벽 시간에 항공기들 동시에 도착하게 되면 수화물 찾는 캐러셀(carousel)이 혼잡해 가지고 짐 찾기도 어렵고 대기시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주차공간을 찾다가 비행기 시간에 쫓겨 가지고 그냥 길가에다 노상 주차를 하고 해외여행을 가 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쾌적한 공항 건설이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 기본 계획이 마무리되더라도 2026년 개항하기에 정말 빠듯한데 다시 원점에서 시작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일단 예정된 김해 활주로 1개를 신설부터 하고 추후에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하는 게 좋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말씀하신 대로 김해공항의 혼잡 문제, 수용 능력을 이미 초과한 사실은 잘 알고 있고요. 하루 빨리 영남권 전체의 항공 편의가 확충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李憲昇 위원** 만약에 결론이 안 나 가지고 총리실로 이관된다면, 후보자의 견해와 달리 김해신공항 건설 전면 재검토 결정이 난다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것은 예단해서 앞서서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증 결과가 오고 지역에서 다양한 의견이 온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협의하고 그것을 탄탄히 논의한 다음에……

○**李憲昇 위원** 아니, 그렇게 빠져나가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장관 임명 후에 이런 배치된 결과가 나온다면 당시에 입지 선정을 주도한 주무 차관으로서 당연히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장관으로서의 자격도 당연히 없어집니다. 책임지고 사퇴해야 됩니다. 그럴 자세와 책임감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책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준비되고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李憲昇 위원**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이현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희 위원** 우선 축하인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감사합니다.

○**이규희 위원** 이번 국토부장관후보자로 여러분들이 물망에 오르셨을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희 위원** 그분들 중에서 아파트 세 채 미

만을 소유한 분이 한 분도 없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들으신 바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규희 위원** 후보자님께서 아파트 소유를 세 채에서 두 채로 줄이기 위해서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좀 지혜롭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이규희 위원**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소명하는 것이 훨씬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후보자님의 아파트 세 채 소유의 경위에는 충분한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아파트, 즉 세종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혹시 이후에 장관후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런 생각은 못 했습니다.

○**이규희 위원**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냥 거주할 목적으로 했고요.

○**이규희 위원** 장관을 보통 행정가라고 하지만 크게 보아서 정치 지도자의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런 자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규희 위원** 일국의 정치 지도자라면 국가 발전의 확고한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이규희 위원** 저는 우리나라가 10년 안에 세계 1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도 제대로 하고 공정한 경제로 중소기업을 살려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하는 것은 당연히 기본이고, GNP만 높다고 선진국이 아니라 의식과 문화의 선진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확고한 인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동의합니다.

○**이규희 위원** 일국의 정치 지도자는 10년 안에 세계 1등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세계 1등 국가를 만들고 싶다는 열정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애국심이,

그 애국심을 표정과 말투와 키워드로 국민의 가슴에, 피부에 와닿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후보님은 이러한 자신감과 열정과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제 생각에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연마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맹정진하겠습니다.

○**이규희 위원** 하여튼 자신감이 좋으시고요. 또 반성하실 것이 있다면 그만큼 더 열심히 일을 하셔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 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규희 위원** 후보자님,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 줄로 정리하신다면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여러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다 주거 안정 또 그런 차원에서 가장 최선의 정책이 무엇인가를 시장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해 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규희 위원** 알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박근혜정부의 대출규제완화 정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취임해서 보름 만에 LTV를 60%에서 70%로 완화하고 DTI를 50%에서 60%로 완화했습니다.

다음에는 박근혜정부의 금리인하 정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취임해서 한 달 만에 금리인하를 시작해서 박근혜정부 때 다섯 차례에 걸쳐서 2.50%에서 1.25%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러한 박근혜정부의 대출 규제완화 정책과 금리인하 정책으로 박근혜정부 5년 동안, 4년인가요? 아파트 세 채 이상은 73%가 증가하고 한 채 소유자는 11%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후보자님,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대략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한 1500조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희 위원**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네요.

가계부채는 1534조로 되어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이규희 위원** 더 중요한 건 이 액수도 문제지만 저기입니다, 증가율. 2015년에 10.9%이고요, 2016년에 11.6%입니다.

후보님, 2015년, 2016년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였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박근혜 대통령.

○**이규희 위원** 박근혜 대통령이었지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시 후보자님은 국토부차관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저는 30년 하다 보니까 여러 정부를 거쳐서 공무원 생활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규희 위원** 이러한 가계부채가 늘 수밖에 없는 박근혜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지는 못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아까 말씀하신 금리라든가 이런 것은 부동산만 보고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 전체 경제 상황 또 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결정이 됐다고 보고요. 저때 제가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였는지는 한번 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규희 위원** 그러면 청와대에서 다 했나요, 차관이셨는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모든 정책은 주무부처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입안을 하고, 물론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회라든가 또 청와대라든가 같이 소통하면서 협의하면서 최적의 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규희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2017년 8.1%, 2018년 5.8%, 좀 꺾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심할 수준은 아닙니다.

가계부채가 10%씩 증가하면 8년 만에 가계부채가 2배가 됩니다. 그리고 5%씩 증가해도 14년이면 2배가 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가계부채는 적절하게, 적정하게 관리되어야 될 필수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규희 위원** 시간이 없어서 질문 끝나고 충분히 답변을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이규희 위원** 질문을 할 수가 없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가계부채가 GDP 대비 비율이 세계 3위고 그리고……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요.

하여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문제는 우리 경제 위기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입니다. 특별히 잘 관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순자** 답변 다 하셨습니까, 후보자?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위원장 박순자**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자료들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배석하신 공직자는 빨리 자료를 확인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배석하신 공직자들 계시지요? 자료를 독촉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이 다 받아 보실 수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대구 서구 김상훈 위원입니다.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여러 언론사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최정호 장관후보자가 청문회와 관련된 질의서 사전 답변은 김해신공항 건설계획에 대해서 입장 변화가 없다라고 답변했는데 최근에 부·울·경 검증단의 주장을 면밀히 한번 살펴보겠다고 해서 혹시 입장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한테 질문이 들어왔는데, 저는 후보자의 입장 변화보다도 여러 언론사에서 지금 남부권 신공항의 입지 문제가 재점화되고 있는 데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 세 분께서 김해신공항 입지 결정과 관련된 ADPi 용역 결과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3월 17일 날 국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해신공항 입지 결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반박하는 주장을 하셨는데 다음 날 3월 18일 날 국토부에서 이례적으로 부·울·경 단체장의 이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한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총 다섯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눈에 띄는 게 세 가지라고 봐요.

첫째, 김해신공항 건설계획에 인근 산을 5개나 깎아야 된다고 단체장들이 주장하고 계시는데 우리 국토부는 국제기준에 따르면 장애물 절취 없이 활주로 건설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부·울·경 단체장이 활주로는 고작 3.2km에 불과해서 대형화물기 이착륙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역시 국토부에서는 F급 대형항공기와 장거리 노선 취항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해신공항 확장 사업을 했을 경우에 소음피해 가구가 9배나 늘어난다는 주장에 대해서 국토부는 오히려 현재보다 46%나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토부의 이 검토 내용 자체가 사실관계에 가장 가깝다고 봅니다. 2016년도 장관후보자에게서 2차관으로 재직할 당시에 남부권 신공항 입지를 발표하면서 각 후보지의 순위를 같이 발표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따르면 가덕도는 첫째, 남쪽 끝단에 있고 컨테이너, 대형화물의 하역기지인 점 등등을 봤을 때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태풍이 올라오는 선로상에 있다, 김해공항과의 활주로 방향상으로 봤을 때는 비행공역에 충돌이 있을 수가 있다, 주변의 산을 절취해야 하고 해수면을 매립해야 하는 관계로 부동침하 등의 사후 관리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등등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통해서 김해, 밀양, 가덕도 중에 가장 꼴찌로 평가를 했습니다.

부산·울산·경남지역 단체장의 주장대로라면 김해신공항이 문제가 있으니까 더 큰 문제가 있는 가덕도에 지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산지역 방문하신 이후에 가덕도신공항 문제가 재점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마는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선거공학적 변화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DPi의 입지평가 용역이 1년이 걸렸어요. 국토부의 기본계획 용역이 1년이 걸렸습니다. 2년이 걸린 용역 결과를 2018년 11월 달에 구성된

부·울·경 검증단이라는 데서 4개월 만에 이것을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부·울·경 검증단은 제가 보니까 첫째, 어떤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지 공개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성됐는지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회의 결과가 공개가 안 되어 있어요. 짐작하건대 부산시와 경남도가 운영하는 부산발전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의 연구자 플러스 소수의 전문가가 참여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선거를 앞두고 10년 지역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던 국토부의 결정 자체가 다시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장담하건대 부산지역 선거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이 공항 입지 문제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공분을 비켜 갈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전국적 선거에서는 저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늘 듣던 익숙한 말,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국가 백년지대계가 어떤 특정 지역 정치인의 협량의 정치로 말미암아서 다시 반복되는 이런 사례가 과연 문제인 대통령께서 이야기하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를 만들겠다는 그 취지에 부합되는 결론이나, 다 같이 물어봤을 때는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장관후보님께서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2차관 재직 당시에 내렸던 그 결정도 사실은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5개 단체장이 합의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그렇지만 5개 단체장이 국토교통부의 용역 결과에 대해서 합의하기로 이미 사전 협의를 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 당시 국민들께서는 이미 건설 운영 중인 김해신공항을 확장해서 활용하는 게 합리적이었다는 그런 평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합리적인 결과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영향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진중한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밝혀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질의에 비해서 답변이 너무 짧으시네요. 그러면 보충질의 때 충분하게, 김상훈 위원님 질의에 후보자께서는 좀 더 깊이 있는 답

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삼 위원** 충북 제천·단양 이후삼입니다.

오늘 죽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후보자님께서 평소에 국토부 쪽 일하시면서 많은 신뢰를 받고 있다, 그쪽 조직사회에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안타깝게 1분양권 2주택 문제 때문에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혹시 더 추가해서 해명을 할 내용이 있으면 일단 말씀을 먼저 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타산 지식으로 삼아서 제 앞으로의 삶과 또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좀 더 멋진 삶, 탄탄한 삶, 사려깊은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삼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것은…… 후보자께서도 공직생활 15년 만에 집을 마련하셨고 나름 공직생활하시면서 상당히 청렴한 삶을 사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명하신 것을 액면 그대로 다 인정을 하더라도 따님에게 그것을 증여를 한 내용 때문에 오히려 이게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나 청년 문제라든가 집값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큰 부담을 갖고 그렇게 수행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후삼 위원** 정책 관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타 면제 관련해서, 예타 관련해서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예타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장관후보님께서 갖고 있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여러 가지 말씀

을 주셨습니다마는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게 광역교통개선분담금, 그러니까 주민들이 낸 돈이 사업비 할 때 그 부분은 예타를 할 때 조금 감안해 줘서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주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타가 너무 경제성 위주로 되어 있어서 지역 균형발전 부분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또 환경에 대한 또 국민이 실제 얻는 편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량화할 수 없는 편익이 있지만, 정성적인 편익이 많지만 그것을 꼭 정량화해서 보여 줘야 되는 예타제의 문제점 그리고 교통SOC는 네트워크로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망이 형성이 되어서 동서 간에, 남북 간에 긴 거리, 긴 구간의 도로망, 철도망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전체로 보면 B/C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의 국가 통합이라든가 또는 물류, 국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는 그게 전체적으로 미싱 링크(missing link)가 없이 연결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예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후삼 위원** 지금 지방 군 소멸위험에 대한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요. 도시와 지방 간에, 대도시와 농촌 간에 불균형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지방은 주거여건뿐만이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후삼 위원** 지난 1월 정부에서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후삼 위원**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과 향후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국토부 소관이 15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법정 절차에 따라서 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는 대로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후삼 위원** 안전 문제 관련해서 몇 가지 말

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연이은 철도사고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기도 했고, 관련해서 안타깝게 코레일 사장님께서 사임을 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이게 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기술상에 문제가 있는 건지…… 작년에 사실은 연이어 사고가 나면서 상임위에서도 계속 질책이 있었고 또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한 후보자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안전에 관한 기준이나 제도는 이제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행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다, 즉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걸 하기 위한 근본적인, 인원이 부족하다면 인원을 확보해야 되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도 살펴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삼 위원** 사람 하나 바뀐다고 해 갖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면 정말 다행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철도 전반에 혹시 구조적으로 우리가 뭔가 허점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우려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 분야에서 오래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더 큰 사고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후삼 위원** 지난번에 안동에서 또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정말 후진국형 사고의 대표적인 사례들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혹시 입장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많고요. 그중에서도 추락사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서, 절반 가까이가 추락사고인데요. 방지하기 위해서 시스템비계라고 기존 비계와 다른 아주 안전한 비계를 공공 부문은 금년부터 적용하고 있고요. 민간 부문도 확대해 나가고, 특히 생명줄 이런 것들을 걸고 작업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잘

안 지켜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첨단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차고 작업을 하는지, 물론 감독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과학적으로 첨단기술을 통해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노력도 같이 병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투자도 역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이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咸珍圭 위원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감사합니다.

○咸珍圭 위원 제가 후보자님을 국토위에 가장 오래 있으면서 지켜본 제 소견은 인품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남의 말을 잘 듣고 하여튼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은 제가 인정하고 싶습니다.

장관이 되시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으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공직을 열심히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咸珍圭 위원 이번에 되면서 ‘내가 장관은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갖고 계셨었나요 아니면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된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하여튼 공직을 열심히 해 왔고요. 장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공무원이라면 처음에……

○咸珍圭 위원 하지는 않았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렇지만……

○咸珍圭 위원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국토부장관의 핵심적인 임무 내지는 자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다양한 능력이 필요하겠습니다라는 전문성과 리더십, 소통 이런 능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咸珍圭 위원 후보자님은 내가 볼 때는 잘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총론적으로, 각론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책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싶은데, 정책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지요. 그것은 의원도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로요.

후배 공무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마 본인이 차관도 하시고 장관까지 후보자로 선정이 되셨는데 국토부 내부에서 같이 일해 본 사람들,

제가 장관후보자를 그렇게 생각하듯이 장관후보자님이 후배 공무원들을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정말 일 열심히 하고 다른 데 큰 관심 없이 이렇게 하는 아주 유능한 후배 공무원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장관후보자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과연 뭐를 남겨줄 수 있나 하는 것을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같은 공무원 중에서 업무능력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자기 관리 안 하면 열심히 한 사람들이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을 갖겠어요.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위원님 말씀……

○咸珍圭 위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후배 공무원들…… 왜냐하면 국토부가 여러 가지 토지정책을 조율하고 여러 가지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항상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무슨 정보든지 많이 흘러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후배 공무원들한테,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저는 아무나 장관 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렇지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제가 봐도 억울할 것 같아요. 정말 일만 하고 이런 데 관심이 없는데, 그래서 후배 공무원들한테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후배 공무원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되고 또 자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咸珍圭 위원 결과는 어떻게 되든 또 잘되시면 잘되시는 대로 우리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그런 위상을 정립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고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고향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청와대에서 그런 건지 본인이 그렇게 내신 건지 왜 지금…… 경북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咸珍圭 위원 경북 출신으로 언론에 나왔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청와대에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적어 내신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저는 초등학교부터 최종 학력까지 다 적어 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咸珍圭** 위원 경북에서 다니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구미에서 다녔습니다.
 ○**咸珍圭** 위원 조선일보에 보니까 3월 11일 자 보면 ‘만물상, 장관 출신지 세탁’ 해서 이번에 7명 여러 후보들을…… 이것만 보면 7명의 장관 출신지가 서울 4명, 인천 1명, 경북 1명, 강원 1명이에요. 호남은 또 없어요. 이것도 문제 아니에요?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어느 정부든 간에 능력을 1순위로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능력만 보다 보면 또 어느 지역에는 장관이 하나도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본인 잘못은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이런 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출신 고등학교를 쓴다고 출신지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咸珍圭** 위원 그것을 잘못 언론에, 또 본인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예타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게 옳을 수도 있지만 타 지역의 형평성 문제도 생각을 해야 돼요. 아주 전문가신데 예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타 제도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咸珍圭** 위원 그런데 제2경인선 같은 경우에는 두 달 만에 끝났어요. 그게 1조 1000억 원이 들어가는 아주 대형 철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철도시설공단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그 용역기간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오타라고 얘길 하거든요. 이런 답변이 있을 수가 있나요? 1조 1000억 원짜리를 두 달 만에 용역을 다 끝내 버리는 것도 있나요? 그전에 줄줄이 쌓여 있는 예타 대상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건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咸珍圭** 위원 그래서 저는 균형 발전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것에 이런 고려를 해야지, 예타에 대해서 기재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그때그때 따라서 예타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렇게 허물어 버리면 어떻게 정부 정책을 신뢰하겠어요?

장관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새로 정립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살펴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원칙도 정립을 하고 아무튼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咸珍圭** 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도…… 규제 문제에 대해서 좀 대통령께 소신 있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임 장관한테도 제가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그렇게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땐, 규제완화 문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필요한 규제완화가 있다면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먼저 앞장서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咸珍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훈** 위원 후보자님,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되긴 하는데 정리 좀 해 보겠습니다.
 다주택 보유는 죄다, 동의하십니까? 죄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다주택 보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해훈** 위원 바람직하지 않은데 왜 하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특히 주택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그런……
 ○**이해훈** 위원 안정을 해치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면 왜 본인은 20년 동안 해 오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런 안정을 해치는 것이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해훈** 위원 본인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확신을 가졌는데도 잘못된 일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셨네요.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문 정부의 논거는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값 안정을 문 정부 주택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데 이 집값 안정을 해치는 것이 투기 수요다, 그런데 이 투기 수요는 다주택자 때문에 생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정책도 보면 어떤 연유에 의해서 다주택자가 됐든 불문에 부치고 무조건 다주택자이기만 하면 양도세 중과, 종부세 중과 그리고 각종 규제를 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출까지 금지시킵니다. 이것 굉장히 최악시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정부가 최악시하는 일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십수년을 해 오신 분인데 이 정부의 장관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어떻게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사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저도 다주택자가 되는 걸 결코 원치 않았습시다. 그런데……

○**이혜훈 위원** 누가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 없습시다. 이 땅에 있는 212만 다주택자가 지금 후보자와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처분하려는 기회를 놓쳤고요. 그게 제가……

○**이혜훈 위원** 처분할 기회를 놓쳤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이혜훈 위원** 지금 보면 분당 집하고 잠실 주공 집하고 2개를 동시에 계속 보유하면서 잠실 집에는 단 하루도 살지 않고 계속 전세를 놓아온 기간만 16년입니다. 16년에 우리나라 부동산의 최고점도 있었고 하락기도 있었고 수많은 세월의, 영욕의 세월이 있었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그렇게 팔려고 했는데 한 번도 안 팔렸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팔려고 했는데 못 팔았다 이렇게 속이 뻘뻘 보이는 거짓말 하시면 국민들이 화가 납니다.

문 정부 기준에 의하면 바로 지금 장관후보자가 집값 폭등의 주범입니다. 집값 폭등의 주범을 다주택자라고 아예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규정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김현미 장관의 발표는 다 보셨을 거고 당시 우원식 원내대표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이 일하셔야 될 박선호 1차관마저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문 정부의 모든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이 바로 후보자 같은 분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집값 폭등의 주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주범이 어떻게 이 정부의 집값 안정 책임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그러면 이것 동의하세요, 사는 집 아니면 다 팔아라? 이게 이 정부의 기조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집은 삶의……

○**이혜훈 위원** 사는 집 아니면 다 팔아야 돼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삶의 공간이다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혜훈 위원** 그런데 본인은 왜 사는 집 아닌데 이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건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혜훈 위원** 송구하다는 얘기로는 해결이 안 되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제가 2008년에……

○**이혜훈 위원** 보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걸 분명히 팔려고 했습시다마는 그걸 놓쳤고……

○**이혜훈 위원** 보세요. 2017년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한 번 전세를 주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연장이 됐습시다.

○**이혜훈 위원** 문 대통령과 국토부장관인 김현미 장관이 솔선수범한다 그러면서 두 채 중에 한 채를 매각했습니다. 그때도 본인은 매각의 시도를 하지 않았습시다. 본인이 지금 여기 장관후보자가 되시고 우리한테 제출한 서류에 보면, 소위 잠실 집을 언제 팔려고 내놨다고 지금 얘기하면 2018년 11월이에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장관, 이 정부의 국토 정책,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들은 벌써 1년 반 전에 매각을 했는데도 본인은 그때도 매각할 생각이 없었고 매각 시도도 없었어요. 본인이 지금 실토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지금 212만 명이나 되는 다주택자들에게 ‘너희는 집값 폭등의 주범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고통을 당해야 된다. 너희는 세금도 더 내. 중과하겠다. 그리고 너희는 대출도 금지하겠어’ 이렇게 하시면 그분들이 동의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리고 오늘 사실 오전 오후 내내 이 청문회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분노하는 부분이 있어요. 본인이 세상에 본인보고 실소유 보유라고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실소유 보유가 개념이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위원님, 그건 오

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실소유 보유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실거주할 목적으로 당초에는 그걸 매입을 했다는……

○이혜훈 위원 당초에 했다 하더라도 16년 동안이나……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런 말씀이군요.

○이혜훈 위원 보세요. 실소유로, 실제로 거기 살려고 집을 보유한 거는 2003년, 99년 그때라 치고 그 이후에 16년 이상의 세월 동안에 살지 않는 집을 처분하지 않은 것은 실소유 보유자 아닙니다. 이 정부의 실소유 보유가 뭔지 아세요? 사는 집 말고 다른 집 갖고 있으면 다 실소유 아닙니다. 지금 후보자는 실소유 보유자가 아니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지금은 아닙니다.

○이혜훈 위원 실소유 보유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아니고 그때도 아니었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것은 인정하고……

○이혜훈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분이 실소유 보유자 아닌 모든 사람에게 철퇴를 내리고 그 사람들을 단죄하고 범죄자 취급하는 모든 정책의 수장이 되십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도무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혜훈 위원 반성한다고만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반성을 너무 늦게 하셨어요. 좀 더 일찍 하셨어야지요.

그러면 이것 물어보겠습니다.

분양권만 가진 경우 소유로 보는 것이 정당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현 정부 정책이 소유로 보고 있습니다.

○이혜훈 위원 본인 생각을 묻는 거예요, 후보자.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이혜훈 위원 분양권만 가져도 소유자로 보는 게 맞아요? 소유권 등기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됐는데도 이 사람들에게 이주비 대출도 못 받게 하는 게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분양권은 장래에 집을……

○이혜훈 위원 사겠다는 건데 아직 사지 않았잖아요? 마음의 의도만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을 실제 행동을 한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되는 겁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군요.

본인은 뭐라 그러나 하면 지금 보면 2개는 분명히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 아파트 그것은 분양권만 가지고 있다고, 계속 본인은 소유한 게 아니고 분양권만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셨어요. 이 정부 기준에 의하면 분양권만 가져도 소유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본인이 본인을 변명할 때는 ‘나는 분양권만 가지고 있다’ 소유가 아니라는 듯이…… 어떤 언론에 보면 이렇게 쓰더라고요, ‘1가구 1주택 1분양권’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1가구 2주택자입니다, 현재는. 불과 몇 달 전까지는 1가구 3주택자였고. 그런데 본인이 유리하고 싶을 때는 분양권이 소유권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지금 장관이 되신다면 할 정책에서는 분양권만 가져도 소유권자로 똑같이 간주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든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제가 분양권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8월에 그게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입주를……

○이혜훈 위원 그 사정 모르는 사람 없고 분양권이라는 것 자체가 다 그런 사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입주를 못 했기 때문에……

○이혜훈 위원 이 땅의 분양권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사정입니다. 그런데 본인한테는 그렇게 해석하시고 마치 소유권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면서 정책은 분양권만 가져도 소유권으로 인정한다는 정책 하겠다고 그러시는 게 모순이라는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순자 후보자, 답변하신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위원장 박순자 이혜훈 위원님, 보충질의 시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 되겠습니다.

박덕흠 위원님.

○박덕흠 위원 아까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후보자께서 청와대에 제출한 인사검증 서류 사본 또 제출한 일시, 이게 큰 것도 아닌데 이렇게 안 주고 계시는데 빨리 주시도록 하시지요.

○위원장 박순자 배석 공직자들, 자료를 아까부터 위원장이 주문을 했는데 아직 안 드렸습니까?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바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승 위원님.

○李憲昇 위원 조금 전에 박덕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저에게도 주고요.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차관 임명 당시의 국토부의 검증자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요구한 것을 같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공무원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1급 이상인분의 자료가 아니고 1급 이상 되신 분들의 신청 당시의 직급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신청 여부를 내가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엉터리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다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자 함진규 위원님.

○咸珍圭 위원 후보자님!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咸珍圭 위원 이것은 후보자님한테는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광명·시흥지구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외부에서 그냥 오신 분이 아니고 국토부에 계속 차관으로 근무를 하셨던 분이니까 본인은…… 시흥·광명지구 특별관리지역 2010년도 MB 정부 때 이것을 지정했어요. 거의 1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본인 생각을 이따 자료를 내부적으로 보시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종이 한 장에 달랑, 무려 525만 평인데 우리 지역보다도 광명이 더 많아요. 제 지역적인 문제를 묻는 게 아니고 10년 동안 지정해 놓고

현 정부 지금 3년 차 되어 가고 있어요. MB 때 지정하고 박근혜정부 때도 사실 안 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 박순자 말씀하세요. 마이크 들어가니까 계속하십시오.

○咸珍圭 위원 그래서 어떤 정부를 제가 따지기 전에 사유재산권을 벌써 10년 동안 지정해 놓고 있던 말이에요. MB 정부 때 지정해 놓고 박근혜 정부 때도 사실 못 했어요. 그러면 현 정부의 입장은 뭐냐 이거야, 특별관리지역으로 벌써 몇 년이 지나고 있는데.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주고, 솔직히 말해서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경기도 주관으로 활용 방안을 검토’, 여기하고 경기도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국책사업으로 갔던 건데? 무려 525만 평의 땅을 풀어 놨는데? 이것 다른 데 같으면 난리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의 없이……

제가 공무원들 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장관후보자로써 명확한 입장을, 거기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엄청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본인 개인 입장이라 하더라도 이따 협의하셔서 쉬는 시간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이것 다시 주시고요.

정부 입장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부가 3년 차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계획도 없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립니다.

지금 공직후보자께서는 박덕흠 위원, 이현승 위원, 함진규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준비도 있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효율적인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임종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성 위원** 경기 광주을의 임종성입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국토부 공직생활을 30년 정도 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임종성 위원** 전문성 있는 국토부장관후보자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기대심리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야를 떠나서 위원님들 답변에 좀 더 당당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임종성 위원** 오전에 이어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한 미세먼지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GTX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교통혁명이라고 불리는 GTX 사업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마스터플랜 수립과 전담 추진단 구성 등 추진체계 확립이 시급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GTX 사업은 규모가 약 15조 원에 달하고 수혜 인구도 한 2000만 명 정도 이상 예상되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국책 핵심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임종성 위원** GTX는 수도권 교통체계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옴과 동시에 수도권의 도시계획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이 GTX 사업은 결단코 쉬운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건물이 밀집한 대도시 지하를 최대 고속 180km/h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설이 되어야 하고 또 서울역과 삼성역·광화문 지하도시개발사업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GTX 간 또 GTX와 지하철 간 환승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간단치 않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GTX 사업은 수도권의 국토 체계, 국토 계획, 도시 계획과 연계해서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GTX 개통 후 새로운 도시 공간 구조에 대한 구상과 대비도 사업 초기부터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럼에도 국토부는 지금 GTX 사업을 수도권에 지하철 하나 더 건설하는 사업 정도로 치부하

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를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1996년에 고속철도건설기획단을 설치해서 KTX 사업의 기획과 정책 결정, 조정, 사업 추진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했던 상황과 상당히 대비된다고 생각되는데 후보자님 그때 기억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기억납니다.

○**임종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GTX 사업의 파급효과와 기술적·사회적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마스터플랜 수립이 시급하고 전담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이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고 또 장관이 되신다면 GTX 전담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할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GTX 전담 추진단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추진단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GTX가 잘만 설립되면 실질적으로 서울에 굳이 임대주택을 안 지어도 GTX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면 되기 때문에, 또 개인 자가용 차량이 많이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미세먼지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임종성 위원** 그리고 물류단지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수도권에 물류단지가 집중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임종성 위원** 특히 경기도 광주에 더 많은 문제가 있는데 물류단지가 특정 지역 내에 집중 배치되면서 사업자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수급 불균형이나 비계획적 입지로 인한 중복성 초과, 개발 수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도로와 교통이 문제가 됩니다. 이에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동의합니다.

○**임종성 위원**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개발 중인 물류단지가 31개소인데 수도권에 15개가 몰려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 광주시에만 운영 중인

물류단지가 2개소에다가 개발 중인 물류단지가 6개소 또 실수요 검증 신청 예정 물류단지가 1개소 등 9개 물류단지가 기초지자체의 한 지역에 쏠려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물류단지가 이렇게 한곳에 집중되는 이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수도권의 접근성이라든가 지가, 여러 가지가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종성 위원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지금 생방송 관계로 시간을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어정쩡한데……

○위원장 박순자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는 답변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 가고요. 이게 물류단지가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류가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통망이 제대로 갖추어져서 물류의 원활한 수송이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꼼꼼히 살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후보자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류 제출일이 1월 24일로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 보니까 24일이 맞습니다. 아까 20일경 말씀을 드렸는데……

○박덕흠 위원 인사검증 서류를 제출한 것이……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24일이 맞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고 나서 2월 18일 증여하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맞습니다.

○박덕흠 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게 청와대에서 주택 세 채를 갖고 있는 분한테 장관후보자 지명을 한 겁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저는 후보 중의 한 사람이었고요.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세 채를 갖고 있는 분한테 후보자 지명을 청와대에서 한 걸로 생각이 됩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후보자 지명이라고 말씀하셔서……

○박덕흠 위원 지명, 지명이라고 얘기……

그런데 지금 장관후보자님께서서는 팔려는 의사가 있었다, 그래서 투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팔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잠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내렸다는 말씀을……

○박덕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렸는데 저는 장관후보자가 되시니까 그러면 이것을 투기로 보느냐 투자로 보느냐, 어떻게 됐든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하시느냐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투기는 분명히 아니고요.

○박덕흠 위원 투기가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박덕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장관후보자에게서 내가 팔려는 의사가 있고 팔려도 안 나갔으면 투기는 아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알 것 아닐까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팔려는 의사가 분명히 있었고 작년에 내렸습시다만 또 가격도 한 번 더 조정해서 내놓고 있는 등 적극적인 매도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도록……

○박덕흠 위원 그래서 투기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가격 상승효과 또 가치가 있으면 투기입니다. 지금 현재 한 10억 정도 또 분양권은 7억 정도 이렇게 가격이 상승이 되었는데 그러면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것을 투기라고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해는 좀 하지만 어찌되었든 국토부장관후보자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장관이 되시면?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택시장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서민주거 복지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청문 과정에서 주신 질책과 고언 또 좋은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박덕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정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마음 깊이 유념하고 정말 국민이 원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박덕흠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국민들이 생각을 할 때 집을 세 채를 갖고 있어도 팔려고 해서 안 팔리거나 또 내가 이것을 세를 놓고 있다면 투기라고 하지 않는다 하면 이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아니냐……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렇게 일반화해서……

○**박덕흠 위원** 그리고 청와대 인사검증팀에서 이것을 투기로 안 보고 후보자를 지명을 했다 하면 사실 민정수석실, 청와대 검증팀은 전체적으로 사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생각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명을 한 인사검증팀이, 청와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관후보자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충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올해 연속 24%가 올랐지요, 공시가격이?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공시가격이 조정되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이때 감정평가사들을 불러서 내부적으로 구두지침을 주고, 그때부터 주먹구구식으로 깜깜이…… 징벌적 편법 증세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 같아요, 장관후보자님?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시가격은 60여종의 각종 세금이라든가 과세자료로 또는 복지 이런 부분으로 사용

되기 때문에 균형을 갖고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시행한 것이고요.

○**박덕흠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점은 알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동일 시세, 동일 현실화율을 통한 공평한 조세 부담 원칙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서울 서초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더 작음에도 공시가격이 더 높고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실거래가 없음에도 공시가격이 높게 산정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 산정 결과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지역별·유형별 명확한 기준과 또 원칙, 향후 목표치와 일정 등 객관적 로드맵이 필요해 보입니다.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면밀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박덕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양친갑 출신 황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짚고 가야 되는데 후보 지명 받을 때 3주택자였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지명 받을 때는 3주택…… 후보 지명과 좀 상황이 다른데요.

○**황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지요. 후보군으로 올랐을 때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후보 지명과 후보군 오른 것하고 지금 용어가 같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황희 위원** 구별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후보자 지명은 3월 7일, 하루 전이었지요.

○**황희 위원** 그때는 아니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후보군에 있을 때는……

○**황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듣는 사람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황희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를 2개를 요구했

습니다. 2차관 임명 시, 박근혜정부 당시 차관 임명했을 때 그 검증 자료가 혹시 국토부 내에 있느냐, 없다고 지금 답변이 왔어요. 아마 청와대 민정에서 했기 때문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바뀌서, 박근혜정부하고 이번 정부 때 인사검증 자료 제출을 했을 것 아닙니까? 좀 차이 나게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했을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황희 위원 차이 나는 자료가 있어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자료 중에?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황희 위원 없지요? 같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황희 위원 그다음에 또 한 자료는 뭐냐 하면, 제가 후보자께서 가지고 있는 서울 송파 그 주변 집값 변동률을 달라고 그랬더니 집 구매하고 초기 2년 사이에 막 엄청나게 50% 오른 적도 있어요, 그 뒤에 보면 한 4년 동안 한 20% 하락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많이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매각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거지요? 지금 16년, 20년 갖고 계셨다니깐.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제가 이렇게…… 가격이라는 게 장기간 보유하게 되면 구입 시점과 현재 시점 간에 가격 차이는 나게……

○황희 위원 그러니까요. 단기에 이익을 실현하는 게 투기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렇습니다. 그럴 의사는……

○황희 위원 그래서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때는 팔 생각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단기적으로 이익을 보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황희 위원 그러면 후보자님, 이러면 어때요? 지금 후보자께서 답변하는 게 애매하세요. ‘그때는 매각 의사가 있었다’, ‘매각을 하려고 했다’, 자꾸 이렇게 애매하게 답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종 집, 이제 곧…… 이게 언제 입주가 되는 거지요? 8월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금년 8월에 입주가 됩니다.

○황희 위원 그러면 분당은 증여했으니까 이제 없는 거고 지금 잠실하고 세종 2개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황희 위원 둘 중에 하나 확실하게 매각을 하시는 건 어때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지금……

○황희 위원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희 위원 장관이 되시기 전후, 지금부터 내놓고 정확하게 매각을 해서 1주택자가 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선언을 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하여튼……

○황희 위원 또 애매하게 했다가 뒤에, 나중에 매각하면 그것 또 이익 실현해서 부동산 투기했다고 몰릴 수 있어요. 아시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반드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희 위원 저도 정책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있지요? 유럽의 도시재생 모델을 보면요 우리랑 완전히 다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완전히 쇠락하고 망한 이런 지역을 도시재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지가도 완전히 다운되어 있어서 정부가 땅 가진 주인하고 같이 공동사업도 가능하고요 또 공공기여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지역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도시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별하게 한국형 도시재생 모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처 내에서 이런 것들을 꼭 고려해서 가지고 도시재생을 해야지, 지금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하는 도시재생 모델을 차입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종합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LH 공기업이라든가 각 부처의 사업 연계 예산을 다 모아 가지고 지금 도시재생 뉴딜 정책 사업을 추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는 과연…… 그중에서는, 부처 연계 사업 중에는 도시재생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 있습니다. 이러면 컨트롤타워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각 부처에 흩어진 예산들을 이런 식으로 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 사업의 당초 정책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예산을 모아서 한 주머니에 담아서 특별회계를 한다거나 컨트롤타워를 새롭게 세워 가지고 이것을 별도로 추진한다거나 심지어는 국토부가 주도가 안 되면 대통령 어젠다로 해서 추진한다거나 이럴 의사는 없습니까? 종합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먼저 말씀하신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가 개발이 되더라도 거기에 살던 분들이 계속 삶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임차인들 중요하다고 보고 상생 협약이라든가 주민이 직접 만들어 가는 도시재생 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한국형 도시재생 모델,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과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타워 문제 역시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도 도시재생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마는 그 컨트롤타워를 좀 더 보강해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용 위원** 오전에 이어서 코레일과 SR 통합 문제 좀 지적하겠습니다.

김현미 장관 취임하자마자 SR·코레일 통합하겠다, 검토하겠다, 또 TF까지 만들고 용역까지 맡기고 적극적으로 의욕을 보이면서 오영식 사장하고 같이 해 왔거든요. 그러다가 KTX 사고 나니까 지금 갑자기 용역이 중단됐어요. 저는 KTX 사고 때문에 용역이 중단된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도. 용역하고 그 사고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SR을 설립한 목적이 경쟁체제를 유도해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렇습니다.

○**주승용 위원** 지금 가만 보면 이게 경쟁체제입니까? 수서역에서는 SR만 출발하고 서울역이나 용산역에서는 코레일만 출발하고, 이건 경쟁체제가 아니에요. 수서역에서 코레일도 출발하고 SR도 출발하고, 서울역·용산역에서도 SR도 같이 다니는 게 경쟁체제예요. 오히려 이건 지금 현재는 독점체제예요.

지금 이렇게 분리 경영으로 해 가지고 열차 배차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어 가지고…… 코레일 자료에 의하면 열차 배차를 통합 운용했을 때는 KTX 영업 수익이 한 3200억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광고료 같은 것에서 263억의 중복 비용이 발생한다 해 가지고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SR의 경우는 KTX만 유지하기 때문에 완전히 황금알을 낳는 수익을 내고 있어요. 반면에 코레일은 지금 일반열차와 화물열차를 운용하다 보니까 일반열차·화물열차로 인한 손실이 연간 한 5000억 이상 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KTX에서 한 4000억을 벌어들인다 하더라도 5000억이 적자가 나고 있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저는 이것이……

SR이 지금 코레일 지분을 한 41%인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주승용 위원** 이걸 지금 어떻게 보면 집안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부당하다…… 차라리 수서역에서도 코레일을 운용하세요. 그리고 서울역·용산역에서도 SR을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경쟁체제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용역 계속하세요. 용역 해 가지고 용역 결과를 받아 보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지금 사고 이후에 용역이 중단됐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용역의 적정 재개 시점 이런 것 한번,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면밀히 살펴서……

○**주승용 위원** 용역비가 얼마예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용역비용은, 제가 정확한 금액은……

○**주승용 위원** 막대한 용역비 들여 가지고 왜 중단합니까, 사고 났다고? 일단 받아 보시고,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이것은 경쟁체제가 아니에요. 자회사하고 지금 집안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감사원 감사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주승용 위원** 그리고 지금 전라선이 수서역에서 출발하지 않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주승용 위원** 그래서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어요. 강남에 살고 있는 전라도 사람들은 서울역·용산역까지 오는 데 30분 걸리고 또 수서역이 용산역이나 서울역에서 타는 것보다도 운임이 2800원이 싸요. 그러니까 수서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서울역·용산역 이용하는 사람보다 2800원 더 싸게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라선을 이용하는 분들은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시간에서 손해 보고 비용에서 손해 보고.

전라선이 지난 5년간 통계를 보면 2012년도에는 176만 명이 이용하다가 작년엔 664만 명이 이용해서 487만 명, 4배가 증가했어요. 전라선이 주말에는 표를 못 구해요.

제가 그동안 수차례 국토위원회에서 질의를 했는데 코레일과 SR 통합 문제 질의하면, 전라선 수서역에서 운용하자고 그러면 ‘코레일과 SR 통합되고 나서 검토하겠다’ 그렇게 답변했고, 또 우선 차량이라도 증차해 달라고 그러니까 ‘평창동계올림픽 끝나면 거기서 남는 차량을 이용해서 전라선에 투입해 주겠다’, 장관한테서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지금 평창올림픽 끝난 지가 1년이 됐어요. 그런데 아무 진척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방법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 박순자** 추가질의하시지요. 지금 생방송 중이어서……

○**주승용 위원** 추가질의 안 할 테니까 30초만 주십시오.

○**위원장 박순자** 아닙니다.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시간을 지켜 주셔야 됩니다. 추가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주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인사청문회 중에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여야 위원님들을 격려하러 오셨습니다. 홍영표 위원님은 안 오시는지……

(웃음소리)

(「장관 답변은 들어야지요」 하는 위원 있음)

답변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주승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KTX의 서비스지역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질의하신 전라선에도 수서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위원** 충남 아산 출신의 강훈식입니다.

장관후보자님, 방금 주승용 위원의 답변에 열차를 늘려보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늘리려고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평택하고 오송간이 늘리기에 물리적으로 지금……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용량의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강훈식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 특히 물류 이런 전문가이신데, 그래서 평택-오송 간은 복복선화 하겠다는 거고 이번에 23건의 예타 면제 사업에서 중앙정부가 제출한 예타 면제 사업으로 평택-오송 간 사업이 올라와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맞습니다.

○**강훈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나와 있던 주승용 위원의 표처럼 KTX가 수익도 나고 여러 가지 다 도움이 되는데 열차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가 병목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놓은 겁니다.

제가 몇 가지 물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실 것 같아서요, 간단간단하게 물겠습니다.

이게 최초에 시작할 때는 우리가 국가 재정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민자사업으로 했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맞습니다.

○**강훈식 위원** 민자사업으로 했을 때 지금하고 사업방식이 같았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민자사업자는 또 제한을 하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훈식 위원** 다른 사업으로 시작됐었지요? 지금은 지하로 가는 사업인데 그때는 지상으로 올라왔던 사업입니다. 기억하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강훈식 위원** 그런데 민자사업이 민간사업자들의 입장에서 수익이 나는 것이 목적인 텐데 지보다 지상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왜 지상으로 했을까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훈식 위원** 어떤 측면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주민, 고속철도 이용하는 분들한테 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서비스가 더 좋아질 것인가 이런 측면 또 비용 측면, 여러 가지가……

○**강훈식 위원** 민간은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랬을 겁니다.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지상으로 올려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취지로 민간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강훈식 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정부가 하는 예타 면제 사업은 지하로 하고 더 많은 질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더 값싼 것을 추진했던 말입니다. 실제로 지하가 지상보다 더 싸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강훈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상한 것 같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도 SRT와 이런 여러 가지의 관계 또 민간사업 분야의 관계에서 안전의 문제라든지 또 재정의 측면을 다 고려해야 된다는 아주 원칙적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은 오히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예타 면제 사업은 아주 기능적으로만 추진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드립니다.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돈이 막대한 규모가 더 든다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겠습니다마는 돈이 조금 더 이렇게 늘어난다고 해서 그 대안이 안전이라든가 국민편익 측면에서 좋음에도 불구하고 돈 조금 아끼기 위해서 차선, 나쁜 안을 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상역, 지하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비교·검토하고 최선의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식 위원** 지난번에 대정부질의 때 제가 총리한테 이 질문 했었고요. 총리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국토부가 아직 이런 의견을 따라오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이후에 후보자님이 장관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해서 올 상반기에 있을 또 하반기에 실시설계까지의 과정에서 이런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식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쨌든 후보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오늘 뭐 오전 내내 한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밖에 없었고요, 나머지는 다 인정하는 전문가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전북 정무부지사로서 정무감까지, 국토부장관 하기에는 필요한 정무감까지 익혔다고 보는데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전북의 부지사 하면서 국토 균형발전 본인이 느끼실 때 어떤 문제였다, 단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어떤 문제였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정말 절실하다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강훈식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가 원룸 평균 월세가격 혹시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서울에 있는 원룸 가격이요?

○**강훈식 위원** 예, 주택가, 그러니까 대학교, 대학가 중에 원룸 평균 월세가격…… 모르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상당히 대학생 부담 수준을 좀 넘어가는 수준이 아닐까……

○**강훈식 위원** 52만 원인데요, 아주 심각합니다. 청년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장관이 되시면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강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 국회가 상임위, 본회의에서 정부에 정책 권고를 할 때가 많은데 컷등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직접……

○**정동영 위원** 안 되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정동영 위원** 그런데 그것도 국회 본회의가 국회 결의로 전라선에 SR 투입해라, 금방 아까 주승용 위원께서 아주 적절하게 지적했는데 현재 이것은 국토부나 철도공사 또는 SR 편의를 위한

거지 이용자 편익, 국민 교통편익은 뒷전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통합은 통합이고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가치는 국민의 교통편익을 우선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맞습니다.

○**정동영 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전북에서 정무부지사 해 보니까 균형발전 정말 절실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중앙부처에 있을 때는 못 느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것보다 더 절실하게 느낀 바가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균형발전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교통이 뚫려야, 사람이 오고 갈 수 있어야 그다음에 돈이 오든 물자가 오든 사람이 오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바로 교통 전문가가 또 지역의 그런 실정까지 다 파악하신 입장에서 장관이 되시면 최우선적으로 이 문제 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SR과 코레일의 통합 이전이라도 차량 문제만 해결된다면 또 면허 문제가 있으니까 그 관계가 코레일, SR 간에 원만하게 협의가 된다면 못 넣을 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니까 맡겨 놓지 말고 장관이 의지를 가지고, 방법은 나와 있잖아요. SR에 가서 KTX 영업을 하도록 면허를 주든지, 아니면 SR에 차를 빌려주든지 그것은 실무적인 문제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교통편익 이게 최우선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동의하시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꼭 최우선 과제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토지 문제 이런 얘기 나왔는데 하나 확인할 것은 현대자동차가 부동산 회사입니까, 자동차 회사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자동차……

○**정동영 위원** 자동차 회사지요? 그런데 현대가 강남에 10조 5000억을 주고 땅을 샀어요, 10조짜리. 그런데 강남에다가 자동차 생산라인을 깔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지어 가지고 임대업을 하려고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현

대만이 아니라 지난 10년간 통계를 보니까 30대 재벌이 계열사에서 사들인 토지가, 작년 국감에도 문제가 됐어요. 2007년에 8억 평이었던 것이 2017년에 18억 평으로 늘었어요. 10억 평이 늘었어요.

대기업의 일자리가 안 는 것은 말하자면 대기업들이 생산에 투자하고 뭔가 일자리 창출에 쓴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에 골몰한 결과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토부가 방조한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 5대 그룹을 보니까 현대, 삼성, LG, SK…… LG인가요? 2007년에 이 5대 그룹의 기업이 220개였는데 2017년에 350개로 늘었어요. 계열사가 130개 늘었는데 130개 대부분이 부동산 관련 회사예요,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관리회사, 부동산 운영회사.

재벌그룹이 무슨 투자에, 제조라든지 고용 창출 대신에 전부 토지로 달려든 거예요. 그게 딱 증명이 됐어요, 10년 동안. 그런데 이게 뭐냐? 국토부가 방조했어요.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 버렸어요. 이것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관의 소신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기업은 말씀하신 대로 고용 창출과 또 경제활동 이런 것에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 게 아니라 국토부가 바로 관장 부서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공장용지에 대해서는 세금 매기면 안 되지만 공장용지 말고 투기용 목적으로 전국의 땅을 10억 평이나 10년 동안 사재기했는데 이걸 명백한 정책 실패고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섰으면 이걸 개혁해야지요. 그러니까 새 장관께서 오셔서 이것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처 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말하자면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오전에 하는 걸 보니까 김해신공항 관련한 논쟁을 보면 민주당에도 김부겸 행안부장관과 박재호 위원님의 견해 차이가, 다르고 또 여러 가지가 달라서 정말 바위 같은 원칙과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포항 지진 관련한 것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지진은 기상청, 그다음에 산자부의 지열발전과 관련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또 국토부 관련해서 건물이나 여타에 대한 국가배상의 문제가 또 논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표를 하나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은 저 표에 보면, 한반도 단층대와 지진 발생 현황을 보면 저 그림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활성단층의 가장 중요한 고리에 대한민국의 원전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을 보면 이번에 지진이 일어났었던 포항을 중심으로 바로 활성단층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지진대의 맨 끝이 포항이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 지역의 지열발전을 2010년에 결정했고 2015년 10월에 시추 두 군대를 했습니다. 지하 3800m, 3.8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6년 1월에 물을 주입을 했는데 물을 주입하고 나서—포항지역에는 지진이 없었습니다, 이전에—그런데 규모 2.1의 지진이 났고요. 2016년 12월에 2차 주입을 하고 그에 따라서 2017년 4월 15일에 규모 3.1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2017년 11월 15일에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가에서 발표한, 지열발전에 의한 물 주입에 의해서 지진의 원인일 수 있다라고 하는 조사 발표 때문에 포항지역의 시민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열발전에 참여했던 사는 스위스의 바젤 지역에서 지열발전을 통해서, 저런 굴착공사에 의해서 규모 3.1의 지진이 나면서 지열발전을 중단했던 회사가 대한민국에 와서 저렇게 또 다른 기술사로서 참여하게 된 사항입니다.

물론 국토부가 주관사는 아니지만 저렇게 2010년부터 17년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후에 우리나라의 활성단층지역 여타 지진과 원전 문제하고

다 같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국토의 종합관리 에 관한 국토부의 입장을 세울 필요가 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영진 위원** 잘 살펴 주시고요. 정부 차원 내에서 전체적인 협업이 필요하고 포항시민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두 번째는 신분당선 연장선 관련해서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보기에 차관님께서 국토부에 계실 때 아마 있었던 일인데요, 전체 20km 구간 중에 고등어의 가운데 토막만 딱 먹고 나머지 10km 꼬리와 머리 부분만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은 B/C가 1.0이 나왔습니다. 당초에 20km를 다 했을 때는 2006년, 2012년 두 번에 걸친 타당성 조사에서 1.0이 넘어서 20km 공사를 1단계·2단계로 하기로 했던 것을 2012년 기재부에서 민간 투자로 넘겨 버리면서 딱 고등어의 가운데만 남기고, 먹고 꼬리와 머리를 버렸습니다. 그게 1.0 나오겠습니까, 장관후보자께서 생각하시기에?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예타 면제 관련한 부분을 했는데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정부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존중하지만 정말 그 과정에 관한 부분들을 국토부와 기재부 간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만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기재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1월에 기재부에 예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현재 주택이 전체 1900만 가구 중에 자가 보유율이 56%, 무주택 비율이 44%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2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의 주택 정책이 무주택 44%에 대해 정책을 집중하고 나머지 2주택 이상에 관해서는 적절한 조치에 의해서 그것이 투기의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삶의 수단으로 변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향을 잘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권 위원** 대전 중구의 이은권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는 자기 표절에 대해서, 논문 표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서도 답변이 ‘인용 표시는 했습니다마는 여러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했고 또 ‘열심히 논문을 쓴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것은 제가 표절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이은권 위원** 그렇게 답을 하셨는데 본인 입으로는 ‘그거 표절입니다’ 딱 부러지게 얘기는 못할 테고 그렇다면 제가 그게 표절이라고 질문을 해도 ‘예’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분명히 미흡한 부분은 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은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후에는 타인에 대한 표절 부분을 질의를 하려고 했었고 또 마지막에는 참고문헌에도 없고 각주도 없는 부분을 해서 표절 부분을 밝히려려고 했는데 후보자가 인정을 하니깐 안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이은권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은권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다음은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위원** 역시 이은권 위원님, 존경합니다. 존경할 만해요, 제가 멋있습니다.

오전에 국토교통부의 미세먼지 또 초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부 자료에 보니까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와 매연이 수도권—전국이 아닙니다, 수도권입니다—미세먼지 가운데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유차 23%, 건설기계 등이 16%, 사업장 14%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런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약 266만 대의 노후 경유차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해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수도권 지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 위원**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자동차 정기검사도 반드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통해서 보통 안전 적합 여부 그리고 또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확인하는데요, 작년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114만 대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10년이 넘도록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무려 60만 대가 넘습니다.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이 많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일부 민간검사소의 부실 검사의 문제입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분명히 불합격받은 차량도 민간검사소에 가면 무조건 합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후보자께서 국토부에서 오래 계셨고 교통 분야를 총괄하는 차관도 역임하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 위원** 알고 계시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미수검 차량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도 상향하고 민간검사소의 합격률이 부실 점검으로 인해서 높은 것 역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점검을 철저히 하고 그렇게 부실 점검하는 민간검사소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해서 시장에서, 지정에서 해제하는 등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철민 위원** 광역교통위원회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올해 3월 달 직장인

1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하루 평균 출퇴근 시간이 1시간 43분이었습니다. 물론 후보자께서 낸 내용을 보니까 90분으로 말씀하셨는데 매일 214만 명 직장인들이 출퇴근 지옥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알고 있을 테고요.

이러한 출퇴근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신설되어서 지난주에 출범한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 위원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광역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광역교통위원회가 출범된 것은 정말 광역교통시스템을 개선하는 획기적 계기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주요 축별로 출퇴근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부터 빠른 속도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런 계획을 먼저 세우고 빠른, 속도감 있는 시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철민 위원 지역적인 말씀을 드려 가지고 조금 격에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안산이나 시흥 같은 경우에는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버스를 한 번 타려면 50분, 보통 1시간씩 걸립니다. 이런 문제가 문제되는데 안산이나 시흥을 비롯한 타 지역에 비해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서남부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광역교통위원회가 출범이 됐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법상 위원회 업무에는 광역대중교통수단 중 광역버스만 명시되어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 위원 철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철민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수도권 직장인들 출퇴근 이용 수단을 보면 버스-지하철 환승이 32.4%, 지하철이 29%가 넘습니다. 이런 설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철도는 직장인들의 중요한 출퇴근 수단인데, 이런 광역교통위원회 업무에 철도가 빠져 있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차

후에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광역교통위원회 업무 범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철도까지 연계시킬 의향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출범했기 때문에 향후 시행 과정에서 조금 더 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욱 위원 연수를 출신 민경욱입니다.

후보자는 전체 재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대략?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지금 부채가 있고 해서 최근에 재산신고한 건 한 4억 정도 됩니다.

○민경욱 위원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게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구입가만 따져도 이렇게 많고 현재 실거래가 따지면 엄청나요. 시세 차익만 해도 25억이 되는데 아니, 이런 분이 지금 재산이 4억이라고 그렇게 등록할 수 있는 것도 큰 재주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재산은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현재 재산등록 규정상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되어 있고요.

○민경욱 위원 공시지가라도 그렇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여기에는 제가 갖고 있는 부채가 빠져 있기 때문에……

○민경욱 위원 알고 있지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아파트를 세 채나 가질 수 없고 아파트 세 채가 졌다면 재산이 그렇게 적을 수 없다는 게 일반 상식입니다.

그런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아파트 세 채나 갖고 있었고 시세 차익이 25억 되는데 재산이 4억이다? 이게 지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라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투기라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시세 차익은 현재 실현되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민경욱 위원** 실현되지 않았지만 내놓으셨지요. 팔려고 내놓으셨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민경욱 위원** 그게 팔리기만 해도 시세 차익이 바로 실현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다음에 분양권요. 분양권은 주택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저희가 주택으로 치고 있습니다.

○**민경욱 위원** 그걸 정하는 게 국토부인데 아까 보니까 그걸 부정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중부세하고 갭 투자 금지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이후에 거래절벽 현상까지 보이고 있는데 후보께서는 장관이 되시면 9·13 부동산 대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실 것인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지금 주택 시장에 안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유지하겠습니다.

○**민경욱 위원** 갭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건데 본인이 재건축 또 갭 투자로 10억 원 이상 시세 차익을 얻었는데 재건축 규제를 풀면 안 된다고 하면 국민들께서는 이거야말로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저는 갭 투자라고 생각지 않아요. 갭 투자는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민경욱 위원** 한 번도 거기 사시지 않고 전세자만 계속 바꾸셨는데 이걸 갭 투자라고 안 하시면 갭 투자가 뭐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매도를 못 한 게 지금 큰 저의 실패라고 생각되고 실수라고 생각되고……

○**민경욱 위원** 그렇지요? 그럼요, 그럼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동안 제 주거 환경이 고착되다 보니까 또 전세금은 계속 올라서 그 전세금을 활용해서 학자금이라든가 생활비로 쓰면서 고착된 면이 있어서……

○**민경욱 위원** 국민들께 물어보면 국토부장관후보자가 집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에 세 채나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없다고 답할 사람이 몇 분

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경욱 위원** 맞습니다.

국민들에게 투기를 하면 안 된다고 발표하고 그걸 독려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건 제가 여러 차례 반성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정리하고 있고 그래서 세종에 8월에 입주할 때는 완전히 1주택자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경욱 위원** 장관이 안 됐어도 세종시에 살려고 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민경욱 위원**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서 우리들이 알아들어야 되지요? 자식들 때문에 잠실에 있는 것도 입주하려고 했다가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분 아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건 제가 잠실 집을 작년부터 이미 내렸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도 가격을 낮춰서 내렸고 이게 바로……

○**민경욱 위원** 수십 년 동안, 15년 전에 들어가서 살려고 했는데 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종시에도 장관이 안 되셨으면 거기에 가실 일이 없을 텐데 그걸 믿기가 어렵다는 얘기고.

김연철 지금 통일부장관 SNS 막말이 있었는데 총리가 얘기했습니다, ‘막말 사실 알고 있었다, 그래도 다른 후보들보다는 그중 나왔다’. 유시춘 EBS 이사장 있어요. 아들이 마약사범, 그걸 모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청와대에 알렸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그래도 그중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최정호 후보 여러 가지로 존경할 만한 분이지만 주택 세 채 보유사실을 청와대가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중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최선은 아니고 하지만 최악은 아니었지 않느냐, 차악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른 후보들한테 큰 모욕이 될 텐데 최악은 피한 차악이었다, 이 정부의 인재풀이 이렇게 빈약한가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하고 최선이 아닌

차악의 인물들을 장관으로 맞아야 하는 국민들은 큰 모욕감과 좌절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민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호 위원 후보님, 요즘 중소기업들이 일이 잘 안 되지요? 그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집 사고 땅 사면 돈을 버는데 뭐 하려고 일하겠습니까? 젊은 애들은요 요즘은 투자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집도 없고 살 방법이 없거든요. 월급 받아 가지고 1년에 오르는 전세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투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상화폐에 몰두하는 겁니다, 젊은 친구들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값을 안 잡으면 진짜로 큰 문제가 납니다, 사회적으로. 일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그렇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맞습니다.

○박재호 위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는 있는 사람을 걱정합니다. 깡 투자를 했든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을 걱정할 게 아니에요.

전세금이 삼사억, 이삼억, 전 재산을 털어 넣었는데 뽑아 나가려고 하니 집이 안 나가요. 그런데 주인은 제값만 받고 나가지 안 돌려줍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른 집을 계약을 해 놔는데…… 지금 우리는 이야기를 전부 다 있는 사람만 이야기 해요. 진짜 없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또 젊은 애들 돈 일억 전세 걸어 놔는데 집을 못 빼요, 만기는 지났는데. 옛날에 오를 때에는 5000만 원 더 올려 주라 이러니까 답이 없고 지금은 돌려받으려고 해도 못 받아요, 그것도 극소수지만.

대신에 이 문제가 보증도 있고 이렇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지금 집값이 좀 내려가니까 주인들이 제값을 안 줘요. 낮게 안 팝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강제 조치할 방법이 없는지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 제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증보험……

○박재호 위원 그게 6개월, 1년 걸려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젊은 애들은요? 그리고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자기들이 돈 올라갈 때는 안 주면 그냥 바로 쫓아내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것도 만약에 안 주면 강제 공매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형평성이 맞지요.

자본주의에 깡 투자해서 돈을…… 아니, 그렇게 좋아하는 민주자본주의에 돈을 벌려고 했으면 손해를 봐도 자기 책임을 져야지요. 왜 책임은 안 지면서 올릴 때는 마음대로 올리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법으로 고치든 어떤 방법을 연구하든 한번 해서, 저희 의원실에서도 하고 있지만 혹시 장관되시면 한번 연구를 해서 이 문제는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임차인 부분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함께 좋은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재호 위원 이게 내려갈 때 더 급합니다. 지금 계속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모든 언론에서는 ‘깡통 전세가 깡투자’ 이러는데 그 사람들 걱정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없는 서민들을 더 걱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요. 4대강 사업부터 국토부가 10년 임대주택 문제도, 5년 임대주택하고 기준이 다른 것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압니다.

○박재호 위원 이 문제가, 12만 호가 앞으로 분양될 게 남아 있어요. 엄청난 큰 민원이 제기될 겁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무슨 정책을 내놓으면 잘못했다 소리 한 번도 안 합니다.

국토부가 아무리 위에서 결정을 해서 했다 하더라도 국토부 공무원들이 그때 당시에 장관이 아닌 사람은 실무 일을 했기 때문에 잘못은 없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이런 실수를 했다는 이야기 한번 해 본 일 있습니까? 없지요? 국가정책은 무슨 지고지순한 정의입니까? 한번 결정해 놓으면 끝까지 가야 됩니까? 잘못하면 고쳐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공항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덕도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김해공항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고 그 돈을 투자한 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또 국가 전체를 봤을 때 과연 이게 백년 대계를 위한 것이냐, 또 지금 중국이나 인도 관광객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인천공항 하나 가지고 되느냐, 또 대구도 공항이 있어야 되지만 부산도 공항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지 어떤 지역감정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울·경 검증단의 해석을 가지고 장관님께서 잘 검토해 보시고, 진짜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서로 의견이 안 맞을 때는 총리실 가서 확실한 검증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하여튼 지역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고 이견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사업을 탄탄하게 하는 데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호 위원 그렇지요. 어떤 사업이든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게 지금 현재 다시 문제가 제기된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도 또 그 지역주민들도 서로가 함께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순자 후보자, 답변 다 하신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인사청문회 중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님께서 위원님들을 격려하러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홍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호 위원 후보자님, 개인적으로는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저하고 같은 개띠시기도 하고요.

(웃음소리)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렇지요? 낡은 세대고요. 이런저런 사적 문제만 없으면 저 정말 이렇게 훌륭한 장관후보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제가 이런저런 사적인 문제 가지고서 많은 질의를 해서 지금은 전문성과 관련된 것 좀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국토부 견배사 혹시 뭔지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홍철호 위원 국토는 아름답게 교통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편리하게.

○홍철호 위원 편리하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홍철호 위원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이 뭘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가장 좋은 게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서비스고요.

○홍철호 위원 가성비가 높은 거겠지요, 그렇지요? 가성비가 높은 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홍철호 위원 그게 이룰테면 투자비가 좀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지하철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홍철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미세먼지가 아주 전 국민의 관심사고 특히나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 세대들한테는 더욱더 그렇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도심에서는 22%가 차량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라는 건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런 통계 들었습니다.

○홍철호 위원 이미 알고 계시네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알고 있습니다.

○홍철호 위원 이거 국토부도 관계가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홍철호 위원 이거 해결할 수 있는데 국토부도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홍철호 위원 자료를 제가 숫자로다가 이렇게 꼭 말씀을 안 드려도 지금 현재 하는 대로 하면요, 266만 대 이거 전부 다 지원해 가지고 5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시키려면 16년 이상 걸립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줄여 가는 것도 하고 그리고 이 지원사업 줄여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줄이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대안이 지하철이고 김현미 장관 하실 때 저하고 이 문제 가지고서 많은 대화를 나눴고 김현미 장관이 결국은 2기 신도시에는 서울지하철 5호선을 예타 방식 개선한다든지 해서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혹시 인계 사항으로 들으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홍철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지방 균형발전 제가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 김포 한강신도시가 1조 8000, 인천 검단신도시가 1조 1000억, 합치면 3조나 냈단 말입니다. 이렇게 3조나 냈는데도 안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신도시 입주민들은 이제 반환 소송이라도 낼 태세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장관님이 되시면 가장 최우선 과제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홍철호 위원** 그러기 위한 툴(tool)도 있어요. 광역교통위원회 만들었지요. 그리고 기재부하고 예타 방식 개선 지금 분담금 낸 것들은 어떻게 할 건지 4월 달까지 개선방안 마련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꼭 좀 관심 가져 주십시오. 관심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이것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김포-한강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적극적으로 추진……

○**홍철호 위원** 이름도 바꿨습니다, 김포-한강선으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알고 있습니다.

○**홍철호 위원** 이것은 GTX 관련된 건데요. 이게 서면질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한테 꼭 좀 직접 여쭙봐 달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GTX-A 기본계획 노선 수립할 때 말이지요, 주택가 직하부를 통과하는 주택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들 중에 대다수는 다 우회노선으로 반영을 해 줬대요. 그런데 청담동 4500 주민이 관련이 있는 이 노선 이 통과 구간은 지금 우회노선이 가능한데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회노선 반영을 안 하려고 그러고 있다 그러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알고 있습니다.

○**홍철호 위원** 이것도 좀 한번 면밀하게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은 편리하고 더불어서 안전해야지 편리만도 안 되고 안전만도 안 되는 거니까 2개가 다 충족될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의 관심사항 중의 하나로 이거 꼭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잘못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하여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그런 방안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홍철호 위원** 김포-한강선 해 주신다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홍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후보자님, 오전 답변과 조금 전 답변에 차이가 있는 점이 있어서 먼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오늘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오전 질의 때는 박사논문을 쓴 광운대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이게 표절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제출했다고 했고 본인이 일부, 예를 들어서 각주나 출처를 정확히 표시 안 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좀 미흡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런데 지금 오후 답변에서는 또 표절이다, 자기 표절이다 이렇게 답변하셔서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작성 당시에는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인용부호도 나름대로 붙였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광운대에서는 표절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게 규정에 명백하게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표절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규정에 어긋나서 그게 표절이라고 규정상 된다면 제가 표절이라고 인정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표절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만 규정상 표절이라고 판명이 된다면 저는 그것을 수용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박홍근 위원** 규정이나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전제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표절 부분도 기존의 국토연구원에서 썼던 것을 유사하게 하려고 했는데 각주를 또 표기를 했던 게 있고 또 다른 연구와 관련해서도 보니까 보통은 단순한 법령 사항이나 지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출처가 없더라도 표절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게 학계의 실입입니다, 분석입니다,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답변하시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감사합니다.

○박홍근 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하다가 좀 끊었는데요.

그래서 그 많은 유동 자금을 투자처로 잘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이나 금융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국토부와 관련된 게 제가 보기에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츠나 클라우드 펀딩과 같은 그런 어떤 사업에 또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것은 이미 선진국에서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자본을 끌어당겨서 재원을 확보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하는 이런 방법도 좀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러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리츠도 활성화하고 또 도시재생과 연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특히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이런 금융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건축이나 설계에 대한 부분, 뭐 다양한 행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윈스톱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실제 성공 사례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각기 추진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장관이 되신다면 도시재생에 대한 종합상담 지원서비스를 구축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잘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조속한 기간 내에 설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임차인 권리 문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자세한 사항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고요.

다만 등록 임대주택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보니까 이게 임대료 5% 이내로 제한하는 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4년에서 8년간으로 해 주는 거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던 것은 그만큼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 아니었어?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임차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잘 몰라요. 고지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의 주소지 정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임대주택인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 5%로 묶여 있는지, 몇 년이 보장되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맞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런 방법을, 국토부가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서 임차인들에게 그런 자신의 권리를 안내하거나 또 임대인에게 고지확인서를 받아 오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등록임대주택이 혜택을 받는 만큼 임차인의 권리 보호라든가 전세시장의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지키는지도 저희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최근 세금을 체납한 집주인한테 돈을 떼이는 세입자 문제, 기사 봤을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박홍근 위원 이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안산에서 공인중개업소 중개보조원 사기 사건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 허점들이, 곳곳에서 임차인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관련해서 가령……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약 시에 집주인의 납세사실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거나 예를 들어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아예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아무튼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인사청문회 중인데 위원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신 홍영표 원내대표님이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상생과 조화의 도시 이천시 지역 출신 송석준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아까 영남권 신공항 관련해서 종전에 관여하셨었고 또 오랜 갈등 과제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소신을 유지하시고 또 그것을 정부 내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견지를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신과 업무적 양심에 따라서 흔들림 없는 행정의 일관성 있는 추진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 내용 들어 보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물관리 일원화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국토부에 있던 수자원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게 잘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정부 방침으로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또 국회의 합의를 통해서 법도 개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게 왜,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또 어떤 배경에서 추진됐는지 혹시 들어 보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제가 상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송석준 위원** 아마 그러실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국회 내에서 물관리 일원화라는 이름으로 애초에는 수자원뿐만이 아니라 하천 관련된 모든 업무를, 물 관련 업무를 국토부에서 떼서 환경부로 이관하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극력 거기에 대해서는 부당성을 주장하고 노력을 했지만 역부족으로, 하천은 막았지만 수자원 업무는 어쩔 수 없이 넘어갔습니다. 저는 이 자체도 굉장히 기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대로 수자원, 하천이라는 것은 국토의 일부입니다. 국토의 구성은 이렇게 토지라는 근육계가 있다라고 하면 또 주요한 시설, 선적인 도로망이라든가…… 산맥 같은 골격계도 있지요. 그리고 도로망이라든가 각종 인공적 구조물에 의

한 신경망도 있고 또 거기에 혈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바로 하천이나 물이야말로 혈관계요 인체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임파구, 이런 여러 가지 국토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라고 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문이 인위적으로 떼어져서 환경부로 넘어갔어요.

그 배경에는 한강, 4대강 재자연화 추진 시민 위원회라는 여러 개의 단체들로 구성된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4대강 정비가 잘못된 것이다, 지난 정부의 적폐다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4대강을 재자연화하겠다, 다시 말해서 금모래·은모래, 우리 어릴 때 뛰어놀던 자연의 하천 모습으로 다시 되돌리겠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일거리는 생기겠지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순진한 생각에서는 요즘 정말 바뀐 이런……

홍수와 가뭄 빈도가 심해진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알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과거에 전례 없는 강도 높은 홍수와 또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배려는, 고려는 이분들이 과연 얼마나 했는지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서 이분들은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축조한 보를 허물겠다고 합니다. 최근 벌써 이 정부 들어서 환경부에서는 보 허물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보 허물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환경부 조사평가단에서 종합적인 자문 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석준 위원** 이렇게 전문가들 판단이고 지금 아직은 입각을 하지는 않은 상태니까 말씀하시기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 내의 여러 가지 의견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경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 허물기는 단순히 물관리라는 차원을 넘어서 하천 전체가 하나의 맥으로 연결되어서 보와 하천 제방 정비, 준설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보만 일방적으로 허물게 되면 그동안 제방 축조할 때의 안전 문제 그리고 또 준설과의 여러 가지 연관성이 논

리 적용 가능성 없이 따로 놀다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 허물기는 단순히 보로 인해서 물 문제를 야기하고 홍수 문제 이런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떠나서 종합적인 문제로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위원장 박순자 송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 순서를 바꿔 주셔서 서형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현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憲昇 위원 후보자님, 조양호 회장의 딸 조현민 씨가 항공법령을 위반해 가지고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된 것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알고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이 과정에서 국토부가 진에어의 위법 사실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하고 면허 변경을 세 차례나 발급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세 번째 면허 변경할 때 그 당시 후보자께서는 제2차관이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맞습니다.

○李憲昇 위원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도 방조 책임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작년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퇴직자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련 공무원들 그 위법한 행정처리 혐의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 위법 혐의가 사실로 확인이 되었다면 재취업 제한 인사자료로 활용되어 가지고 아마 장관후보자로 지명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후보자께서 다시 장관으로 국토부에 복귀를 하시게 되면 해당 문제와 관련된 책임자로서 조사받고 징계받을 수 있는 공무원 신분이 되는데 본인과 관련된 그 진에어 위법 처리 관련해 가지고 스스로 조사하고 적절한 처분을 내릴 의향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제가 그때 2차

관으로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러면 본인은 전혀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李憲昇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그때 정확하게 조사가 되었다면 사실 지금 장관으로 임명되기도 아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현황, 그 당시 후보자께서는 분당에 집이 있었고 또 배우자께서 잠실 집을 16년간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 번도 살지 않았지만요. 두 채나 장기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굳이 2016년도에 이것 특별공급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때 제가 세종에 사무실도 있었고 또 거기에……

○李憲昇 위원 그 내용은 잘 알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 경쟁률이 15 대 1인가 됐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것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李憲昇 위원 사실 매우 치열했는데, 제가 즉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 차관급 이상 자료를 보고 싶었는데 자료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형구 차관이라든지 맹성규 차관 이런 분이 분양을 아마 안 받았을 거예요. 현재 박선호 차관도 신청을 안 했는데, 2016년도라면 그 당시 차관이 길어 봤자 1년, 2년인데 2년 후를 대비를 해 가지고 분양받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차라리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더 맞지요. 15 대 1로 치열했다면 본인이 신청 안 했다면 후배들 중에 누군가가 그것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세 채에서 한 채를 줄이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따남에게 증여를 하셨지요? 그 당시 자료를 보니까 3000만 원 전세계약금 이것 현금으로 보냈습니까, 아니면 통장으로 보냈습니까? 정확한 기록이 어떻게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온라인으로 보냈습니다.

○**李憲昇** 위원 온라인으로 보냈으면 기록이 남아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남아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월 160만 원으로 계약을 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맞습니다.

○**李憲昇** 위원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보면 정말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녀분은 가만히 있는데 집도 생기고 월 160만 원씩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썩 먹고 알 먹고, 이렇게 좋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혹시 딸 부부가 지금 그 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지금 전세 살고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전세 살고 있어요? 집은 없네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李憲昇** 위원 그러면 따님이 의학전문대학교 졸업을 했는데 혹시 의사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지금 레지던트 하고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사위분의 직업도 있으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같은 병원에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러면 두 분이 다 본업이 있으신데, 그러면 지금 현재 어쨌거나 160만 원씩 임대소득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 혹시 임대차계약서 해 가지고 신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그냥 받아도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서는 제가 할 사항은 아니고……

○**李憲昇** 위원 소득신고 할 때는 이게 되어야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수증자가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李憲昇** 위원 그리할 계획이 있는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려 깊지 못해서…… 제가 증여를 하고 그 집에 사는 게 지금 생각하면 생각이 좀 짧았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 당시에,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세종으로 이사 가기 전까지 불과 몇 개월을 살아야 되는데 통상 2년으로 계약하는 다른 집을 찾기가 쉽지 않은 면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설사 지금 이 집에 살지 않더라도 수증자는 누군가 세입자를 구해서 그만한 월세나 전세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하신, 시중에서 얘기하는 꿈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李憲昇** 위원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오히려 땀땀하게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하는 것이……

○**李憲昇**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8월 달에 입주하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장관직을 그만두시더라도 세종시에 계속 사실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일단 제가 8월에 거주를 할 겁니다.

○**李憲昇** 위원 아니, 장관직을 그만두시더라도 만약에 되어 가지고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사셨으니까 앞으로 계속 세종시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상황이 되는 한 계속 살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이현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 경북 김천 출신 송언석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오늘 계속 나왔던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후보자께서는 1월 20일경에 장관후보 지명을 받았다 그랬고 1월 24일 날 검증 서류를 제출했다, 그리고 2월 18일 날 딸과 증여계약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3월 7일 날 장관후보 지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첫 번째, 두 번째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정확한 날짜가 없어서…… 1월 20일경에 장관후보군으로 났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송언석** 위원 그러니까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래서 24일 날 검증 서류를 제출한 것이 맞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래서 20과 24는 같이 합해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송언석 위원** 자, 좋습니다. 최종 장관후보 지명이 3월 7일이라고 하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것은 맞습니다.

○**송언석 위원** 1월 20일경에 유력한 3인 후보로 지명이 되었고 1월 24일 날 검증 서류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3인인지 몇 명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송언석 위원** 글쎄, 본인은 모르더라도 어쨌든 최종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월 20일경에 장관후보군에 속한다고, 아까는 장관후보라고 이야기했지만 장관후보군이라고 하니까 또 그렇다 치고, 그러면 3주택 논란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주택을 매각하겠다는 노력은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일 밑에 한번 보세요.

2018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까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면 좀 파시라 하는 2017년 8월 2일 김현미 장관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게 부동산 투기 종합대책 때 나온 이야기이지요? 2017년 8월 달에 우리 후보자님은 그때 민간인 신분이었지요? 공직에서 물러난 다음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다음입니다. 정부부지사 하고 있을 때……

○**송언석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그때 당시에 문제인 대통령도 집을 팔았고 김현미 장관도 집을 팔았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최고 공직자도 집을 팔았는데 민간인 신분이 된 후보자는 그때 17년 8월부터 18년 4월 사이에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다른 두 채의 집에 대해서 매각하기 위한 노력을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다는 국민들이 많은 것이고요.

1월 24일 날 검증 서류를 드디어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 3주택인지도 모르고 만약에 후보군에 넣었다 그러면 조국 민정수석이 검증을 대단히 소홀하게 했다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알고서도 최종적으로 했다 그러면 2

월 18일 날 증여계약서 자체가 1월 24일 날 제출한 검증 서류를 가지고 청와대와 사전에 막후에 어떤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검증 자체의 정밀성과 타당성 그리고 검증 자체의 객관적인 중립성 자체가 조금 흔들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나……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먼저 명확하게 말씀을……

○**송언석 위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특히나 2월 달에 증여계약서 자체도 딸 부부한테 쪼개기로 증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월세 계약을 지금 맺었다고 했고요. 그 부분 자체도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대단히 금수저 이상의, 황금수저 딸 부부에 대한 그런 질시적인 눈초리가 많다, 이 부분도 나중에 다시 한번 봐 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인위적으로 2주택으로, 3주택에서 2주택으로 급조해서 3월 7일 날 장관후보가 지명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과연 이런 분이 국토부장관후보가 그동안에 있었느냐, 또 국토부장관후보처럼 이렇게 증여하면 되겠느냐 이런 시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쪼개기 증여에 의해서 절세를 굉장히 잘하셨다, 부동산학 박사로서의 역량을 굉장히 유감없이 보여 줬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지난 2017년에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서 국토부가 4만 3000건, 그리고 2018년에 4만 8000건의 행정조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최정호 장관후보자 인터뷰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정말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 당신이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집을 팔라, 이렇게 국토부가 계속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부동산 정책의 주무장관으로서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느냐, 그동안 차관 때까지 부동산 전문가로서 국토교통부의 핵심 관료로서의 역량은 충분히 보여 줬지만 최고 책임자로서의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이 제기되는 겁니다.

한 말씀만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국민 여러분께 또 위원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씀을 올렸습시다마는 제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무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되지 않으려는 노력은 2008년도 최초 다주택자가 되는 시점 이전에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제 불찰로 그렇게 되지 못해서 지금까지 이런 고착된 상태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때 2008년도에 노력을 했고 또 작년 11월에 집을 내놓는 등 저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게 깔끔하게 정리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이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제 스스로 판단하고 제가 생각한 대로 정리해 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금년 8월에 세종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즉시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딸 부부한테 증여한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은데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위도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공동 증여 이런 것도 사회적 추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사려 깊지 못한 점이 그렇게 비난을 받는다는 생각을 미처 못 했다는 점, 또 저는 떳떳하게 그냥 수개월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딸집에 있는 게, 또 정확하게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하면 그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그 생각이었습니다마는 그게 좀 짧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것을 정말 처절한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언석 위원** 그러니까 2017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자기가 사는 집 이외의 다른 집을 좀 파시라 한 거기에 대해서 매각하기 위한 노력은 없었다는 것은 인정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인정합니다. 김현미 장관님 말씀을 제가 좀 소홀히 들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언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송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 SR의 전라선 투입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국토부장관께서 1년 훨씬 전에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전라선에 SR을 투입하겠다는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니까 전라선의 이용객이 2014년에 224만에서 2018년에 664만, 무려 3배 가까이, 44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경부선을 보니까 같은 기간, 2014년에는 4362만에서 2018년에는 3420만으로 오히려 942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의 질문답변 과정에서 평택과 오송 간에 일부 노선이 포화가 되어서 더 이상 배차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도 동의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이용호 위원** 저는 차량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이 부분을 잘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경부선의 이용객이 오히려 감소를 했고 이쪽이 3배나 폭증을 했다면 효율적인 배분 차원에서 세심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리고 섬진강댐 흑시 가 보셨어요? 섬진강댐 옥정호……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옥정호는 제가……

○**이용호 위원**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를 하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이용호 위원** 거기가 섬진강댐 결과로 생긴 계 옥정호입니다.

섬진강댐은 1965년에 건설된 대한민국 제1호 다목적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전국 다목적댐 중에 유일하게 건설 당시에 댐 순환도로를 안 만들어 줬어요. 미개설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핑퐁을 하고 근거가 없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그

래서 사실 원성이 굉장히 자자합니다. 지금은 물 관리 일원화로 댐 관련 사업이 환경부로 이관이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더 얽히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이것 국토부가 주관하는 법이지요,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이용호 위원** 또 주변도로 개설 관련 업무는 여전히 국토부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관리 자체는 환경부로 넘어갔지만 결과해지 차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아마 준비 중에 있어서 올 상반기나 늦어도 9월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토부가 책임을 지고 이것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참다 참다 못 해서 도와 또 군에서 일부 예산을 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마지막 미개설 구간은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옥정호 수변 순환도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오래전부터 깊은 관심 갖고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전라북도에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 확보 등등 해서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로 이관이 되어서 용역을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그렇지만, 국토교통부 소관이었다가 환경부로 갔지만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또 지역 주민의 도로교통 편의 증진 차원에서 저희 국토교통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의하고 챙기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오죽하면 이번에 토론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토론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환경부는 또 국토부에 토스를 하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핑퐁하시지 말고 결과해지 차원에서 국토부가, 아마 이게 법이 국토부 소관일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챙겨 보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것을 좀 챙겨 주시면, 장관이 되시면 부탁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리고 강통전세, 역전세난 요즘에 많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수도권은 아직 집값 하락이 충분치 않다' 이렇게

아까 답변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이용호 위원** 그런데 일부 지방에서는 사실 주택시장이 붕괴되는 상황 또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는 강통전세가 나오는데, 문제는 강통전세가 나오면 결국은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맞춤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기본적으로 수도권은 더 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지적하신 대로 수도권도 그렇습니다만 지방의 경우에 특히 어렵고, 또 미분양도 지방이 5만 1000호나 되고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임차인 보호가 관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특례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하여튼 임차인 보호에는 주력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도 SR과 코레일의 통합 문제 관련해서 주승용 위원님 등 여러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SR과 코레일의 경쟁이 사실 따지고 보면 본사와 자회사의 관계이고요. 또 SR이 이익이 나면 코레일이 손해 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따지고 보면 이것은 정말 진짜 경쟁이 아니고 가짜 경쟁이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것은 각종 실적 수치상으로 보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강남 지역의 사람들만 요금에 있어서 편익을 보고 있어서 지역 차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도 공공성에 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빨리 통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통합 여부에 대해서 정부에서 검토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주었는데 감사를 이유로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감사한 내용과 이용역과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별개로 통합에 대한 연구용역은 빨리 조속하게 재개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재개 여부를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전라선에 SR, 말하자면 수서지역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극 필요하다고 이렇게 공감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전라선이 SR, 수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근본적으로는 아마 코레일과 SR이 통합하면 현 상태에서 52회 정도 운행 횟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도 충분히 수서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설령 그것이 통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코레일 KTX를 수서 쪽으로 투입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호영 위원** 그다음에 수소버스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수소차가 공기정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미세먼지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에 이 보급량을 하루빨리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수소버스는 빠른 속도로 보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호영 위원**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부가 2022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서 수소버스 2000대 도입 계획을 발표한 것이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현대자동차도 2030년까지 연간 50만 대 규모의 수소차 생산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한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승용차는 울산공장에서 생산하게 될 것이고 수소상용차 버스, 트럭 같은 것은 전주공장에서 양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후보자님께서도 친환경 수소차로 전면 전환하고 수소에너지에 기반한 시범도시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현재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하는 주문생산식 공정으로 버스 생산하는 것은 가격이라든가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양산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면 결국은 대량생산을 통해서 생산단가를 낮추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러려면 정부에서, 아까 2022년까지 연간 2000대 얘기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연간 1000대 정도 생산해야 양산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수소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말씀하신 대로 수소버스가 한 8억 정도로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현재 보조금에 의존하는 체제인데 양산과 R&D를 통해서 가격의 인하가 반드시 되어야 되고 또 충전소의 문제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호영 위원** 그래서 결국은 수소승용차든 버스든 운행하려고 하면 결국 수소버스 충전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런데 운행 확대하는 것에 부합해서 충전소 부분들을 확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수소경제 시범도시 선정 관련해서도 부생수소가 풍부한 지역이라든가 또는 수소버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양산 공장이 소재한 지역이라든가 경쟁력 있는 이런 도시들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기준들을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시범도시이기 때문에 수소경제가 빨리 착근할 수 있는, 말씀하신 부생수소 생산지역 등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에 한 세 곳 정도로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실제로 차량들이 많이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도 같이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최 후보자님, 아까 영남권 신공

항에 대해 답변하는 것을 보고 제가 대단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기대한 것은 김해신공항 그다음에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사업 이것은 본래 정해진 대로 더 이상 소모적 논란 없이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국익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답변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매모호하게,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그런지, 저는 대단히 정말 실망이 큼니다.

제가 다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더 이상 실망스러운 답변을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2조라는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4대강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어서 이것을 다시 철거하겠다고 합니다. 후보자는 2013년도에 '4대강 사업이 여름 태풍과 강우의 피해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아주 대단히 효과적인 것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 지역 농민들은 이것을 철거하면 안 된다고 데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것이 현재 국토부 소관 업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 자신이 '정말 이것은 좋은 사업이었다' 이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되면 대통령께 '이것은 철거하면 안 된다' 이런 직언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4대강 홍보 관련해서는 저의 트위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대변인이었고 대변인 트위터는 국토교통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김석기 위원** 그러면 4대강이 그런 효과가 없는데 그렇게 그냥 되고 말았다 이런 뜻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내용으로 정부 정책이 정해졌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2월 28일 미·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결렬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결렬 30분 전까지도 해당 결과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회담 일주일 전에 일본의 정부 관계자하고 저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미·북 정상회담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 경제제재 완화 일체 없다' 이렇게 잘라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일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결과를 두고 보면 일본은 미국과 정확히 소통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저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난 뒤에 다시 대통령께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남북협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 주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미국과 국제사회에서는 남북경협이 너무 앞서간다, 과속이다, 대단한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남북 협력사업 중에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국토부 소관 사업이 많습니다. 아마 장관후보자도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장관으로 임명되면 대통령께 이것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직언할 용의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무슨 일이든 직언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남북경협은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석기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장관들이 대통령께 소신껏 직언을 못 하면,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 정권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불행해집니다. 국민이 불행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들이 소신 있게 직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최정호 후보자를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최정호 후보가 눈치 본다고 소신껏 못 해서 이제까지 잘 살아온 공직에 흠결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다른 사람같이 최정호 후보도 영혼 없는 공직자였다 이런 불행한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럴 용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을 대통령께 직언할 용기와 용의가 없으면 스스로 장관직을 사퇴하는 것이 스스로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소신껏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김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위원** 후보자 수고 많으십니다.

인천 남동을 지역 윤관석 위원입니다.

아까 인사말을 보니까 5페이지에 ‘국민의 일상 생활과 경제활동을 이어 주는 교통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GTX 등 핵심 교통수단을 빠르게 확충, 효율화하여 평균 90분대 소요되는 출퇴근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해 주셨어요. 지금 시기에 아주 필요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2경인철도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들어봤습니다.

○**윤관석 위원** 수도권 교통난은 아시다시피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인구집중 때문이기는 한데 출퇴근 평균시간이 아까 90분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더 걸립니다. 2시간 넘는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도로는 이미 포화상태여서 또 미래 세대의 미세먼지까지 생각한다면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철도로 대체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관석 위원** 제2경인선은 인천의 청학에서 남동구와 시흥·광명을 거쳐서 구로까지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광역단체들이 3개가 연결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인데 올해 1월 달에 사전타당성 용역을 통과해서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예타 조사사업 선정 대상으로 지금 1순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또 아까 인사말에 나왔던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국토부에서도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내 주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기재부에 예타를 신청했기 때문에 선정되는 것이 1차 관문이니까……

○**윤관석 위원** 거기에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게 하

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다음에 수도권 서남부에도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인천에 도시철도 2호선이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경기도 경계 지역인 광명으로 가는데 불과 12~13km밖에 안 되어서 여기를 갖다가 지하철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2호선 KTX 광명역 연장 사업이란 것이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시흥시·광명시·경기도, 4개 기초광역단체가 합동 용역을 시작한 상태거든요. 이야기도 좀 들어 보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들었습니다.

○**윤관석 위원**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이미 철도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3차 철도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시흥과 광명 쪽의 신도시의 어떤 조성 흐름을 봤을 때는 경제성이 잘 나올 것으로 보는데 지자체 간에 여러 개가 얽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장관이 되신다면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 또 주거지역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것들을 꼭 함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우선 3개 시군간의 최적 노선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적 노선이 선정되면 이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최정호 장관표 리더십을 잘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GTX 문제는 아까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A는 이미 통과해서 착공식을 작년 12월에 했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윤관석 위원** C 노선도 이미 심의 통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독 B 노선만 현재 통과가 안 되어 있습니다. A, B, C가 순서인데 A, C만 되어 있고 B가 계속 빠져 있어 갖고 발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A, C 이렇게 하기가. 그래서 B 노선도 빨리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현재 기재부에서 예타 진행을 여러 차례 하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3기 신도시 발표 때, 이게 3개 광역단체를 거쳐서, 인천·서울·경기를 거쳐서 12개 기초지자체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단체장들이 이미 여러 차례 기자회견도 하고 서명운동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 3기 신도시가 왕숙지구라고 해서 생겼기 때문에 경제성은 나올 거다, 담당 기관이

나 주변의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시기가 너무 늦어지게 되면 기존 노선과 비교도 될 것이고 해당 지역에 대한 불만도 있고 또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갔을 때 신도시 조성과 GTX의 착공 기간을 해 보면 시차가 너무나서, 3년 이상 나 버리기 때문에 주거로서의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불편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3기 신도시 추진과 아울러서 연계해 볼 때도 조기에, 예타 면제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패스트트랙으로 빨리, 이미 여러 차례 예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성이 예상된다면 패스트트랙으로 상반기 내에 심의를 마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17년 9월에 오래 전에 예타를 신청했고 현재 KDI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 빠른 시일 내에 예타가 마무리되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윤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인사청문회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7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회의중지)

(19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서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수 위원 후보자님, 저녁식사 잘 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구내식당에서 했습니다.

○서형수 위원 힘들지 않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견딜 만합니다.

○서형수 위원 의외로 맷집이 좋으시네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아닙니다.

○서형수 위원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국토위에 늦게 와서 국토부에다가 이런저런 자료를 요청해 보면 처음에는 자료를 안 주는 줄 알았는데 사실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이라는 것 잘 아시지요? 에비던스 베이스드 폴리시 메이킹(Evidence Based Policy Making)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하나인 것입니다.

실제 주택 정책을 세우는데 주택에 관한 정보가 제가 보면 지금 국토부에서 직접 하시는 것은 주거실태조사 하나 있고 나머지 가장 중요한 인구주택총조사라든지 주택소유통계 그것은 통계청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요한 정보들이 국세청이나 아니면 행정안전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주택 정책을 세우는데 가장 기초적인 정보이고 통계인데 제대로 접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면 사실 주택시장, 주택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삶이나 우리 경제사회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굉장히 요긴하다 이런 측면에서 타산지석으로 지난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에서도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보고서라는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국토부에서도 주택안정보고서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실제적인 전체 주택시장에 대한 수요·공급이라든지 제도·환경 이런 것을 통계와 행정자료를 다 모으고 그런 것을 위해서는 일단 타 부처에 이런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주택법이나 주거기본법 쪽에다가 그런 법령을 넣어서 그것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 의견은 어떠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위원님, 좋은 지적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거(evidence)에 기반해서 맞춤형, 정말 필요한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게 제도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게 지금 기왕에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다음, 조금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보잉 737 맥스8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알고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이게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데가…… 이스타에 2대 들어와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것은 운행 중단이 되어 있고.

금년에 도입 계획이 14대로 2026년까지 106대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대당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최신형 기라서 매우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런데 지금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면 보잉사하고 미국의 FAA 자체가 좀 유착관계에 있고 심지어는 원래 필수사양에 넣어야 될 안전시스템 2개 정도는 오히려 지금 선택사양으로 빠져서 이번에 사고 난 비행기 2대도 그 선택사양 2개가 빠진 기종이라는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입이나 운항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위원님께서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한 가지 확실한 원칙은 있습니다. 항공안전이 확실하게 담보가 되지 않으면 절대 운항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도입 단계에서도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다음, 지금 도시계획시설 20년 지나면 일몰되는 제도가 새로 생겼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서형수 위원** 일차적으로 내년 7월인데 지금 거의 1년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 특히나 공원에 대해서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제가 살펴보았습니다만 내년 7월에 해제되는 지역 중에서도 또 시급한 지역을 한 130km² 선정해 놓고……

○**서형수 위원** 우선관리지역……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우선관리지

역으로 해서 지자체와 같이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지금 우선 중요한 게 지방채 발행했을 경우에 이자부담을 5년간 50%를 중앙에서 일단 부담할 텐데 그러면 한 7200억 정도 같으면 5년 같으면 연간 한 20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야 되는데 금년 예산에 79억 원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 자체는 제대로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장관에 들어오시면 우선 이 문제부터 가장 먼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서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희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아닙니다.

○**이규희 위원** 오전에 말씀드리다가,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경기침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규희 위원**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여러 가지 경제상황, 제때 적기에 경제정책을 세우지 못한 점,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규희 위원** 어쨌든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폭락이, 자산 가치에 거품이 생겼다가 꺼지면서 많은 혼란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4, 5위 정도 되는 리먼브라더스라는 투자은행이 파산을 했는데요. 그 근본 원인도 소위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무리한 부실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은행의 부실화가 결국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계부채라는 게 한없이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한없이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고 세계적으로 가계대출과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해서 3배 정도가 되었을 때 그 거품이 급격히 꺼지면서

경제위기가 오는 그런 사례들이 법칙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이 가계대출의 상승을 허용해 가지고는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이 아니라 폭락을 가져오면서 경제위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것을 걱정해서 특별히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가 경제위기의 폭탄이 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관리를 각별히 잘해 주시기를 오전처럼 부탁을 드리면서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이규희 위원** 카풀 문제로 택시기사분들이 자살을 하는 불행한 일도 있었는데, 카풀과 우버의 차이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카풀은 출퇴근 시간대에 내가 출퇴근할 때 같은 경로의 사람들을 태워서 그런 서비스를 주는 것이고 우버는 택시면허를 받지 않은 일반 자가용 가진 사람들을 택시 서비스를 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규희 위원**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안심이 되는데요.

직장과 집을 오가는 카풀의 측면은 공유경제의 측면이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플랫폼 앱에 어떤 고객이 어디를 가겠다고 하면 근처에 있는 자가용을 배차하는 이런 게 최근에 앱에서도 실사가 되고 있었고 그것을 택시기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인데, 미국의 우버제도가 국민 편의의 측면에서는 어떤 면에서 긍정적일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편익을 생각해서 100만 원도 못 버는 비정규직 비슷한 반실업자의 우버 택시 기사를 양산하는 것은 저는 국민의 전체적인 직업 수준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잘못된 일자리정책이라고 생각되고요.

택시산업 등 어느 산업이 있으면 저축을 통해서 중산층으로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보수를 보장하고 거기에서 낙오되는 분들은 복지나 여러 가지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해서 국민의 직업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우버택시 기사 같은 일자리 창출은 바람직한 일자리정책은 아니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고요. 각별히 잘 살펴봐서……

‘플러스’ 앱이나 이런 것은 자가용 영업의 측면도 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 자가용 영업은 막아야 된다 이것을 제가 각별히 부탁을 드리

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희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이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대구 서구 김상훈 위원입니다.

1차 질의에 이어서 제가 부·울·경 검증단의 남부권 신공항 입지에 관한 부분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부·울·경 검증단의 실체가 굉장히 불분명해 보인다, 2018년 11월 달에 구성되어서 지금 만 4개월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서 남부권 신공항 입지에 소요됐던 전체 용역기간, ADPI가 1년 정도 소요되어서 결과를 내냈어요. 그 이후에 국토교통부가 기본용역 계획 과정이 한 1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2년에 걸쳤던 그 용역 결과를 뒤엎는 결과를 저는 분명히 발표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3월 17일 날 이미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들께서 김해신공항의 문제점을 나름 발표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도라면 부·울·경 검증단의 발표 내용과 국토교통부가 협의를 하되 그 조율이 여의치 않으면 총리실에서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총리실은 공항 입지와 관련된 전문기관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특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상임위장에서 일관되게 김해신공항의 입지 선정은 특별한 문제가 없고 현재 기본계획 용역 결과대로라면 그대로 단점을 보완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라고 누차 이야기했는데 신임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께서는 그간의 과정과 또 앞으로 예상되는 부·울·경 검증단의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견지하실 것인지 여기서 분명히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국토교통부 입장은 말씀하신 바대로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부·울·경 검증단에서 그런 검증 결과를 저희한테 제시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저희가 당연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말씀이고요.

총리실 검증은 또 총리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부·울·경 검증 결

과가 제시가 되면 저희 차원에서 검토하고 의견도 제시하고 또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노력은 일차적으로 먼저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 고요.

만약 총리실로 조정 절차가 가게 된다면 또 정부 방침이 그렇게 정해진다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고 또 저희 부의 입장도 개진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훈 위원** 작년에도 역시 가덕도공항 문제가 불거졌을 때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장이 가덕도가 다시 신공항의 입지 대상으로 부각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어요. 저는 민주당 중앙당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봅니다.

어쨌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께서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을 받으신다면 공항 문제는 정말 간단하게 다뤄질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관문공항의 입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백년지대계라고 판단을 하시고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오늘 후보자께서 부동산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으셨겠지만 저는 후보자를 탓하기 이전에 청와대의 인사검증 절차가 굉장히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할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후보 시절에 본인이 천명한 5대 인사원칙을 후보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지 못한 장관후보자들이 지금 비밀비재해요. 이번에 지명된 여러 후보자들도 사실 상황은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최근 청와대 내에서도 아마 조국 민정수석, 조현욱 인사수석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장관후보자에게서 나름의 능력을 겸비하고 거기에 상당히 인품을 겸비하시리라고 봅니다마는 국토교통부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부동산 가격 정책을 다루어 내는데 다주택자로서 투기 사실로 지적받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굉장히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간사끼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청와대의 입장도 어떤 입장을 취할지 굉장히 국민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사책임자가 적절한 균형감각을 갖추어서 최종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디라는 국토교통부장관에 취임할 수 있다면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정말 혼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삼 위원** 제천·단양 이후삼입니다.

약간 국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저도 인사청문회를 준비를 하면서 청와대에서 발표한 7대 기준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장관후보자께서 위배되는 내용이 없다라고 저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7대 배제 기준에 혹시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제가 여러모로 부족한 점은 많습니디만 7대 기준에는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삼 위원** 대통령께서 후보자 내정하시면서 ‘전문성과 강단 있는 추진력으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민생현안을 해소할 장관 적임자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때도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후삼 위원** 국정과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혹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 중에 국토·교통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저희가 10대 과제가 있고요. 교통, 주거, 다양한 면의 중요한 국정과제가 포함되어 있고요. 세부 과제로는 한 33개가 있고, 지금 국토교통부 직원 모두가 합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삼 위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주거복지, 교통서비스 공공성 강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고, 교통안전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국민의 삶과 또 질에 좌우되는 과제들이 중요한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후삼 위원** 아까 질의에 이어서 안전 문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민들에게 걱정이 된 큰 사고들이 작년 가을부터 연이어 있었습니다, 상도동의 유치원 붕괴 사고, 서대문의 KT 통신구 화재 사고 그리고 백석역의 온수관 파열 사고. 그런데 이게 보면 관할 부서가 다 달라요, 상도동 유치원은 국토부, KT 통신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 온수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이게 대표적으로 다 지하 안전사고에 관련된 건데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컨트롤타워라든가 한 부서 내지는 TF를 구성을 하든…… 지하시설물 내지는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부처마다 관할이 다 다르고 사고가 나면 그 대응 방식도 다 다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말씀하신 대로 다기화된 부처의 관할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안전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마침 작년에 기반시설 관리법이 제정이 되어 있고, 범정부적 TF를 지금 구성해서 6월에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로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국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저도 챙겨 보겠습니다.

○**이후삼 위원** 공동구라고 혹시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공동구 알고 있습니다.

○**이후삼 위원** 그렇게 공동구를 통해서 관리를 하면 아무래도 재난과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국에 7개 지역에 불과하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을까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새로운 신도시라든가 개발할 때는 지하에 공동구를 설치해서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비

용을 절감할 수 있고 안전을 담보하는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기존 도시의 공동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또한 안전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후삼 위원**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미처 꼼꼼히 챙겨 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지금 곳곳에서 계속 국민들한테 위험요소로 다가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작년에, 생활 SOC 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안전 SOC 개념을 국토부에서 고민을 한번 해 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문제와 관련한 SOC 사업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이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咸珍圭 위원**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알고 있습니다.

○**咸珍圭 위원** 그러면 정책을 좀 바꿔야 되는데 현 정부에서 정책을 잘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지속적으로 정책을 견지해서 확실하게 할 부분도 있고요.

○**咸珍圭 위원** 문제가 있는 것은 좀 바꿔야겠지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혹시 이것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시의 총선정책공약단 부단장,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까지 맡은 주진형이라는 전 한화증권 대표 이사가 쓴 칼럼이 있어요. 제목이 뭐냐 하면 ‘부동산 정책, 묘수가 과하면 바둑을 망친다’ 이것 혹시 읽어 보신 적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읽어 보지 못했습니다.

○**咸珍圭 위원** 못 읽어 보셨지요? 이게 A4 용지 반 장 정도 되는데 현 정부 관여했던 사람으

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제가 그냥 아주 빠르게 한번 읽어 볼게요.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번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마 작년에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한 석달 지나갔을 때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시장에선 이번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가격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거래절벽이다. 9·13 대책의 효과는 오래가지가 어렵다. 아니 오래가면 안 된다. 이번 대책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환자에게 쓸 독성이 강한 비상약과 같다.’ 쪽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현 정부로선 착한 무능의 좋은 예를 만천하에 공개한 셈이 됐다. 원래 부동산시장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한다. 정책당국자가 자기들 코앞의 목표에만 몰두하느라 전체를 보지 않고 일을 추진하면 이런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금지, 금지, 금지! 이보다 더한 행정만능주의가 없다.’

‘주택시장은 다양한 필요와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시장이다. 세 들어 살 사람, 자기 집을 한 채 원하는 사람, 두 채를 원하는 사람, 임대수익을 원하는 사람, 주택 투자로 돈을 벌려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주택시장이 실수요자와 악덕 투기꾼으로만 채워져 있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 바둑 격언에 묘수를 세 번 두면 바둑에 진다는 말이 있다. 부동산시장이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든 것은 정부다. 국민은 죄가 없다. 그런데 이를 망친 사람들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눈을 부라리고 있다.’

하여튼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이게 집권당에 참여했던 사람이 쓴 글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이걸 좀 참고로 하셔서, 김현미 장관 취임할 때도 그 말씀 드렸는데 부동산 못 잡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지 말고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그런 정책을 원칙에 입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공항 문제에 대해서도, 김해공항 문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관료 하실 때 상당히 소신 있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최근 며칠새 보면 입장이 달라진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소신이 정말 바뀐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아닙니다. 입장이 달라진 바는 없습니다.

○**咸珍圭 위원** 꼭 원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의정활동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이번에 장관이 잘 되시면, 토지수용 있잖아요. 요새 LH에서 택지개발 많이 하잖아요. 헌법에 정당한 보상이라고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필요에 의한 토지수용에 따른 각종 취득세,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이게 너무 과해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원해서 수용에 응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아울러서 일반적인 매매에 따른 세액도 있지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물론 1년 미만인긴 하지만 50%씩 양도차익을 내고 그다음에 장기보유 같은 경우에도 6%에서 42%까지 구간별, 요새 땅이 웬만하면 5억이 넘어요. 그런데 과연 42%씩 세금을 내는 게, 이게 참 정당인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땅을 몇 만 평, 몇 천 평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합리적으로 이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한번 보는 것도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정당한 보상에 대해서는 토지수용법 정신을 살려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咸珍圭 위원** 그리고 아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양도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咸珍圭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동안 너무나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확고해질 때까지……

○**咸珍圭 위원** 아니, 제가 주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 모든 부동산을 포함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광명·시흥지구 있지요, 이것 관심은 갖고 계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잘 알고 있고 관심 갖고 있습니다.

○**咸珍圭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10년이 흐르고 있는데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 경기 하남의 이현재 위원입니다.

최정호 후보자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택 관련해서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세종시의 펜트하우스가 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으셨다고 그랬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습니다.

○이현재 위원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는 언제 그만두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작년 말에 그만 뒀습니다.

○이현재 위원 또 후보자는 보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공모를 하셨데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응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현재 위원 12월 13일에 하셨데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이현재 위원 그러면 이 당시 시점이면 세종시에서 공항공사 출퇴근할 것은 아니잖아요. 주거 목적으로 샀다는 말이 틀린 말 아닌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분양 신청할 당시에는 거주 목적으로 했구요.

○이현재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고 8, 9월이면 이사를 간다, 8월이 되면 간다 그랬는데 분양 당시에는 거주 목적으로 했다고 말이 갑자기 달라지시는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아닙니다. 인천공항공사에 응모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응모한 게 제가 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고요.

○이현재 위원 결국 응모하는 과정에서 장관후보자로 신분이 바뀌어서 지금 부동산 급히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합리화하는 것 아닌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현재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분당 아파트 증여 관련해서 따님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랬잖아요.

주소 좀 띄워 볼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따님 주소가 보니까 xxxxxxxx xxx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맞습니다.

○이현재 위원 다시 띄워 보세요.

등기부등본상에는 구로구 xxxxxx xx인데 따님 집 주소를 정확히 모르시는가 보네요. 저것 임시로 막 쓰다 보니까…… x동 xxxxx호는 맞아요.

xx아파트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맞습니다.

○이현재 위원 구로구 xxxxxx xx이 원래 주소인데 임차계약서는 xxxxxxxx xxx, 아파트 동·호수는 맞는데 이것 틀린 것 아니에요? 어느 게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아니,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어느 게 맞냐고요? 지금 저 등기부등본을 본 위원이 받았어요. 급조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글씨체도 보니까 최 후보자 글씨하고 똑같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 계약서는 제가 작성한 것은 맞습니다.

○이현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소 잘못 쓴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주소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주소를 굳이 달리 쓸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현재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갑자기 다 하다 보니까 딸 주소 정확하게 못 적고 등기부등본하고 틀린 것 아니냐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예, 확인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이현재 위원 그리고 광역교통계획 관련해서 지금 광역교통계획을 총괄하는 것은 서울시입니까, 국토부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광역교통계획은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입니다.

○이현재 위원 그러면 서울시도, 각 지자체도 국토부의 통제권 안에 있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같이 대책을 만들고……

○이현재 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계획을 짰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은 국토부가 강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광역교통계획대로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재 위원 계획대로 짰으면 서울시 계획에 국토부가 쫓아가는 게 아니고 국토부가 서울시를

통제해서 가도록 하는 게 맞는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국토교통부 계획이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재 위원 그러니까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가 무슨 말씀이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재 위원 당연히 우선해야 되고 국토부가 정부 기관이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이현재 위원 그런데 9호선 보면, 최 후보자께서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못 하실 텐데 9호선이 지금 죽 해서 강동으로 해서 하남으로 해서 이렇게 오는데 최 후보자께서 차관 때 16년도에 하남 구간을 광역교통계획으로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강일동의 한 구간이 안 되어서 지금 진전이, 4년 동안 후보노선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서울시의 철도망계획의 광역철도망, 광역철도로 국토부가 해 달라고 조건부로 했어요. 이런 부분은 빨리 확정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예, 빨리 좀 확인해 보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이현재 위원 국토부가 서울시 관련되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6년도에 미사 구간을 해 놓고 3년 동안 서울시가 안 되어서 안 된다는 것 이진 문제 아닙니까?

5호선 하남선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미사신도시가 전국에서 제일 큰 신도시였어요. 그래서 1단계 구간으로 강동구의 강일 또 하남의 미사·풍산, 가칭입니다마는 이걸 해서 원래 15년도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 해에 개통시킨다고 그랬어요. 18년도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강일역이 늦어져서, 강일역이 왜 늦어져 가지고 2년 전에 강일역은 무정차 통과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추가질의를 할까요?

○위원장 박순자 그러시지요. 추가질의 있으니까……

○이현재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지금 답변해 주시지요, 후보자님.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강일지구 내 정거장 공사, 서울시 구간입니다, 그게 좀 늦어지는 바람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개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제가 근무할 때 위원님께서 직접 현장에 와 주셨고 저도 같이 가서 현장을 둘러 봤습니다마는 하여튼 서울시하고 상황을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고 공기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면밀히……

○이현재 위원 강하게 주문을 하시고요. 서울시 공사 구간이 한 역 때문에 뒤의 두 구간이 완공되어 가지고 1년 이상 기다리는 것은 문제 아니냐, 국토부가 좀 행정력을 발휘해서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하여튼 살펴 보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이따 추가질의 계속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이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주질의,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질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두 가지만 후보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2, 그리고 9·13 대책에 따른 금융·세제·청약 규제 그리고 올해 공시지가·공시가격 인상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최우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부동산시장은 하향 안정세를 넘어서 빙하기라 불릴 정도로 거래절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로 예정된 수도권 등 3차 주택 공급 11만 호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장관후보자께서는 답하시기를 부동산 규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과열지역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지방은 여전히 낮은 수준의 규제가 유지되어 맞춤형으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하셨습니다.

지방의 부동산시장은 거래가 끊겨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즉 서울의 집값을 잡느라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쌓이고 또 역전세난 그리고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도 공시지가를 더 올린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공시지가 인상이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부동산이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보유세만 강화하는 것은 현금 수입이 없는 그리고 현금 수입이 충분하지 않은 은퇴자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해치는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집한 채 가지고 있는 서민의 부담을 덜어 주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가혹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고 하는 가렴주구(苛斂誅求)라는 사자성어를 아시는지요? 그리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후보자께서는 임명이 되신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지방의 부동산 경기가 더 어렵다는 점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산업이 침체된 지역이라든가 과거에 공급 물량이 많았던 그런 지역에 특히 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차인 보호에 더 강화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도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시장이 전국적인 리스크 상황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저희가 지방의 부동산 상황은 면밀히 검토해서 전세 임차인 보호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DTI가 적용이 되지 않고 LTV도 그렇게 강화되어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제지역 외에는 그런 강화가 없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강화된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시장 이게 안정세에 이제 들어섰다고는 합니다마는 아직도 위태위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현재 M2 유동자금 많은 것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 또 개발 기대, 호재 이런 것도 잠복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잘 관리하지 않으면 모처럼 하향 안정세로 들어선 이 기초가 깨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하게 흔들림 없이 관리해 나갈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절대 현 부동산시장은 하향 안정세가 아니라는 점을 후보자님께 다시 한번 각인시켜 드리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절대 공시지가 인상이라든가 또 보유세 강화는 현장을 소상히 살피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또 인지를 시켜드리는 바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후보자가 국토부장관 내정되기 전부터 언론지상을 통하고 또 오늘 오전 오후 여러 위원님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지적된 문제입니다. ‘부동산 투기 그다음에 다주택 소유의 의혹을 받고 있는 공직후보자가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 국토부장관으로 온다면 그 불신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앞으로 이 국민들의 불신을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이 된다면 어떻게 신뢰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떤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제가 장관으로 취임할 수 있다면, 또 이런 많은 지적을 받았습시다마는 이것을 국민들께 되돌려 드리는 유일한 방법은 정말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대책 그다음에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이게 우리 국민들께 제가 은혜를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초심을 잃지 않고 이런 각오를 계속 견지하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리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이제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권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위원장 박순자 이은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이은권 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여야 위원들 질의 내용을 보면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 건지 무슨 정책질의를 하고 있는 건지 국민들이 보면 헷갈릴 것 같습니다.

장관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전제하고 얘기를 하고 또 답변 자체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합니다’가 아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질문하는 내용도, 질의하는 내용도 문제거니와 그렇게 질의를 하니까 답변하는 후보자도 장관이 된 입장에서 답변을 하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청문회만큼은 국민들이 이런 자격으로서의,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 지켜보는 자리인데 꼭 우리 지역의 민원을 부탁해서 ‘이것은 장관이 되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청문회니만큼 이런 질의 내용을 잘 좀 제재도 해 주시고 교통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이은권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3분 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후보자님,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20대 국회의원이 되어서 국토교통위원회 회의 및 국정감사에서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에 대해서 객관적인 수치를 봤을 때 사실상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지적해 거든요. 특히 3차 수도권 정비계획은 팔당호 수질을 2004년 2등급에서 2015년 1등급까지 만들겠다고 목표했었지요? 그런데 2018년 기준 팔당호 수질은 아직까지도 2등급에 머물고 있습니다. 팔당호 수질을 보전하겠다면서 15년 동안이나 경기도 8개 시군을 자연보전권역으로 꽂꽂 묶어 놓고는 정작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후보자께서 과연 이런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우리 국민의 먹는 물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성 위원 먹는 물 중요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현행 수정법이 자연보전권역에서 소규모 개발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인 산업입지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난개발로 인해서 수질환경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거든요.

자연보전권역 내에 계획입지는 단 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점조직 식으로 해서 개별입지가 99%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보호에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수질 개선에는 더욱더 안 좋고요.

팔당호 수질을 개선하려면 개별입지 공장 등 폐수 배수시설을 집단화·집적화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이에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좋은 말씀입니다만 산업단지의 규모 확대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의견 수렴 또 연구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성 위원 이게 개별입지로 들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화처리시설 해 가지고 장마철 때나 이럴 때 그냥 내보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도 평상시에 개별입지다 보니까 수질 관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6만 헤베 규모로 집단화하는 효과가 사실상 거의 없고 최소한 15만 헤베까지는 확대되어야 된다, 기존 개별입지 공장을 제대로 집단화·집적화 해 가지고 팔당호 수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당호 수질 문제는 지방의 이해관계가 개입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우리 국민의 먹는 물, 수질의 확보와 또 산업단지를 통한 경쟁력 제고, 두 가지 문제가 상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한번 제대로 살펴보고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종성 위원 이게 수질뿐만 아니라 개별입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규모 공장에서 겨울에

폐자재들을 다 때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 지나 이런 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집산화시켜 가지고 수질 개선도 하수종말처리장을 해 가지고 처리해서 내 보내면 좋거든요. 그래야 수질 정화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정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관에 취임하시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시행령을 개정할 의지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입지보다는 계획입지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비용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그게 좋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이 관계는 한번 좀 더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 수고 많습니다.

후보자님, 제 오전 질의 때 차관 시절에 모친의 부평 재개발 특혜에 대해서 물랐다고 답변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박덕흠 위원 또 오후에는 대변인을 통해서 공모 및 선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참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83세 노모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그것도 당초 재개발을 움직이다가, 재개발 움직임이 있었지요? 그런데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차관 시절 뉴스테이 관련해서 다시 재개발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아들로서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이게 혹시 재개발 특혜 의혹을 피해 가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거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이것은 정말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의혹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 언론사에 보도가 된 사항도 있어서 바로 해명자료를 뿌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박덕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용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이것 지금 국토부에서 시행령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환경부로 가야 되는데 이 시행령이 잘 만들어져야만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꼭 잘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박덕흠 위원 그다음에 228개 기초단체 중에 한 89개가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군 소멸 위험 지역. 그래서 지방이 소멸이 되면 단순히 농촌에서 사는 농민들의 삶터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식량 문제 또 국토와 경관 보존, 환경 문제 등 국가 전체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그런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국토 균형발전,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귀농·귀촌을 장려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동의합니다.

○박덕흠 위원 그런데 후보님, 귀농·귀촌인을 위해서 어떠한 세제혜택이 있는지 잘 알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농촌 주택에 대해서는 일부 세제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흠 위원 그래서 이게 조례특례제한법상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그런데 처분할 때는 세제혜택이 있지만 그것을 보유할 때는 세제혜택이 없어요, 보유할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도시에서 거주하면서 장래에 전원주택에서 살거나 또 귀농·귀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농어촌 지역에 한 채의 주택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에는 보유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유세를 면제함으로써 귀농·귀촌을 장려하고, 또 농촌 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기재부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재부나 행안부에 꼭 보유세를 면제하도록 요청을 해 주

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그게 타당한 것인지 또 위원님 말씀 유념하면서 그게 어떤 것인지는 제가 일단 정확하게 파악한 바가 없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덕흠 위원** 두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농촌에 하나가 있을 때는 그것이 전원주택지로 사용하니까 이 보유세에 포함이 안 되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골에서는 농촌에 구입한 전원주택을 막 또 팔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도시에 있는 집을 팔 수는 없고, 그래서 인구가 또 감소되는 그런 현상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순자** 박덕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위원** 후보자님 이제 한 10시간 됐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회 한 지. 간단하게…… 굉장히 힘들 텐데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거의 다 중복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후보자께서 충분히 이미 입장을 밝혔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오해할 만한 소지도 많이 줄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후보자의 소회, 10시간의 소회를 간단하게 묻고 질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소회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먼저 위원님들의 따가운 질책 또 고언 정말 감사하게 듣고 있고요.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시간이지만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이 시간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강훈식 위원** 후보자님 그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희도 선거 하면 사실은 선거 때 마음으로 국회의원 직을 계속 수행하는데요. 청문회가 하루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따끔하게 받아 주시고 또 잘 수행해 주시는 바람으로 여야 위원이 한다면,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감사합니다.

○**강훈식 위원** 제가 아까 여쭙보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여쭙본 것을 마저 여쭙보겠습니다.

전북의 정무부지사 하면서 사실은 균형발전에서 빠져리게 느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북 정무부지사 시절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나 또는 국제공항 건설 등의 굵직한 현안을 많이 해결하셨습니다. 전국으로 보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부장관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잠깐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에 근무하다가 지방정부에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중앙정부에서 근무하면서 결코 인식할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것을 지방정부에 근무하면서 얻었다는 것은 소중한 경험으로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절실하게 느꼈다는 말씀 드렸고요.

앞으로 이게, 국토부장관으로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역 균형발전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쇠퇴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토 전체가 어떻게 하면 골고루 잘살 수 있는지, 그래서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식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BMW 화재 사고, 작년 1년을 국토위를 장식했습니다. 우리 아직도 뭐가 새롭게 변했다라고 느끼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못하는데요. 장관이 되시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 하겠다, 담백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사전적으로 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인증제가 됐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그것을 검증하는 절차는 없습니다만, 리콜 제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하지만 저희가 사후에라도 소비자가 불만을 갖지 않도록 또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저희가 자동차를, 승용차를 1년에 몇십 대씩 사서 점검하고 자기인증의 적합성도 검증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보다 강화하고 또 지금 일부 자동차제작사에서 자료 제출 이런 것도 좀 소홀히 한 면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후 대책도 조금 지지부진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도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또 보상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하면서 정책도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강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 최 후보자님, 아까 이어서 계속 한번 의견을 묻겠습니다.

광역교통계획이 주로 생기는 것이 서울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인천에다가 대규모 단지를 만들어 놓고 교통대책으로 지하철을 한단 말이지요. 그랬으면 이게 지하철이라도 국가가 만들어 놓은 주택단지면, 신도시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사 신도시라는 것은 165만 평 보금자리에서 가장 큰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15년도에 지하철을 개통한다고 하다가 18년 한다고 그러다가 강일·미사·풍산, 3개 역인데 서울에 하는 강일역이 난공사로 늦어져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정차하기로 했으면 해야 되는데 또 이게 공사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엔 하기로 했으면 적어도 금년 말에는 되어야 되는데 서울 강일역이 무정차해도 내년 4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분개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3297억 교통분담금을 다 냈어요. 입주한 지가 5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아니면 LH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광역교통계획을 만들었으면 되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서울 구간이 안 되면 그것을 강제해서 무정차 통과시키든지 아니면 페널티를 주든지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그래서 강제해야지, 국가가 계획을 세워 냈으면.

그리고 경기도·인천에 신도시를 만들 때 경기도·인천이 해 달라고 그랬습니까? 서울분들이 70%가 오는 거예요. 지역에서는 30% 안 돼요.

그러면 교통망을 제대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거기 원주민들도 교통난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계획을 세웠으면 책임 있게 해야지요, 책임 있게. 서울시가 말을 안 듣는다, 그것 말이 되는 겁니까?

또 위례신도시도 아마 최 후보자께서는 아실 텐데 송파·성남·하남, 3개 지자체로 되어 있어요. 세상에 신도시 하나 만들면서 3개 지자체로 나눠 놓은 것도 잘못이고, 거기도 지하철을 하는데 위례-신사선이 서울까지만 가고 성남·하남에는 안 가는 거예요, 역 하나 연결하면 되는데.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을……

국토교통부가 왜 있습니까? 그러면 국토교통부 없애고 서울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서울시가 다 하려면.

그래서 이런 모순에 대해서는 국가교통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가 있으면 책임 있게, 계획할 때도…… 세상에 신도시 하나를 세 개 행정구역으로 쪼개 놓고, 지하철 같은 교통망을 서울까지만 하고 경기도 구간은 옆 칸에 오면 안 되고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장관에 취임한다면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고 안 될 때는 페널티 하는 대책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신도시라든가 택지개발이 되어서 입주하게 되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입주와 동시에 모든 교통망이 완비되어서 입주하시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3기 신도시부터는 계획과 개발이 동시에 가서 최대한 주민의 교통 불편이……

○이현재 위원 앞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난 번에 만들어서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1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앞으로 할 것만 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확실히 챙겨 보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이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후보자님, 10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10시간 넘게 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후보자님처럼 정말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를 만드는 역사를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사라지고 있는 것 속에서, 과연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것 속에서 장관후보자가 만드는 것이 이후 대한민국이 과연 이런 역사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살아왔던 삶과 생활에 대한 것도 존중하고요.

물론 여러 가지 지금 제기하신 부동산 문제, 여타 문제가 있지만 전체 인생의 과정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이후 이런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미래를 주는 것이 새로 태어나는 그런 분들에게 미래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매우 감사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그것을 토대로 공직자로서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오늘과 같은 질책을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박근혜 전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 중의 하나인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및 고령자 등 상대적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급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문3구역을 보면 임대보증금 5800만 원에 월 임대료 21만 원, 서초를 보면 임대보증금 6100만 원에 월 30만 원 이렇게,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한 청년, 신혼부부, 직업이 없는 청년들이 부담하기에는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복주택의 취지와 달리 지나치게 비싼 보증금과 임대료를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신혼부부에게 보증금 1억에 월 37만 원을 내라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는데요. 이런 문제에 관한 장관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행복주택이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서울 등 말씀하신 지역 등 주변 시세가 비싼 데는 행복주택의 임대료 책정을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그것보다는 일부 5%, 10% 낮게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겠습니다만 행복주택이 입주자의 소득

수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서 주변 시세 기준과 소득 수준 간의 조화점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영진 위원**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가구가 없는 44%의 국민들에 대해서 그분들에 관한 주택 정책을 세우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가야 할 정책 방향이라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비주거 주택에 근무하시는 분들.....

○**김영진 위원** 예.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정말 제일 어려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닐하우스 이런 데에도 살고 계시는 분이 있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가장 먼저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권 위원** 대전 중구의 이은권입니다.

후보자님, 본 위원의 보충질의 때 답하기를 “분명히 미흡한 부분은 표절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규정상 표절이라고 판명이 된다면 그 부분은 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은권 위원** “그렇게 답을 하셨는데 본인 입으로는 ‘그거 표절입니다’ 딱 부러지게 얘기는 못할 테고 그렇다면 제가 그게 표절이라고 질문을 해도 ‘예’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겁니까?”라고 물으니까 후보께서 “분명히 미흡한 부분은 표절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이게 속기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변을 해 놓고 또 박홍근 위원이 약간 의아하게 “지금 오후 답변에서는 또 표절이다, 자기 표절이다 이렇게 답변하셔서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물으니까 “명백하게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표절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규정에 어긋나서, 그게 표절이라고 규정상 된다면 제가 표절이라고 인정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위원님……

○**이은권 위원** 표절이 아니라는 겁니까, 표절이라고…… 짧게 얘기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위원님, 제가 변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논문을 쓸 때는 그게 표절이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고 또 지도교수라든가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여러 심사위원도 있고 해서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작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은권 위원** 그러면 표절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리고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여러 가지 지적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어쨌든 광운대에서 광운대 이름으로……

○**이은권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공식적으로 표절이 아니라고 말씀을……

○**이은권 위원** 광운대학교에서 대학원장이 이것을 판정해 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광운대학교 논문조사위원회의 명칭이 붙어서 와야 됩니다. 대학원장이 판정해 줄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도 지도교수가 표절 검사를 한 것을.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침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리고 위원님, 제가 일부 인용 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은 드렸습니다만 광운대에서 공식적으로 아니라는 부분도 있고 또 사실은……

○**이은권 위원** 시간 드릴 테니까 그것 메모해 봤다가 이따 답변하시고.

이것은 자기 논문을 중복 게재한 표절도 아니고 타인의 논문을 표절한 것도 아니고 박사논문 135페이지, 이것은 ‘경영과학’이라는 학술지에 실린 겁니다. 박사논문 23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 29페이지, 2006년 교통연구원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구총서에서 다 베껴 쓴 겁니다. 이것은 각주도

없고 참고문헌에도 없고 아무런 표시 없이 하나 하나 그대로 베껴 쓴 겁니다. 명백한 표절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아까 인정을 해서.

그러면 후보자께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확인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은권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 의뢰를 해서 이 논문이 표절이냐 아니냐 확인을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런데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점은 있지만……

○**이은권 위원** 아니, 표절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만 확실히 하세요. 일부가 미흡하든 어쨌든. 일부가 미흡해도 표절은 표절이에요.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아니면 교육부에 해서 표절로 판명 되면 논문은 취소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작성 당시에 표절이 아니라고 봤고 또……

○**이은권 위원** 지금 표절이냐 아니냐 그것을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광운대에서 공식적으로 표절이 아니라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표절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과 같이 그렇게 많이 알지를 못합니다만 공식적으로 광운대에서 입장을 발표한 것이 있고 또 제가……

○**이은권 위원** 광운대에서 공식적인…… 잘못된 것이라니까요.

○**위원장 박순자** 이은권 위원님, 재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하시지요.

○**이은권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위원** 후보자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감사합니다.

○**김철민 위원** 오전 질의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후보자님께서 공직생활 30년 동안 해 오시면서 쌓았던 여러 가지 당당함을 자신 있게 표현을 해 주시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에게 오해를

사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질의하신 이은권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도 후보자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오해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신안산선이 지역 현안 문제인 것 같지만 실은 약 20여 명의 여야 의원들의 관심 현안 문제입니다. 신안산선 조기 착공에 대해서 혹시 보고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위원님 또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지역을 걸치기 때문에……

○김철민 위원 아니, 단답하세요, 단답.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 위원 작년 12월에 실시협약 체결한 것 아시고요.

국토부가, 그리고 1차관과 김현미 장관께서는 올해 9월 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몇 번에 걸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했습니다. 그 내용 보고받으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 위원 차질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하여튼 금년……

○김철민 위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다만 제가 하나 우려되는 것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 단계에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런 큰 대형 사업을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예를 보니까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그리고 평택-익산 고속도로 사업 등이 대표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부처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년간 착공이 지연된 사례입니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 위원 지금 우리 신안산선도 이런 예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아마 후보자께서 만약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지금도 국토교통부 담당 직원들이 환경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이 된다면 저도 장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쭙는 것은 저번에 안산시에도 연말, 12월 27일에 와서 저도 모르고,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해당 관심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안산시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주민 공람을 했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민들 한 이삼십 명 모아 놓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것을 다 오픈시켜서 공개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모든 분들 협조에서 속도 낼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욱 위원 연수를 출신 민경욱입니다.

워싱턴 특파원 할 때 대사관에 계시던 분으로서 잘 알고 있는 사이인데 제가 너무 심하게 질문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합니다.

그리고 제발 정책에 관한 것도 좀 질문해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GTX-B 노선 중요성 잘 알고 계실 텐데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게 있는지, 또 국토부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다 제출해서 지난주에 제출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수순이라고 보이는데, GTX-B 노선 6월 안에 예타 결과가 도출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GTX-B 노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A나 C 노선에 비해서 지금 늦어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타가 빨리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경욱 위원** 인천의 부시장이라는 분이 어디 가서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예타 면제 사업 고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서해 평화남북도로 사업의 예타를 면제하기 위해서 GTX-B 노선의 면제를 안 해도 된다고 뽀뽀 우겨서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에 차관계 내가 여쭙는데도, 질문했는데 답이 안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답을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인천-서울은 신도시를 만들어 놔는데 제지역구인 송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갈 수 있는 교통편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서울역을 간다고 해도 86분—1시간 26분—이 걸리는데 이제 GTX가 생기면 27분에 간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게 없어서 M버스라는 광역버스…… M버스지요, 광역버스 말고. M버스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폐선 위기에 몰렸습니다. 국토부차관 하실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었고 출퇴근을 제외한 시간에는 다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렇게 해 주시기로 했고 또 후보자께서는 그것을 기고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지금 폐선 위기에 몰렸고 거의 폐선될 것 같은데—준공 영제가 도입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준공영제를 하다 보면 많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전에 말씀하셨던 약속사항, 기고문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말씀하신 M버스가 경영 위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 다니지 못할 위기에 지금 처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대체 투자자, 대체 운행 기업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하고요.

지금 출퇴근 시간에만 집중되어서 M버스가 낮 시간에는 운행을 안 하면 또 수익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만 출퇴근 시간에 몰리는 문제는 반드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관심 갖고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만 불가피하게 운행할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수익성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봐서 준공영제가 됐든 뭐가 됐

든 가장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민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호 위원** 지금까지 제가 죽 지켜보면서 한번 정리를 좀 했는데요.

우선 장점을 먼저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 우선 국토부차관 하셨고 또 여러 부처 근무 경험이 많아서 가지고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정말 아주 뛰어나신 것에 대해서 장점으로 보고요. 또 부처 직원들의 신망이 아주 두터우십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면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아쉽지만 의혹을 좀 몇 가지만 정리해 봤습니다. 그중에 나중에 본인이 ‘이것은 내가 꼭 해명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계시면 그건 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홍철호 위원** 우선 잠실 아파트 매입 이후에 재개발 승인이 났어요.

또 두 번째는—이제 의혹입니다—분당 아파트를 두고 잠실 아파트를 매입한 것은 시세 차익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고요.

부평 소재 모친 관련해서 뉴스테이 지정됨으로써 혜택이 막대했는데요. 그때 국토부 고위직으로서 영향력 행사 여부, 또 세종시 특별분양이 장관이 될 거라는 선견지명이 있어서 신청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 그건 좀 무리한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고요.

문제점은 청와대가 3주택 인지하고 임명 절차를 그냥 진행한 것 아니냐, 또 인사청문 시점에 투기성 다주택자 아니면 과거는 묻지 않는다 이런 인사 방침을 갖고 하는 거냐, 또 장관비서실장 시절에 투기과열지구 지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입했다, 또 분당 것 양도하지 않은 것은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증여를 했는데 증여하고 났으면 그냥 사시면 될 텐데 부모자식기간에 그걸 또 월세 계약해서 계속 월세를 낸다는 것이 과연 국민 정서에 맞는가, 그리고 논문이 표절이라는 데에 원론적 동의를 하셨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문제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한 5개, 의혹이 한 4개, 그리고 아주 좋은 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제가 ‘이건 좀 너무 심하다’ 하는 게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

것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부동산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장관후보로서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을 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부동산 이런 면에 밝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에도 밝지도 못하고요. 잠실도 사실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시다마는 제가 신혼 때 서울에 거주도 했고 그러다가 이사도 여러 번 하다가 또 분양주택에 몇 번 신청했다가 안 되어서 공무원 아파트 25평으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가 있어서 또 아이들이 미국 주재관 갔다 오면 대학도 들어가야 되고 여기가 통학 문제가 있어서 서울에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정말 거주할 목적으로 잠실 아파트를 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오를 줄 제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제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 투기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목적이 아니었다. 다만 제가 정말 잘못된 것은 잠실 아파트가 준공이 될 때 분당 아파트를 정말 과감하게 처분하지 못한 점은 지금도 정말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실수했다고 정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평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부평 재개발 관련해서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당 증여 문제 여러 번 지적을 받았습시다마는 분당에 계속 증여를 하고 살게 된 것은 수개월밖에 살지 못한 그런 상황을 감안할 때 다른 데에 집을 얻는 것이 용이치 않아서 거기에 살 수밖에 없었고요. 다만 월세 계약을 과연 하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는 사실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는 것 또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차라리 떳떳하게 계약을 맺고 사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만약 제가 그 집에 살지 않고 다른 데로 가면 수증자 입장에서는 다른 세입자를 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떳떳하지 못하다고 봐서 월세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또한 지적을 받고 있어서 제가 생각한 의도와는 달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사려 깊지 못했다는 점, 그 점 역시 반성하고 있습니다.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제가 논문은 열심히 썼

습시다마는 표절 규정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해박하거나 잘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또 '국토연구'에 게재한 그런 논문도 제가 직접 쓴 거고 그래서 제 논문의 일부분을 처음부터 계획해서 작성한 거고 또 그래서 갖다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인용했다는 사실만 정확하게 밝히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고 또 지도교수 또한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미흡하고 인용부호도 제대로 붙이지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일부 과하게 인용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데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정말 겸허히 수용하고 달게 수용합니다. 다만 표절이나,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작성 당시에는 표절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서 했고 표절 시비에서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에 대한 좋은 평가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은 바로 시정을 하고 그걸 오히려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전환을 해서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칭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더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 국토교통부 직원의 신망을 받는 그런 기대에 부응해서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멋지게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각오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 잘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홍철호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다?

○**홍철호 위원** 예.

○**위원장 박순자** 질의 시간을 후보자가 답변으로 다 쓰셔 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후보자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감사합니다.

○**송석준 위원** 요즘 미세먼지 심각하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심각합니다.

○**송석준 위원** 오늘도 미세먼지 현상이 좀 있었
고요. 올 들어서, 지난해 이미 1년간 발생한 미세
먼지 현상을 이미 벌써 금년 들어서 초과됐어요.
OECD 국가 중에 거의 두 번째 미세먼지 오염국
가라고 그리고 미세먼지 심한 100대 도시 중에
44개 도시가 안성 등을 비롯한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다고 그러지요. 이런 심각한 미세먼지 대
책 주무부처가 어디인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미세먼지는 환
경부가 주관 부처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토
교통부 역시……

○**송석준 위원** 우리 국토부도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위원** 어떤 것을, 짧게 얘기 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 분
야에서 건설현장도 있고 또 경유차도 있고 또 국
토·교통 시스템을 대중교통시스템 이런 것도 친
환경적인 전철화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과제를
안고 있고 이 부분은 앞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해
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송석준 위원** 거기에 대한 로드맵 혹시 갖고
계신 것이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분야별로
로드맵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송석준 위원** 다시 한번 총체적인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자료를 보면 또 분
의원실에서 이렇게 후보자님께 대책 묻고 국토
부를 통해서도 대안을 물어보면 굉장히 단순한
대책만 갖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
인 패키지 로드맵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느낌
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점검 좀 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게 하
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것을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공간정보라는 것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알고 있습
니다.

○**송석준 위원** 이게 공간정보를 활용하면 모든
대기적인 요인과 지상의 모든 요인들을 종합적으
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간정보
구축을 3D로 입체적으로 지하까지도, 지상 그다

음에 지표 그리고 공중 대기 상태까지도 우리가
기본 인프라 공간정보가 구축이 되면 빅데이터를
같이 활용을 해서 얼마든지 오염원들을 추적하고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할 수가 있
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주변 부처가 아니고 미세
먼지 해결의 주무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게 하
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관계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 보
면 공간정보 컨트롤타워를 구성을 해서 대기화
지표, 지상, 지하를 아우르는 모든 오염원들을 우
리가 같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기 원인
분석 나와 있잖아요. 무슨 점적인 시설, 면적인
시설 또 이동하는 차량 이런 것으로 인한 모든
것들을 빅데이터와 공간정보를 같이 접목을 시켜
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보
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위원님께서 공
간정보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있을 때부터 강조하
셨고 그것을 몇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위원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런 토대가 잘 활성화되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
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석준 위원** 이번에 미세먼지 TF, 무슨 추경
을 하느니 하는데 엉뚱한 데 돈 쓰지 마시고요.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이 무슨 돈 퍼붓기, 대중교
통 면제 이런 일 하면서 엉뚱한 데 무수한 돈을
썼는데 그런 돈 말고 실효적이고 뭔가 제대로 작
동할 수 있는 그것을 이번에 국토부 차원에서 전
문가들하고 상의하셔서 잘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추경에 필요한
사항들 적극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된다면, 통과되신다면……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게 하
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송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수 위원 후보자님, 국토부 죽 계시면서 물관리 업무 통합, 특히 수질 관리하는 환경부, 수량 관리하는 국토부 사이 업무 통합에 대한 논의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서형수 위원 후보자가 기억하기는 언제부터 이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보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수십 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 일이십 년이 넘는 그런 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관리 업무 통합 자체가 이 정부 들어와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고 그전에 죽 논의됐던 것을 이번에 결실을 본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4당 합의에 의해서 어쨌든 결론이 지금 났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는, 특히 국토부하고 환경부 사이의 그 업무 이관 자체가, 문제는 그때 저도 특위에 참석하면서 어쨌든 국토부와 환경부 사이의 물관리 업무 자체는 어디로 가더라도 한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처음 출발점이었는데 사실 결과는 국토부에 있던 수자원 보전·이용 자체는 환경부로 넘어가고 하천관리만 남게 됐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환경부하고 국토부 사이의 단절 자체가 지금 거꾸로 또 보면 국토부에는 하천만 남게 되는 이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조직도를 보면 어정쩡하게 수자원정책국은 없었지만 거기에 있던 하천계획과 자체가 온존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환경부하고 국토부 사이의 전체 하천관리 업무에 대한 계획 수립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다 중복이 되거나 아니면 누락될 우려가 있는데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냉정하게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현재의 이런 업무 이관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당시에 자리를 비웠으니까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가 된 건 알고 있고요. 다만 하천 부분이 국토부에 남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법도 지금 제기가 되어 있고 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기

상청의 소관이 환경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도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면 일본처럼 기상청이 국토부 소관으로 오고 국토부에 남은 하천 업무 자체가 아예 전체 환경 쪽으로 가야 업무의 어떤 통합성이라든지 이런 게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 관계는 제가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형수 위원 그런데 우선 지금 하천 업무만 남아 있게 된다면 이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낭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송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 화면을 띄우고 난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예, 아직 시간 넣지 마시고요.

○송언석 위원 후보자님, 오늘 계속 동일한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저도 같은 공직자, 공무원 출신으로서 공직자의 가장 큰 덕목은 신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보면 계속해서 말 바꾸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부동산 투기 의혹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짚었기 때문에 두말할 필요가 없이 실거주 목적은 전혀 아니었다. 실거주 목적으로 3주택이 있었다고 그러면 몸을 세 군데로 나눠서 가서 거주하고 있을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로 통보받은 시점도 처음에 1월 20일경이라고 했다가 후보자군이라고 또 바꾸면서 3월 7일이라고 말을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위원님, 그건 말을 바꾼 게 아니고요.

○송언석 위원 들어 보세요.

검증의 신뢰성마저도 지금 의문이 제기되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영남권 신공항과 관련해서도 많은, 당초에는 원안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답변 과정에서 부·울·경의 검증단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걸 잘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후보자께서 그동안에 굉장히 열심히 공

직에 헌신해 온 점을 우리가 충분히 인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쉽게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소신이 있는 것인가, 장관의 직위에 오른다고 해서 정말 소신 있게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정책을 잘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후보자님이 잘 인식을 해야 될 거다.

(박순자 위원장, 윤관석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마지막에 표절 의혹 부분 이걸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하나 읽어 드릴게요.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특정 논문의 연구부정행위가 제보된 경우에는 이 지침의 16조에 따라서 조사위원회를 개별적으로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2조에서 조사 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는 또 조사위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광운대학교에서 지금 자료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런 조항을 하나도, 교육부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지요. 최정호 후보자의 논문을 승인해 준 바로 그 지도교수가 표절 검증을 했다는데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믿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이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들이나 국민들은 도저히 이것이 상식적으로 인정이 안 된다,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면 오늘 후보자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을 요리조리 잘 피해 나간, 기름 바른 장어처럼 잘 피해 나갔어요.

그렇지만 전체 과정을 보면서 언론이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분이 너무 쉽게 말을 바꾸는구나, 상황에 따라서 태도를 바꾸는구나, 이런 부분에서 공직자의 신뢰성이 굉장히 의심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후보자 통보·검증 말씀 하셨는데요 장관후보자 내정, 장관후보자 그다음에 장관 지명 통보 이런 거하고 용어가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건, 후보자라는 것은…… 후보군으로 몇 분이 후보가 됐는지는 모릅니다. 검증됐을 그 당시를 제가 1월 20일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정확한 날짜를 확

인해서 1월 24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월 24일 날 제가 검증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 바꾸기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남권 신공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문제가 제기되고 의의가 있고 그런 요청이 있으면 당연히 담당 부서에서 지역의 의견을 검증하고 들어 보고 또 저희가 주장할 바는 주장하고 이렇게 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장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표절 의혹은, 정말 제가 열심히 썼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부 규정에 미흡했던 점 정말 솔직히 인정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표절이나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말 바꾸기 아니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언석 위원** 그런데 앞선 존경하는 이은권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는 분명히 미흡한 점이 있다, 그래서 표절에 해당된다고 답변했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송언석 위원** 들어 보세요. ‘분명히 미흡한 부분은 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죄를 하셨고……

○**위원장대리 윤관석** 정리 좀 부탁하겠습니다.

○**송언석 위원**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하셨고 그다음에 표절 부분도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는 문제는 분명히 있다 이거지요. 그렇지만 향후에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후보자께서 장관 직위에 오를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동안의 관행상 볼 때.

또 그런 부분에서 과연 그러면 장관이 되었을 때, 앞서 홍철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소상하게 밝혔지만 정말 소신 있게 국민만 바라보면서 제대로 된 정책을 제대로 반듯하게 집행하겠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잘 지킬 수 있겠느냐

나 이것을, 국민적인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반성을 하시고 제대로 한번 할 수 있도록 소신 있는 답변을 짧게 10초만 해 보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하여튼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소신 있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관석** 송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지켜본 것으로 봐서는 국민적 감정에는 조금 부합하지 않는다, 서민 주거를 책임지는 국무위원으로서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꽤히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에서 저는 그런대로 희망을 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도 염치를 아는 후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만일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정말 만회하는 심정으로 서민 주거를 위해서 10배 노력해 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이용호 위원** 그리고 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갑자기 섬진강댐 옥정호 수변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다시 한번..... 갑작스러워서 아마 못 챙겨 봤는지 모르겠는데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시행령을 국토부가 아마 마련 중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물관리 관련해서 이게 자꾸 환경부로 넘어 가니까 우리는 손을 털겠다 그런 기류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국토부가 해서 이런 주변 지역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챙겨 보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현 정부가 얼마 전 1월 29일 날 예타 면제 23개 사업 24조 1000억을 발표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거는 국가 균

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또 지역 경제 살리기에 큰 보탬이 된다고 판단해서 정부에서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예정대로 그게 다 추진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타 면제를 한 목적이 빠른 속도감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호 위원** 지금 국토부에서 15개 검토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15개가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이용호 위원** 그런데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국토 균형 개발도 좋지만 결국은 이게 경제성 따지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대부분 보면 철도·도로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건설되고 나면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그럴 경우에 결국은 요금이나 통행료를 인상하는, 올리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요. 이런 것 좀 잘 따져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지금 R&D 사업은 2022년 이후에 예산을 반영토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새만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올해 2019년도에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새만금공항 같은 경우는 2023년도의 잼버리대회에 맞출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 봐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소관 예타 면제 사업 중에 도로·철도는 풀로 적격성 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바로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계획 수립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요. 도로·철도는 다행히 풀 예산으로 이미 확보가 되어서 기본계획 수립 예산은 다 확보됐다는 말씀 드리고, 다만 지적하신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수립비는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예비비라든가 추경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른 예타 면제 사업과 같

은 속도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챙겨 보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관석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까지 위원님들의 말씀들을 들어 보면 최
후보자님께서서는 국토부의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
하면서 탁월한 업무 처리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습
니다.

거기에다 저로서는, 그 외에도 중앙행정 경험
외에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를 지내면서 지방행
정 경험까지 갖추었는데요. 제가 전북 의원으로
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시
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
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30년에 걸친 중앙정부 및 지방행정을
경험하면서 이런 훌륭한 업무 능력과 균형 감각
을 갖췄기 때문에 장관으로 만약에 임명되시면
우리 지역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
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번에 정부가 23개 사업에 대해서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북에는 2개 사업
이 됐고요.

이것은 그간 지역 균형발전이나 지역 경제 활
성화에 꼭 필요한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예타
제도의 한계 때문에 사실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었던거거든요. 낙후된 곳은 계속 낙후될 수밖에 없
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가 전략
적으로, 말하자면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
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략
적으로 예타를 면제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시급
하게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
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새만금국제공항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 작년에도 이게 논란
이 됐었잖아요. 기본계획 수립 예산이 조건부라
도 좀 반영이 됐으면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예타
면제가 되어서 진행은 되게 됐습니다마는 올 언
제까지 이게 적정성 검토가 끝나게 되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지금 계획상 금
년 상반기 중에 끝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 상반기 전에 끝납니까? 그러면
상반기에 끝나면 그다음 절차가 기본계획 수립이
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맞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런데 지금 관련된 예산이 올해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올해 못 하는 거니까 그
것은 어쨌든 내년으로 넘기지 말고 올 중에 그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아시는 것처럼 2023년 잼버리대회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각별하게 적
극적으로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각별하게 챙기
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관석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
니다.

다음은 이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희 위원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해서 초가집을 벗기고 지붕을 만들었는데 첫째가
지붕의 색깔을 자율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지붕
을 만들지 말지도, 그러니까 짓다 만 슬래브 집
까지도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
의 전반적인 아름다움을 결정적으로 수준이 떨어
지게 만들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의 아우토반을 보고 경부
고속도로는 건설을 했는데 독일 주택의 아름다운
지붕까지 볼 수 있는 안목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
니다. 그래서 우리는 50년이 지난 아직도 지붕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문화적 공감대를 가지고
있지 못하네요. 지붕은 건축미의 90%를 차지하
는 것이거든요.

(윤관석 간사, 박순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우리나라 지붕 색깔이 다양한데 집들의
모양이 획일적이고 지붕 색깔이 통일적인 것
이…… 뭔가 다양한 사회에 맞지 않느냐 이런 것
이 아니라 그 원리는 꽃은 군락으로 피어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집 한 채를 꽃이라고 보면 같은 집이, 같은 지붕 색과 벽돌색의 집이 모여 있을 때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연출하는 건데 제가 아까도 강조드렸듯이 GNP만 높다고 선진국이 아니라 의식과 문화의 선진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이제는 10년 안에 세계 1등 국가로 가자 그런 국가적 목표를 가져 본다면 건축도 아름다운 지붕을 만들어서 국토부의 구호답게 국토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고요.

같은 맥락인데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 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없앤 명분이 생활쓰레기를 갖다 버린다, 그래서 없애야 되겠다는 유치한 발상으로 없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쓰레기통을 안 만들어 주는 건 국민을 쓰레기를 버리는 교양 없는 수준 낮은 국민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버릴 게 있으면 100m든 200m를 가면 쓰레기통이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그걸 들고 갈 것 아닙니까? 없다고 생각하니 그냥 길거리에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학생들, 자녀들, 누가나가 쓰레기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냥 막 버립니다. 이러한 국민으로 10년 안에 세계 1등 국가로 도약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 가지 질책도 많이 받으셨는데 정말 10년 안에 세계 1등 국가를 만들어 보겠다는 남다른 열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자신감, 높은 수준의 애국심을 가지고 국가에 크게 기여하시는 장관이 되시기를 바라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희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이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대구 서구 김상훈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

문제를 지적하셨고 또 박사학위 논문 표절 문제는 자기표절에 대해 지적하신 위원님과 후보자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 자기표절이기는 하지만 후보자가 직접 작성하고 기록한 내용의 중복 게재라는 점에서 다소 비난의 강도가 약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후보자님의 두 자녀가 국외 전형 특혜 입학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요건을 보면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장남·장녀, 두 자제 분이 연세대, 고대에 정원 외 입학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재외 근무 3년의 요건을, 이미 두 자녀를 특례입학을 시키기로 작정을 하고 해외에서 공부를 시킨 건가요, 어떤가요? 제가 자세한 정황을 좀 알고 싶은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저는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대사관에 그때 건설교통관으로 나갔었고요. 주재관 근무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는 과정에 우리 애들은 자연스럽게 미국으로 같이 이주하게 됐고요. 그래서 특례입학 특별전형 대상이 되어서 한 거고요. 그래서 전혀 그 과정에 특혜라든가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훈 위원 최소한의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특혜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재외 근무 3년의 최소한의 요건 충족을 통해서 쉽게 입학시키기 어려운 연·고대에 어쨌든 정원 외 입학을 시켰다는 부분은 일반적인 국민들의 감정에서 보면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중에 한 자녀는 대원외고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런 학생을 재외 근무 3년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특례입학, 정원 외 입학을 감행할 정도의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 저는 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특례입학 특별전형에 문제가 있었다면 대학의 입학전형 과정에서 분명히 걸러졌을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원외고는 저희 딸애가 대원외고에 합격해서 입학했습니다. 합격한 상태에서 등록금을 냈습니다만 미국에 저하고 불가피하게 가는 바람에 다니지 못하고 저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드리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제 딸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대원외고 잘 다닐 수 있는데 왜 미국에 데려갔느냐

이렇게 해서 오히려 제가 딸한테 불평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대원외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다고 정말 단연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후보자님, 대한민국에서 재외 근무자의 자제로 그 요건을 충족시키고 정원 외 입학할 수 있는 학생들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공무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민간 기업 자제도 해당이……

○**김상훈 위원** 물론이지요. 그런데 그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 비율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김상훈 위원**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 보지는 않았습시다마는 아마 3%도 채 되지 않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연대, 고대에 정원 외 입학한 자녀가 후보자님의 자녀라는 그게 저는 좀…… 재외 근무에 데리고 가서 그 자녀들이 정원 외 입학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입학했다 하는 그 자체가 저는 부동산 투기와 같은 그런, 거기에 준하지는 않겠지만 나름……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말씀입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공무원이든 민간이든 해외에 주재한 자제들이 국내에서 공부한 학생들과 동일한 시험을 거쳐서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정원 외…… 제가 한 2%라고 기억을 합니다만 2%를 상대로 해서 그런 대상자끼리 경쟁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게 특혜라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경쟁률이 센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 애들이 그 학교에 들어갈 때는……

○**김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아마 국회방송이기는 하지만 청문 과정을 지켜보시는 여러 국민들께서 과연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고 동의하실지 그거는 그분들의 판단에 맡겨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요건상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재외 근무를 하러 가는 부모님과 함께 동행 수학하고 들어와서 경쟁률이 굉장히 낮은 정원 외 입학으로 두 사람이 명문대에 입학했다는 것은 저는 어쨌든 요건상의 문제는 없지만 국민들의 일반적인

감정으로 봤을 때 한번 짚어볼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그 나름대로 굉장히 경쟁이 세고 제가 기억하건대 재외국민특별전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스쿨이 생기면서 법률학과도 없어지고 또 대상자도 많아지고 해서 정말 치열한 경쟁 또 많은 공부를 해서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들어갔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지적도 제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어렵게 공부해서 들어간 애들의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들지 않도록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咸珍圭 위원** 저도 재산 문제나 논문에 관해서는 많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후보자님께서 논문을 쓰신 게 언제예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제가 2012년도에……

○**咸珍圭 위원** 12년?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논문이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咸珍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감된 때가 언제예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2011년도입니다.

○**咸珍圭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논문에 대한 정의가 만들어진 게, 표절이나 아니냐가 만들어진 게 2007년도에 고려대학교가 최초로 했고 서울대학교에서 2009년도에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잘못이 전혀 없는 걸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논문 표절의 일반적 기준이 첫 번째가 6개 단어 이상을 무단으로 인용한 경우, 두 번째가 6개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으로 이용하는 경우, 짜깁기 논문, 토막 논문 표절임. 그다음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면서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일곱 번째 자신의 예전 자료를 재인용하거나 같은 연구, 과거 저작물과 새

로운 저작물을 구분하지 않고 중복 게재함, 학술지 여러 군데 중복 게재함.

그러니까 본인 입장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그게 정당하다는 게 아니고 직장 생활 하셔서 대학원 다니면서 하셨기 때문에.

교수직 하신 건 없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咸珍圭 위원 이거 박사학위 논문 갖고 교수하고 그런 건 별로 없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咸珍圭 위원 그래서 이게 본인이 생각한 것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은권 위원님도 많이 따지셨는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고.

정책적인 것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까 김철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신안산선이요, 만약 장관이 되시면……

신안산선하고 월곶-판교선이, 여야 의원 한 20여 명이 여기에 다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 지역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8월에 착공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거 내용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咸珍圭 위원 그런데 문제는 광명 KTX까지 2개가 와서 거기에서 만나잖아요, 월곶-판교선하고 신안산선하고 둘이 만나잖아요. 거기에서 매화역을 거쳐서 시흥시청까지 와요. 거기는 두 노선이 공유 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월곶-판교선, 신안산선이…… 사실 신안산선이 8월에 착공하지만 2024년까지 개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흥시에서 판교까지는, 그러니까 장곡역을 거쳐서 가는 게 한 삼사 km, 사오 km 이 정도 되는데 거기는 또 월곶-판교선이예요, 같이 공유해서 오다가. 그것의 개통연도가 1년이 늦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25년이예요.

한 5분만 더 주세요.

(웃음소리)

(「5분을 어떻게 줘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순자 1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하십시오.

○咸珍圭 위원 너무 야박하지 않나요?

후보자님, 이게 같은 시에서 항렬이 다른 거지요. 족보가 다른 거지요. 그러면 내가 왜 이 말씀

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흥시에 임대주택을, 서민주택을 엄청 많이 지어요.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게 국가의 의무예요. 의무.

그런데 두 노선을 공유하는 구간은 2024년에 개통하고 거기서 몇 km 안 되는 곳은 족보가 다르다 그래서 그것은 1년 후에 하고, 국민들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잘 되어서 혹시 통과되시면 저희 지역에 한번 방문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방문할 수 있도록……

○咸珍圭 위원 이걸 제 지역의,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예요. 한 20여 명의, 여당 의원들이 더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여기요. 잘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택지지구 내에 은계지구라는 게 있어요. 내용 잘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알고 있습니다.

○咸珍圭 위원 시에서 국토부에 뭘 올렸는데 이게 기존 택지지구에, 보금자리 특별법이라는 것을 광명의 백재현 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예전에는 수도권에서 택지개발을 하면 기존에 있던 공장들 그냥 보상만 주고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졌으면 됐지만 광명의 백재현 의원이 법안을 냈기 때문에 임의 규정이기기는 하지만 대체부지 선정을 해 줘야 돼, 어딘가는. 그것을 안 해 주니까 수도권에서 택지개발하면서 기존의 가내공업이나 이런 공장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곳도 교육지책으로, 그런 대체부지를 선정을 못 해 주니까 자족시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게 몇 십 개 되는데 굉장히 논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검토를 해주셔서, 시흥·광명지구에 산단도 생겨요. 그것 몇 십 개 안 되기 때문에 합의를 해서라도 이전시켜 주는 게 좋고.

저희 지역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또 주거지역에 공장이 혼재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지하고 공장하고 혼재해 있으니 그게 오죽하겠어요. 그것도 산단을 통해서라도 흡수해 줘야 됩니다, 무슨 지방에서 공장들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런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알고 있습니다.

○**咸珍圭** 위원 택지개발을 하는데 대체부지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선정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갈등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숙고를 해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잘 챙겨 보
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함진규
위원님.

○**咸珍圭** 위원 5분 됐어요?

○**위원장 박순자** 예, 5분 됐습니다.

○**咸珍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잘 알겠습
니다.

.....
○**위원장 박순자**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삼** 위원 질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11년 광운대 부동산학과를 몇
년도에 들어가신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2008년도에 들
어갔습니다.

○**이후삼** 위원 왜 가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공부를 더 하고
또 제가 논문 쓴 게 노후산업단지 재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근무하면서 국
토교통부의 현안인 그런 것에 공부를 좀 더 해
보고자 박사 과정을 들어갔습니다.

○**이후삼** 위원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그 이후로 철도정책관, 대변인, 기조실장, 차관까
지 하시고, 정무부지사까지 하셨다가 지금 후보
자 위치까지 와 계신데요.

부동산학과 박사학위 논문 때문에 혜택을 받거
나 승진이나 이런 데 뭔가 도움을 받거나 한 게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런 것은 없다
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것으로 인해서 산업단
지라든가 어떤 단지개발 이런 것에 대한 제 기본
베이스는 조금 더 충실해졌지 않나 싶습니다.

○**이후삼** 위원 하나 남은 게 배졌느냐 이겁니
다. 후보자 본인께서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
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열심히 썼
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인용 이런 부분은 조
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후삼** 위원 그러면 인용 과정에서의 약간의
오해 등등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러저러해서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갔던
거고 이것 때문에, 그래도 차관까지 했는데 부동
산학과 박사학위가 내 인생에 뭔가 혜택을 받은
것도 없고 내가 배길 이유가 없었다라고 그냥 당
당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오히려 논란의 여지
가 좀 덜했을 텐데 후보자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
서 마음이 착하셔서 그런가 인용 과정의 문제 이
런 지적들에 대해서 조금 정확한 표현을 좀 사용
을 못 하신 측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또 하나 제가 여쭙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미 대사관 근무를 하셨는데 아이들 학교 때문
에 그렇게 대사관 근무할 수 있도록 부처에서 배
려도 해 주고 이런 케이스도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게 주는 아니
고요. 대사관 근무하는 것은 또 부 내에서 적격
자를 하고 또 외교부의 심사 과정도 있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요.

○**이후삼** 위원 그래서 선후 과정을 좀 분명히
해 주셔 가지고…… 아이들이 무슨 죄입니까? 아
이들이 이런 문제 가지고 또 아버지 문제 때문에
상처 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확한
답변을……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렇습니다. 그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의 대학입학 과
정에서 전혀 의혹은 없다고 단연코 말씀드리겠습
니다.

○**이후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이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윤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위원 후보자께서 오늘 하루 종일 쪽
답변하신 내용들 정리를 여러 분들이 하셨습니다
마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정부의 장관 인선 기준
에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제가 볼 때도 그동안
청문회 과정이나 자료제출 과정이나 언론의 반응
을 봐도 인사 5대 기준이나 10대 기준에 그렇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처음에 제가 질의할 때 국토부의 관련 단체이기는 하지만 노조나 또 국토교통연대, 다양한 데서 업무의 능력이나 그다음에 경험이라든가 경륜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환영하고 이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다만 국토부장관으로서의 본인의 소신과 철학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개인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의 관리에 대한 문제가 주택 보유 때문에 지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한 30년 전부터, 그냥 다 그때부터 투기 목적으로 분당 아파트를 96년도에 가졌고 2003년도에 잠실을 가졌고 또 2017년도에 세종시에 특별분양을 요청하고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그게 다 하나하나 그렇게 뭔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사실상 다가구, 3주택 보유했다는 것을 인정하셨고 다만 하나는 분양권인 상태를 명확히 얘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각각 16년에서 23년에 걸쳐서 거주를 했던 건데 그렇게 긴 기간 동안에 단기 차익을 노려서 하는 투기라든지 갭 투자 이런 것과는 거리가…… 시간이 저는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안 좋게 보면 그런 구성이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서 진행이 되어 온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실제 각각의 진행됐던 과정과 또 시간과 또 그 스토리들을 보게 되면 각각의 연관성들이 제가 볼 때는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위해서 수십 년 간 준비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아마 없을 거고 그것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아쉬움이 있다면 좀 더 빨리 다주택에 대한 처리들을 했었던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것은 위법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장관의 자리를 맡으시는 과정에 있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도 또 거기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사과를 하셨고 또 앞으로 빨리 처리하겠다 이런 의지를 명확히 밝히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래서 빨리 1주택으로 정확히 처리해서 이런 의혹들이나 또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좀 신속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논문 표절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얘기가 있습

니다. 물론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또 본인의 의견 또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필요하면 추가로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한 인정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지적이 의혹에 불과한 것도 있고 또 귀담아들을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하나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받아들이셔서 이후에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오늘 좋은 격려 말씀도 해 주시고 그에 앞서서 저의 부동산 보유, 논문,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저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 부족한 점 정말 따가운 질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당연히 받아야 될 질책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겸허히 수용하고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또 만약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면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또한 저의 앞으로의 삶의 좌표로 삼아서 정말 공직자로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일을 제대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윤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윤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를 끝냈습니다.

다음은 재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 경기 하남 이현재 위원입니다.

장관후보자에게서는 모두발언에서 어느 국민도 집 걱정이나 이사 걱정 없도록 촘촘히 주거복지를 챙기겠다,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주거 취약계층 챙기겠다고 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이현재 위원** 그런데 10년 공공임대 들어간 분들이 말이지요. 10년 공공임대 들어간 분들이 지금 현재 그 판정기준이 5년은 감정이 플러스 건설원가 해서 시가의 한 80% 정도 되는데 10년 공공임대 들어간 분들은 이게 감정가로 하니까 분양시점이 되면 한 3배 정도가 올라요. 지금 한 1억 6000~7000이 한 6~7억이 돼요. 그러면 집에서 쫓겨나게 되거든요. 그 사이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국토부에서는 지금 기간 연장하지 가격 변화는 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장관후보자에게서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이해가 부족하실 텐데……

장관후보자는 30년 동안 국토·교통의 전문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행정을 혁신을 해 주십시오. 직원 이야기 듣고 맨날 현지 이렇고 하지 말고. 그런 면에서 10년 공공임대에 대해서도 획기적으로 제기된 문제…… 그분들이 10년 있다가 집 분양 받을 줄 알았는데 10년 지나면 3배라서 쫓겨난단 말이지요. 이게 되겠습니까?

간단히 답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많은 지적이 있고 또 일부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만……

○**이현재 위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로 말 그대로 쫓겨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니까……

정말로 국토·교통 30년 했다 그리고 전문가라고 하면 무언가 실질적으로 행정을 혁신해야지, 이제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전부 또 그 조직의 틀에 잡혀서 조직논리로 가 버린다는 말이지요. 장관이 되면 그렇게 안 하실 소신, 자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그것 좀 해서 대책을……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을 주시고요.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여기 서면질의 답변에 즉 보면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 3기 신도시의 문제가 뭐냐 하면 서울 분들의 집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 인천에 갖다 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시가 보상 및 주거 대책을 먼저 세워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그분들 먹고살 직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산업단지가 있어야 되는데 집만 지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로서는 교통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통망도 촘촘히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지역 애기를 해서 좀 뭐합니다마는 하남의 미사신도시하고 남양주의 신도시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데—수석대교라고—이 부분도 자세히는 모르시겠습니까마는 기존에 만든 신도시도 교통이 엉망인데 새 신도시 다리를 거기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하든지 그냥 발표했으니까 유아무야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과감하게 다른 대안을……

○**위원장 박순자** 마무리하세요.

○**이현재 위원** 어떤 분은 5분을 썼는데, 1분 주시지요.

○**위원장 박순자** 또 재재추가질의하실 분들이 계셔서,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대책을 좀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시간 더 하시지요.

이현재 위원님, 시간 더 쓰세요.

되겠습니까?

○**이현재 위원** 재재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후보자님 답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지적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수석대교, 산업단지……

수도권 외곽의 신도시도 어느 정도의 자족성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도시첨단산업단지도 그렇고 기존의 산업단지도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현재 위원** 전향적으로 좀 해서 산업단지 같은 것을 넣어서, 거기서 자족이 되어야 되는데 집만 지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수석대교도 기존 만들어 놓은 신도시에다가 다리를 거기에 갖다 놔서 그냥 전부 범벅이 되게

만드는…… 참 이런 발상을 하는 자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신중하지 못하다,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 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전문가라면 행정혁신을 좀 하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이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아까 논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으셨는데 사실 논문 관련해서 우리가 보면 대학교수나 대학교를 통해서 공직을 나가거나 이렇게 해서, 그를 통해서 특별한 이익을 취했던 경우에 많은 엄정한 상황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그로부터는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표절 여부에 관한 최종의견을 광운대학교에서 보낸 의견을 보면 ‘표절 판단의 핵심사항은 인용에 대한 표기이며 참고문헌과 각주를 통해 출처를 명기하는 것은 인용에 대한 사항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인용표기 부분에 대한 보다 세밀한 기술과 명기는 다소 미흡했다고 판단되나 인용표기의 사실은 영향을 주지 않음. 따라서 최정호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은 표절이라고 볼 수 없음’.

이렇게 실제로 그 시기에 차관을 하면서, 공직 생활을 하면서 했던 논문의 진실성이나 내용에 관해서 같이 했던 연구교수나 학교에서 판결하는 정도라고 본다면,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얻고자 하는 기본적인 이해가 없다면 그것을 가지고 그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느냐, 그 문제는 좀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가 주택 소유가 1900만 세대 중에 56%는 자가 소유, 44%는 자가 소유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정책이 나갈 방향이 44%의 주택이 없는 서민에 대해서 어떻게 주택을 보급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걱정하는 지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좀 명확히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최소한 2가구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230만 소유주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있다면, 주택을 통해서 투기를 통

해서 재산 증식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좀 더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사는 사회로 갈 수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후보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후보자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제기하지 않았다면……

저는 넓게 보면 이번에 공직후보자로 올라온 7명 후보들 중에 전문성과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는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데 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한번 후보자의 견해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감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7대 기준에 위반한 게 있느냐라는 질문 말씀에 거기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점 많고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성하고 업무를 더 제대로 하고 더 열심히 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더 가다듬는 그런 계기로 반드시 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위원**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광역교통위원회가 출범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송석준 위원** 잘 될 것 같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국토교통부와 광역교통위원회는 한 몸으로 우리 광역교통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송석준 위원** 제가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님하고도 같이 말씀 나눠 봤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것도 같아요. 우선 제대로 기능을 작동하려면 재원 확보 문제에서부터 또 지자체 확보…… 또 현실적으로는 교통이라는 것이 단순히 도로·철도망 까는 문제가 아니고 기존 도시의 토지이용계획과 연계해서 예를 들면 거점 정류장이라고 하는 환승시설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과정이 녹록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광역지자체 간에 또는 구체적으로는 기초지자체의 협조를 통해서 서로 논리적인 연계 관계가 필요한데, 그래서 여기에서 단순히

그칠 것이 아니라 어찌면 광역권을 전체로 묶어 주는 토지이용계획과 교통시설계획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 서로 협조를 구하기도 쉽고 현실화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특히 광역권 교통시설의 문제가 주요 대도시별로 많이 있지만 수도권이 가장 첨예하지 않습니까? 또 가장 심각하고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만 해도 여러 위원님들이 수도권과 관련해서 광역교통시설 부족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수도권 정비계획에 대해서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혁신도시 그리고 행복도시 세종시, 기업도시 이런 구상을 밝히면서 전국의 국토를 재검토를 하면서 다시 근본적인 수도권 규제를 재검토하겠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의 전체적인 발전계획 이러한 측면에서 재검토가 되다가 이게 중단되어 있어요. 이번에 광역교통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해서 근본적으로 수도권 규제 전체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를 해야 될 때는 해야지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 국부적으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너무 많아요.

한 예로 이번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주변 지역의 규제만 조금 풀어 주면 확장을 해서 현실적인 필요 정도까지 이렇게 공장 신·증설이 가능한데 그것이 지금 자연보전권역 규제에 딱 묶여 있다 보니까 전혀 엉뚱하게 새로운 123만 평을 바로 같은 수도권인 옆 동네에다가, 비자연보전권역에 무리한 이런 투자를 또 해야 돼요.

이런 문제, 종합적으로 수도권 규제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광역교통위원회와 연계해서 재검토할 의사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만 광역교통과 토지이용계획이 같이 연계되고 부합되어야 된다는 좋은 말씀 주셨고요.

광역교통위원회가 출범이 되어서 지금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용역도 하게 되어 있고 또 당면한 과제도 이제

시도 간에 협의를 해서 해결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규제완화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가 있어서 또 국민적인 합의도 필요한 사항이고 해서 좀 신중하게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송석준 위원** 신중,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재검토를 할 때가 이제 온 거예요. 지금 그나마 그동안 버티고 있던 행자부도 내려갔잖아요. 이제 이전할 것은 거의 다 이전했고 국토 대개조라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국토부가 주동이 되어서, 환경부로 간 물 문제를 비롯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가져올 것은 가져오고 풀어 줄 것은 풀어 주고 얹어낼 것은 더 얹어낼 수도 있어요.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저희가 마침 4차 수도권 정비계획을, 2021년부터 시작되는 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차근차근 준비해서 위원님 말씀도 유념하면서 우리 국토의 균형발전 그런 가치도 구현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송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권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두 분 추가 재질의를 하셨는데 다시 신청하실 위원님은 더 신청해 주시고……

이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권 위원** 후보자님, 제가 오전 질의 시간에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잘 넘어가고 오후에 재질의할 때 인정을 하셔서 중간에 그만뒀어요. 그런데 바뀌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심해도 엄청 심한 박사는 문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 표시, 우리 직원들하고 일주일, 밤늦게까지 다 이게 확인한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것을 다 보여 드리지는 못하고 나열을 못했는데 이게 한두 페이지가 아니라, 이런 지경입니다. 이게 지금 두 권이 있는데, 제가 논문을 표절했다 이것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장관후보로서 인정을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을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면 난 더 이상 논의 안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반복하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추궁을 하는 거고, 그러면 오늘 밤을 새워서 일대일로라도 질의를 통해서 이것을 한번 밝혀 봅시다. 밝혀 보시고 이 문제를, 우리 후보자의 논문을 교육부나 한국연구재단에 문의해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의향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일부 미흡한 부분은 제가 인정을……

○**이은권 위원** 일부 미흡한 부분도 인정을 하셨지만 그것도 표절이에요. 자기표절의 경우 후보자께서 인용 기법이 미흡했다 칩시다. 이것도 따지면 표절이에요. 또 산하기관 논문을 베껴 쓴 것 역시 후보자가 방법을 몰라서 그랬다 칩시다. 이것도 표절이에요. 그렇다면 참고문헌도 각주도 없이 베끼기 한 것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표절이 아닌가요? 이것도 당연히 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용기술 방법이 미흡했다든지 후보자가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랬다든지 인정을 했으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것은 표절에 해당합니다’ 하면 더 이상 저는 따지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후보자가 그래도 양심이 있구나, 그러면 장관으로서 뭔가 직원들, 부하들에게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이해를 구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 판단을 보려고 한 거예요. 논문을 표절했다고 그래서 문제 삼으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인정을 할 줄 모르고 끝까지 반박을 하면 저도 끝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광운대 그게 미흡하다 말씀하셨습니다만 광운대에서 검토한 결과 보면 일부 법률이라든가 또 일반적으로 확인된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수용이 가능한 범위다 이렇게 했고.

그렇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제 논문이 완벽하거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씀드리지도 않았습시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작성 당시에 이게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작성을 했고요. 그 당시에 만약 표절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작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은권 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작성할 당시에는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표절이더라’ 그 얘기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일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은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흡했던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논문을 쓸 때는 표절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지침을 잘 몰라서 썼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표절이더라’ 그 말씀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광운대에서 분석을 해서 가져온 거니까요.

○**이은권 위원** 광운대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광운대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는데 교육부나 한국연구재단에 하자는 게 뭐냐면 원래 논문 표절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검사위원회에서 보내 줘야 됩니다.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송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 후보자님, 정책성 질의 하나 할게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송언석 위원** 지금 보면 2019년 1·2월 거래된 아파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직전 계약 시점, 그러니까 2년 전 대비해 가지고 전세가격 하락 아파트 비중이 52%에 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벌써 작년 제작년부터 전체 전세가격 하락 아파트 비중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기 시작했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작년부터 사실 많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중에 역전세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보면 국토부에서는 역전세나 보증금 미

반환 등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보겠다, 굉장히 안이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후보자가 제출한 서면답변에 보면 ‘과열됐던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걸 보셨습니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을 처벌해 달라, 또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위기에 처했다, 이래서 역전세와 깡통전세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까지도 문제가 되었다, 이것은 지역의 경기라든지 금융부채의 증가, 고용 악화 등등으로 해서 보증금 반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현재 경기 어려운 것과 맞물려 가지고 서민들 생활에는 굉장히 큰 지장을 줄 수가 있어요. 이로 인해서 경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증금과 관련된 안전판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지방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차인 보호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시다만 저희 정부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한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하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은 강구하겠습니다.

○**송언석 위원** 한 가지 더 추가질의드릴게요.

지금 보면 이번에 공시가격을 굉장히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에 이어서 단독주택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주택 한 채 평생 겨우 모아서 가지고 있는데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 상한선이 150%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150% 까지 다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 민원이 굉장히 많고, 공시가격 자체에 대한 이의 신청이 전년보다 10배 이상 늘어났다는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서민 생활에 주택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굉장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큰 지장을 주고 있다는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공정 과세를 실

현하는 차원 그리고 그동안에 저평가되었던 단독주택 등을 맞추어 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고령자라든가 장기 보유자라든가 이런 것 또 보유세 인상 상한선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의 제도적 장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송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임종성 위원님 순서이지만 여야 간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재재추가 질의를 할는지 여야 간사들은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간사님들 나가셔서 협의를 좀 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성 위원** 후보자의 광운대 박사논문에 대해서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광운대가 국회에 제출한 입장을 보니까 표절률 2%로 표절로 볼 수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하지만 후보자께서 논문을 작성하실 때 좀 더 성실히 인용구를 쓰고 또 출처 표기를 확실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임종성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박사과정은 최고 권위의 학자로서 자격을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인이 체험하고 본인이 업무상 알게 된 경험을 가지고 풀어놓다 보면 학자로서 학문을 탐구하는 입장하고 주제 선정이 좀 안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논란들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2016년 그 추운 겨울에 상식이 통하는 사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촛불을 드셨거든요. 때문에 적어도 우리 정부의 국무위원들은 이러한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표절률이 높지는 않지만 후보자께서 증명하기에 좀 게으르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사과할 필요가 있고 또 성실한 업무를 견지하기 위해서 국토부가 옳은 길로 가

고 있음을 계속해서 증명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논문에 대해서는 제가 미흡한 부분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사과드리겠습니다.

○**임종성 위원** 그리고 질의 시간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는데요.

오늘 본질의 하고 보충질의, 추가질의, 재추가질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정해 놓고 이 답변을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자꾸 추가질의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늘 이 청문회장은 진실과 이런 것을 파악하고 또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이지 내가 그물을 쳐 놓고 이 안에 안 들어온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겠다 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점 좀 널리 양해해 주셔서, 충분히 질의를 했고 또 답변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시간 할애상 안 맞지 않을까, 또 청문회의 의도상 안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자** 임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현재까지 주질의와 보충질의 그리고 추가질의, 재추가질의 그리고 재재추가질의 그리고 재재재추가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하러 나갔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만하시지요, 이제.

○**위원장 박순자** 위원님들 잠깐만 기다려 주시지요. 협의를 하고 들어오면, 몇 시까지 할는지 협의가 된 다음에 잠시 정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현재 위원님하고 송언석 위원님 두 분 하시지요.

○**김영진 위원** 저도 할게요.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김영진 위원…… 세 분.

이현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현재 위원** 이현재 위원입니다.

장관후보자 고생이 많으신데요. 모두발언에서 보면 GTX, 광역버스, 슈퍼 BRT 등 핵심 교통수단을 빠르게 해서 90분 소요를 절반으로 줄이겠

다, 언제까지 줄일 것인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것은 속도감 있게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현재 위원** 그러니까 90분을 절반으로 줄인다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1년 내라든지 2년 내라든지, 그냥 무조건 줄인다는 것이 앞으로 10년 내에 줄인다는 것인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일단 GTX가 가장 출퇴근 시간을……

○**이현재 위원** 후보자께서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 때문에 본 위원이 하는 것입니다. GTX나 이런 것은 물론 그것이 되면 줄어들지 모르지만 아까 본 위원이 했던 것처럼 광역교통체계, 아까 서울하고 경기도 해서 대도시를 신도시 만들어서 연결하는 그 체계는 지금 안 되고 있고 두 번째는 또 광역버스, 아까 M버스도 이야기하셨지만 이것은 안 된단 말이지요. 물론 GTX처럼 외곽하고 연결하는 것도 해야 되는데 그것 해서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신도시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는 기존에 추진하는 광역교통계획, 본 위원이 지난번에 100만㎡ 이상 되는 30개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사업이 89개인데 3개가 정상이고 15개는 기간도 없고 97%가 1년에서 15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후보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기 GTX, 광역버스, 슈퍼 BRT 해서 원거리만 할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광역교통계획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밝혀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것도 챙겨 나가겠습니다. 특히 잘 아시는 대로 광역교통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보다 더……

○**이현재 위원** 그래서 광역교통위에 맡길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급, 장관이 하는데도 안 됐는데, 서울시도 통제 안 된다고 하는데 차관급 위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위원회에는 전부 시도 이해당사자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장관이 되시면 전문가라고 그러니까 교통행정, 주택행정 혁신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기존에 있는 틀에서 답변하지 말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다음은 송언석 위원님.

○**송언석 위원** 후보자님 조금 전에 제가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중간에 그쳤는데 후보자님이 이번에 증여하신 분당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얼마까지 올랐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제가 확인 못해 봤습니다.

○**송언석 위원** 지금 인사청문요청안에 의하면 가격이 2018년도에 5억 1200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송언석 위원** 지금 공시지가가 6억 1600으로 20.3%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얼마 정도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것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송언석 위원** 여유가 많으시니까 후보자님은 관심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송언석 위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시지가가 현실화됨에 따라서 사실은 평생 살면서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특별히 잘못된 것도 없고 투기적인 의사도 없었는데…… 후보자님이 오늘 하루종일 답변을 했듯이 살 때 실거주 목적으로 샀다고 계속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분들도 당연히 두 채 이상 아니고 한 채이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으로 샀고 투기 목적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 엄청난 세 부담을 지운다는 말이지요.

공시가격이 20%가 올랐으면 최소한 세 부담이 20%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합산하게 되면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1주택밖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특별히 잘못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 현실화를 한다고 하면서 그분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운다는 말입니다.

특히나 현실화한다고 하는데 현실화율에 대해서는 과거에 밝히지 않았던 것을 밝혔지만 어떤 근거로 해서 그것이 현실화됐는지 또 얼마만큼 간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여기에 분노하고 있고 여기에 반발하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위원님, 공시지가 가는 과거에 저평가되어서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 또 최근에 급등한 고가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세형평 차원에서 인상을 줄렸고요.

그다음에 일반 국민, 서민들이 거주하시는 공간에 대해서는 인상을 최소화해서 그런 부담이 적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60여 가지의 여러 지표로 사용되기 때문에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큼니다. 그게 앞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여러 가지 과세 기준으로 또는 고용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쓰이기 때문에 서민 부담이 없도록 저희가 조정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일반 국민, 서민의 부담이 없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부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령자라든가 또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반 국민, 서민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송언석 위원** 원론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틀린 게 전혀 아니고 다 맞는 얘기에요.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금 후보자님이 얘기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게 1주택 보유자들에게도 엄청난 세 부담으로, 세금폭탄으로 다가온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3주택을 가지고 계신 후보자께서는 그런 것을 잘 고려할 수 있느냐, 서민들의 아픔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정책 담당 주무장관이 될 수 있느냐 이 점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서민의 아픔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수원 팔달의 김영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는데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있어서 2019년에 단독주택은 시가의 53%, 토지는 64%, 공동주택은 68%입니다, 아파트는. 그리고 6억 미만의 주택에 관해서는 현재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게 전체 국민의 95%는 다 동의하는데 가끔 나오는 일부의 문제에 관해서 그것을 침소봉대해서 마치 그것이 전체 공시가격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왜곡하는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 제기가 있고 저희는.....

○김영진 위원 저는 데이터에 관해서, 한국감정원에서 우리 국민의 90% 이상에 관해서 나왔던 부분이 공시가격에 의해서 시세 수준별 기준으로, 아까 제가 데이터로 보였던 그 기준을 준수하는 게 맞다. 그것을 단지 자기 옆에 있는 그 누가 문제 제기해서 마치 우리 전체 국민이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조세정의, 공정과세.....

○김영진 위원 그렇지요, 조세정의. 그리고 그동안의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소득이 있고 재산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라고 하는 조세정의에 입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맞춰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지요? 정확히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 국토부에서 향후에 국토부 정책 중에 SOC를 확장하는 것이 마치 악이라고 하는 것은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 국민이 필요하고 또 우리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과감하게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다.....

장관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직후보자의 오랜 시간 답변으로 생리적인 해소와 효율적인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10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23분 회의중지)

(22시51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이은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권 위원 후보자님, 늦게까지 제가 질의를 하게 되어서 동료 위원들에게 미안하게도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여쭙을 때 ‘미흡한 부분은 표절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홍근 위원이 질의할 때 좀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해서 제가 확인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다시 묻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보님에 대한 양심을 보려고 내가 이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표절에 대해서 내가 문제를 삼고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장관직 수행을 정말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기 위해서 내가 후보자에게 질의를 던져서 이런 답변을 받았던 것인데 그 뒤에 답변하는 과정이 애매모호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를 다시 추가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후보님, 제가 아까 물었던..... 분명히 ‘미흡한 부분은 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변함없으시지요? 아까 답변한 부분이예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예, 여러 가지.....

○이은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 그 대답만..... 길게 할 것 없이, 그 얘기는 다 들었고.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제가 많이.....

○이은권 위원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여러 가지 미흡한 점,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주신 질책은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정말 제 논문에 대

해서 날카로운 검증은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제가 감사드리고 또 제 미흡함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논문 문제로 여러 위원님, 특히 이은권 위원님께 여러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순자 이은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후보자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 인사청문회를 마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최정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문회에 임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복으로서의 엄중한 소명의식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되새겼습니다.

제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사항과 소중한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현장의 각계 전문가, 특히 위원님들과 폭넓게 소통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임을 다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청문회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자 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국토·교통 분야의 정책 현안에 대해서 깊은 그리고 깊이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생산적이고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후보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여러 의견과 지적사항 등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여야 각 당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

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최정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56분 산회)

○출석 위원(29인)

| | | | |
|-------|-------|-------|-------|
| 강 훈 식 | 김 상 훈 | 김 석 기 | 김 영 진 |
| 김 철 민 | 민 경 옥 | 박 덕 흠 | 박 순 자 |
| 박 재 호 | 박 홍 근 | 서 형 수 | 송 석 준 |
| 송 언 석 | 안 호 영 | 윤 관 석 | 윤 호 중 |
| 이 규 희 | 이 용 호 | 이 은 권 | 이 헌 승 |
| 이 현 재 | 이 혜 훈 | 이 후 삼 | 임 종 성 |
| 정 동 영 | 주 승 용 | 함 진 규 | 홍 철 호 |
| 황 희 | | | |

○청가 위원(1인)

윤 영 일

○위원 아닌 출석 의원(3인)

김 관 영 나 경 원 홍 영 표

○출석 전문위원

| | |
|-------------|-------|
| 수 석 전 문 위 원 | 장 대 섭 |
| 전 문 위 원 | 박 희 석 |

○출석 공직후보자

최 정 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 | |
|---------|-------|
| 제 1 차 관 | 박 선 호 |
| 제 2 차 관 | 김 정 렬 |

【보고사항】

○의안 회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2019. 3. 12. 김병기·신경민·박정·표창원·김종민·이상현·김병욱·김영호·이원욱·윤후덕 의원 발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19. 3. 12. 이헌승·함진규·임이자·홍철호·이현재·박덕흠·곽대훈·박순자·김석기·이진복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13일 회부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2019. 3. 13. 정동영·박주현·김광수·장정숙·정인화·황주홍·조배숙·손금주·주승용·김중희 의원 발의)

3월 14일 회부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19. 3. 14. 이헌승·유재중·김정재·정태욱·이진복·신보라·유기준·문진국·임이자·홍철호·이현재·곽대훈·박순자·김석기 의원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19. 3. 14. 윤호중·이학영·이규희·김현권·박홍근·윤소하·윤영일·변재일·김상희·이찬열 의원 발의)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19. 3. 14. 윤호중·이학영·이규희·김현권·박홍근·윤소하·윤영일·변재일·김상희·이찬열 의원 발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19. 3. 14. 윤호중·이학영·이규희·김현권·박홍근·윤소하·윤영일·변재일·김상희·이찬열 의원 발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19. 3. 14. 윤호중·이학영·이규희·김현권·박홍근·윤소하·윤영일·변재일·김상희·이찬열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19. 3. 14. 윤호중·이학영·이규희·김현권·박홍근·윤소하·윤영일·변재일·김상희·이찬열 의원 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19. 3. 14. 윤호중·이학영·이규희·김현권·박홍근·윤소하·윤영일·변재일·김상희·이찬열 의원 발의)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19. 3. 14. 윤호중·이학영·이규희·김현권·박홍근·윤소하·윤영일·변재일·김상희·이찬열 의원 발의)

이상 8건 3월 15일 회부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19. 3. 15. 박홍근·안호영·김철민·윤관석·이후삼·이용득·서영교·서삼석·강훈식·김상희·윤준호·신창현·김병기·박찬대·유동수·어기구·노웅래 의원 발의)

3월 18일 회부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9. 3. 18. 신창현·서영교·정재호·윤준호·서삼석·설훈·박정·유동수·심재권·박찬대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19. 3. 18. 김상훈·정태욱·김기선·심재철·박덕흠·김승희·박순자·윤영석·추경호·이종배 의원 발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9. 3. 18. 김관영·박주선·주승용·김삼화·박선숙·유의동·최도자·전혜숙·임재훈·김수민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19일 회부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2019. 3. 19. 송석준·김중희·이은권·이만희·이진복·박완수·김도읍·여상규·김규환·장석춘·최교일·엄용수·박순자·김상훈·박덕흠 의원 발의)

3월 20일 회부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19. 3. 20. 우원식·윤일규·오영훈·김상희·김병관·서영교·윤후덕·김현권·김성환·제윤경·박홍근·이학영·김중훈·인재근 의원 발의)

3월 21일 회부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9. 3. 21. 신창현·어기구·서영교·박홍근·김영주·박찬대·맹성규·전재수·표창원·윤준호 의원 발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2019. 3. 21. 황희·김영진·최인호·심재권·어기구·홍익표·고용진·안호영·김철민·김성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22일 회부됨

○의안 철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18. 11. 20. 김철민·김현권·윤관석·전재수·

위성곤·이개호·이수혁·윤영일·이찬열·

이석현·설훈 의원 발의)

2019년 3월 13일 발의자 철회 요구